

기본연구

2017-01

경기도 청년층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청년층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

2017. 12.

발 간 사

청년층 고용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실업률은 3.7%인데 반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9%로 전체 연령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이 3%대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던 것에 비해 청년 실업률은 2000년 이후 7~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3년 이후 급속히 상승하여 약 1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의 상승은 고졸 실업률이 안정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대졸 실업률 상승에 기인합니다. 취업난 속에서 청년들의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은 11.6개월로 구직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으며,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등을 통한 노동수요의 확대가 근본적인 처방이지만, 청년층에 특화된 고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청년층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용시장과 청년 일자리정책 및 지원사업을 분석하여 경기도 청년 일자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경기도 지역차원에서 청년층의 고용구조에 대한 분석입니다. 경기도는 국내 지역노동시장 가운데 가장 큰 지역으로서 행정구역상 31개 시·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군별 산업기반지역, 공업지역, 농어촌지역 등 지역 간 경제 및 산업구조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전체 31개 시군구를 중부, 남부, 동부, 북동부, 북서부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노동시장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둘째, ‘이동’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지역내 노동이동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역 간 인구이동에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순전입이 가장 많으며, 현 거주지에서 다른 시도 지역으로 통근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지역 간 인구이동 및 통근자를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이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권역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자신들의 경력을 정착해가는 과정 속에서 빈번한 지역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이동을

고려한 노동시장 분석이 중요합니다.

셋째, 경기도의 청년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진단과 분석입니다. 지역은 산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는 현장입니다. 고용정책 수행에 있어서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분권화되는 추세이지만 지역차원에서 청년층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 대책을 진단하는 것은 기초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층 고용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일자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구총조사’를 활용하여 경기도 청년층의 연령·성별·학력별 인구분포와 인구이동을,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청년층의 노동시장 구조를 지역, 산업, 직종, 종사상 지위를 포함한 고용구조 측면과 연령, 성, 학력 그리고 근속년수와 같은 인적특성별 측면에서 살펴보고, 임금구조와 임금결정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의 실태를 진단하고 일자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노력한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가 경기도 청년층의 고용문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청년 취업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개선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김 화 수

<목 차>

요약	i
I. 문제제기	1
II. 경기도 청년층 특성과 인구이동	7
1. 경기도 청년층 인구특성	9
가. 지역별 청년층 노동공급 특성	9
나. 지역별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	19
2. 경기도 청년층 인구이동	24
가. 경기도 청년층의 통근 및 통학	24
나. 경기도 대졸자 청년층의 인구이동	32
다. 경기도 전입 청년층의 특성	36
3. 소결	38
III. 경기도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	43
1. 경기도 청년층의 고용구조	45
가. 인적특성별 고용구조	45
나. 일자리의 특성과 고용구조	54
2. 경기도 청년의 임금구조	76
가. 임금수준	76
나. 연령과 임금의 변화	77
다. 학력과 임금	78
라. 권역별 임금수준	80
마. 산업별 임금수준	81
바. 직업별 임금수준	83
사. 근속기간과 임금수준	85
아. 기간제 여부와 임금수준	86
자. 종사상 지위와 임금수준	87
3. 임금함수의 추정	88

IV. 경기도 청년정책 수요 관점에서 본 청년층 고용 문제의 진단	93
1. 권역별 청년층 고용대책 필요	95
2. 청년 실업률 증가	97
3. 청년 니트와 유휴화 문제	98
4. 일자리 미스매치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100
5.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102
6. 경기도 청년층의 일자리 인식과 수요조사 결과	104
V.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현황과 실태	105
1. 경기도 청년정책 기조	107
2. 경기도 청년일자리 대책 현황	110
가. 총괄	110
나. 고교생 직업마인드 교육 및 취업활성화	113
다. 고용서비스	113
라.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	114
마. 대학중심 일자리 사업	115
바. 직업능력개발 훈련	117
사. 창업지원	118
아. 취업지원	121
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취업지원	122
VI.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125
1.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존 평가	127
2.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130
가. 청년정책 기조와 청년일자리 사업	130
나. 개별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과효율성	131
VII.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	135
1.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	137
2. 경기도 청년고용정책 방향	139
가. 지역단위의 청년고용정책의 모델 개발 원칙	139
나.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정책강화	140
다.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복합적 지원방안 필요	141
참고문헌	143

〈표 차례〉

<표 1> 전국 지역별/성별 청년층의 연령 분포	10
<표 2>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10
<표 3> 5개 권역(중부)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11
<표 4> 5개 권역(남부)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12
<표 5> 5개 권역(동부)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13
<표 6> 5개 권역(북서부)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13
<표 7> 5개 권역(북동부)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14
<표 8> 전국 지역별 청년층의 학력 분포	14
<표 9>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의 학력 분포	15
<표 10> 5개 권역(중부) 청년층의 학력 분포	16
<표 11> 5개 권역(남부) 청년층의 학력 분포	17
<표 12> 5개 권역(동부) 청년층의 학력 분포	18
<표 13> 5개 권역(북서부) 청년층의 학력 분포	18
<표 14> 5개 권역(북동부) 청년층의 학력 분포	19
<표 15>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고용지표	20
<표 16>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성별 고용지표	21
<표 17>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니트 현황	22
<표 18>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성별 니트 현황	23
<표 19> 광역시도별 통학지역 분포(경기도 거주 4년제 대학생)	25
<표 20> 5개 권역별 통학자수 분포(경기도 거주 4년제 대학생)	26
<표 21> 성별 통학자수 분포(경기도 거주 20-34세 청년)	27
<표 22> 통근지역 전체분포	28
<표 23> 성별 통근지역 분포	28
<표 24> 연령별 통근지역 분포	29
<표 25> 5개 권역별 통근자수 분포	30
<표 26> 교육수준별 통근자수 분포	30
<표 27> 서울지역으로의 통근 결정요인 분석	31
<표 28> 5개 권역별 대졸자 청년층 통근지역분포	33
<표 29> 5개 권역 거주지역별 대학졸업 지역분포	34

<표 30> 5개 권역 거주지역별 고등학교졸업 지역분포	35
<표 31> 전입 청년층 전출지역별 분포	37
<표 32> 전출지역별 교육수준 비중 분포(%)	37
<표 33> 청년층(15~34세)의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고용률	47
<표 34> 청년층(15~34세)의 성, 연령, 학력 및 지역별 고용률	50
<표 35> 경기도 청년층의 성, 연령, 학력 및 권역별 고용률	53
<표 36>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성별 산업분포	55
<표 37>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연령 및 학력별 산업분포	56
<표 38> 지역과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분포	57
<표 39>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5개 권역별 산업분포	58
<표 40>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 중분류별 분포	61
<표 41>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연령 및 학력별 직업분포	63
<표 42> 지역별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분포	64
<표 43>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5개 권역별 직업분포	64
<표 44> 경기도 청년 취업자의 연령, 학력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	67
<표 45> 지역과 종사상 지위의 분포	68
<표 46> 청년 취업자의 5개 권역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	68
<표 47> 청년 취업자의 연령, 학력별 근속기간	70
<표 48> 지역과 청년 취업자의 근속기간	71
<표 49> 5개 권역별 청년 취업자의 근로기간	72
<표 50> 경기도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의 비중과 계약기간의 분포: 연령 및 학력	74
<표 51> 지역과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의 비중 및 계약기간의 분포	74
<표 52>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의 비중과 계약기간의 분포	75
<표 53> 경기도 청년 취업자의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 임금	79
<표 54> 경기도 청년 취업자의 연령별, 학력별 시간당 임금	79
<표 55>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5개 권역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분포	80
<표 56>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5개 권역별 시간당 임금 및 임금분포	80
<표 57>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81
<표 58>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시간당 임금	82
<표 59>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별 월평균 임금	84
<표 60>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별 시간당 임금	84
<표 61> 청년층 취업자의 근속기간별 월평균 임금	85
<표 62> 청년층 취업자의 근속기간별 시간당 임금	86
<표 63> 청년층 취업자의 기간제 여부 및 계약기간과 월평균 임금	86
<표 64> 청년층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	87
<표 65>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 추정 - 월평균 임금 기준	89

<표 66> 경기도와 전국의 청년 취업자 임금의 추정 - 월평균 임금 기준	91
<표 67>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고용지표	96
<표 68>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니트 현황	98
<표 69> 2017년 시행중인 경기도 청년정책	108
<표 70>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2017년)	110
<표 71> 2017년 경기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111
<표 72> 경기도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2017년)	112
<표 73> 고교생 직업마인드 교육 및 취업활성화사업	113
<표 74> 고용서비스 사업	114
<표 75>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	114
<표 76> 대학중심 일자리 사업	116
<표 77> 직업능력개발 훈련	117
<표 78> 창업지원 사업	119
<표 79> 취업지원 사업	122
<표 80>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123
<표 81> 국가적·지역적 수준의 행동지침을 위한 정책원칙	139

〈그림 차례〉

[그림 1]	청년층(15~34세)의 지역별 고용률	45
[그림 2]	청년층(15~34세)의 성별, 지역별 고용률	46
[그림 3]	경기도의 성별·연령별 고용률 추이	48
[그림 4]	경기, 서울 및 여타 도 지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49
[그림 5]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의 고용률	52
[그림 6]	청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경기도 및 전국	54
[그림 7]	청년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경기도 및 전국	59
[그림 8]	경기도 청년 취업자의 성별, 직업별 분포	60
[그림 9]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졸업, 중퇴 및 무학 청년	65
[그림 10]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재학 및 휴학 청년	66
[그림 11]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성별 종사상지위의 분포	66
[그림 12]	청년취업자의 근속기간 분포	69
[그림 13]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성별 근속기간 분포	70
[그림 14]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가 아닌 근로자의 비중	73
[그림 15]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인 근로자의 지역별 비중	73
[그림 16]	청년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의 분포(재학 및 휴학생 포함)	76
[그림 17]	성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 임금의 변화	77
[그림 18]	성과 연령에 따른 시간당 임금의 변화	77
[그림 19]	경기 청년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수준(=해당 산업 월평균 임금/전체 월평균 임금) ..	83
[그림 20]	경기도의 청년(15-29세) 경제활동 상태 추이	95
[그림 21]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97
[그림 22]	청년(15-29세) 유휴화율 추이	99
[그림 23]	청년(15-29세) 학력별 실업률과 유휴화율 추이	99
[그림 24]	경기도의 미스매치 추이	100
[그림 25]	경기도 서비스업의 미충원율(2016년)	101
[그림 26]	지역별, 경기도 권역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102
[그림 27]	경기도 종사상 지위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103
[그림 28]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132
[그림 2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132

청년고용문제가 보다 심화됨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차례 청년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등 인프라를 확대하여 청년고용대책 실행을 뒷받침하여 왔으나, 청년고용문제는 쉽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청년실업자 등과 같은 정책대상 집단이 전국적으로는 동일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집중도는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경제가 거시경제적 변화나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적응력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전략의 모색이 중요해 지고 있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청년층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많고 산업구조가 다양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고 청년의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고용서비스나 청년구직수당 등 청년 대상의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중앙과 지방의 중복 문제와 전달체계의 효율성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의 문제 등으로 청년층들에게 체감되는 정책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권역별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여 청년층 고용실태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권역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청년고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통해서 경기도 내 청년층과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권역별 특성 파악을 위해 2017년도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제공한 5개 권역 기준에 의거해서 지역별 노동시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2015년도 인구총조사 2% 표본(시군구 인구가중치 부여)을 활용하여 경기도 내 5개 권역별 연령, 성 그리고 학력별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2015년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코호트 구성비율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권역 구분에 상관없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성비에 있어서는 경기도 북서부권역의 경우 여성비중이 52.3%로 다른 경기도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청년층의 학력수준을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고졸비중은 25.6%, 전문대졸 36.6% 그리고 대졸자 33.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과 거의 흡사한 결과이다. 경기도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5개 권역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규모가 가장 높은 남부권역의 대졸자 비중이 35.5%로 경기도 평균 33.0%를 상회하고 있었으며, 대학원 이상 청년층 비중도 4.6%로 다른 권역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7년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4세 생산가능인구수는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이 가운데 취업이나 비취업으로 분류되는 경제활동인구수는 169만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6.6%로 추정되었다. 경기도 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58만 명으로 고용률은 62.1% 그리고 실업자 수 11만5천명으로 실업률 6.8%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동부권역으로 66.3%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에 북동부권역의 고용률은 60% 미만으로 추정되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국 20-34세 인구 가운데 청년무업자(니트)의 규모는 138만 명으로 전체 인구 995만 명 대비 니트 비율이 13.9%로 추정되었고 경기도는 이 비율보다는 다소 낮은 13.5%로 추정되었다. 니트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동부권역으로 15.5% 그리고 북서부 14.4%, 중부 14.3%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20-34세 청년층의 통근 및 통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도 인구총조사 2% 샘플(인구가중치 사용) 자료를 분석하였다. 경기도 내에서 통학하는 비중이 거의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근지역 분포의 경우 경기도 내 거주하는 20-34세 청년층 가운데 통근하고 있는 전체 규모는 138만 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72.7%인 약 100만 명이 경기도 내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상반기 경기도 청년층(15~34세)의 고용률은 53.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청년 남성의 고용률은 55.8%, 여성의 고용률은 50.5%이고, 규모는 남성이 93만4천명으로 청년 취업자의 53.0%를 점유하고 있고, 여성은 82만8천명으로 47.0%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 사이에는 경기도의 고용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30~34세에는 전국의 평균 고용률(74.5%)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30세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는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앞서고 있지만 30세를 기점으로 남녀 고용률의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력별 고용률은 경기도 중졸 이하 청년의 고용률은 6.8%에 불과하지만 고졸은 47.1%, 전문대졸은 72.9%, 그리고 대졸 이상은 74.7%이다.

경기도 청년들이 취업한 산업을 보면 제조업이 2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소매(15.8%)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보건복지(8.9%), 음식숙박(8.2%), 교육서비스(7.7%), 전문과학기술(7.2%) 등에 청년의 7% 이상이 취업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취업 청년들의 직업을 보면 전문직이 3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무직(24.4%), 판매직(11.2%)의 순서이다. 직업 중분류 수준에서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청년 취업자의 19.9%가 종사하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도 분석하였는데, 임금근로자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용직이 7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임시직(17.5%)과 일용직(2.8%)의 순서이다. 경기도 청년 취업자를 중심으로 근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근로기간은 2.56년이었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취업자도 36.2%로 상당수의 청년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7년 4월 기준 207.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경기도 청년남성의 월평균 임금이 227.5만원인데 비해 청년여성은 184.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남성의 임금은 연령에 따라 계속 상승하여 51~53세에 월평균 임금 369.9만원, 시간당 임금 19,695원으로 정점을 이룬 뒤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33~35세에 월평균 임금 224.1만원, 시간당 임금 12,997원의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이후 완만하게 줄어드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중졸 이하 청년층은 156.3만원을 받고 있지만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253.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어 학력에 따른 임금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4절과 5절에서는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제6절에서는 기존 청년고용정책 및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청년고용문제는 전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 경기도 자체의 특성을 보이는 측면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다양한 노동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어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청년 실업률과 청년 니트율, 일자리 미스매치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낮은 체감성 등, 경기도 청년 노동시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청년일자리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절에서는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기본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고용정책 방향에 대하여 첫째, 지역 단위의 청년고용정책의 모델 개발, 둘째,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정책 강화, 셋째,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복합적 지원방안 필요하다는 제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모색해 보았다.

I . 문제제기

청년고용문제가 보다 심화됨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청년 고용문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나 높은 청년 실업률의 지속은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신규인력 수요 위축이라는 전 세계적 공통요인이 있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고학력자 위주의 인력 공급에 따른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미스매치 현상이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수한 상황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거의 매년 청년고용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등 인프라를 확대하여 청년고용대책 실행을 뒷받침하여 왔다.¹⁾ 또한 지속적으로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사업의 재구축, 신규사업의 도입, 예산의 조정 등을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문제는 쉽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에서 지역의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갖는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정부 정책의 성과개선이 지역의 개별 특성에서 나타난 일자리 문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일자리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지역은 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유지되는 구체적인 공간이다. 일자리 창출의 최종 전달체계는 지역 단위이고 따라서 지역 차원의 일자리 창출전략의 모색이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정책이 집행되는 현장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노동시장정책이 지역전략에 충분히 기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관리에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개인의 특수한 욕구와 사정에 적합한 개인화된 지원이나 유연한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간적으로나 인구학적 으로나 타게팅을 가지는 지역화된(localised) 정책 틀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전략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계획되는 것이 지역 수준에서 중요하다면, 이를 경제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지역 간 경제 사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자 등과 같은 정책대상집단이 전국적으로는 동일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집중도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는 지역경제가 거시경제적 변화나 노동시장의 구성 변화 등에 대응하는 적응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의 일자리 정책의 성과제고는 중앙단위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 청년고용대책 일자리 예산 규모 추이: (13년) 1조 6,156억원→(14년) 1조 7,538억원→(15년) 1조 9,750억원 → (16년) 2조 3,495억원 → (17년) 2조 5,728억원

이런 점에서 최근 고용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지역단위에서 접근하고 청년고용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모색은 지역단위의 일자리 성과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청년층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많고 산업구조가 다양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하고 청년의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청년고용서비스나 청년구직수당 등 청년 대상의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중앙과 지방의 중복 문제와 전달체계의 효율성 문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의 문제 등으로 청년층들에게 체감되는 정책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권역별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여 청년층 고용실태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권역별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청년고용대책의 수립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정책 평가에 앞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통해서 경기도 내 청년층과 노동시장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경기도 내 지역별 청년층의 인구분포와 학력수준을 파악하였다. 청년층(본 연구에서는 20-34세로 정의)의 연령을 20-24세, 25-29세 그리고 30-34세로 구분하고 이들의 학력별 분포를 경기도 내 5개 권역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권역별 내에서의 연령별 그리고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향후 경기도가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지역별로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고자 2017년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5개 권역별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을 추정하여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무취업자, 소위 니트(NEET)에 대한 규모를 경기도 각 권역별로 파악하여 지역노동시장에 장기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층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마련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청년층은 정규교육기관(대학교)에서 학업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졸업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장에 종사하는 경우로 나뉘게 된다. 즉 통학과 통근을 통한 인구이동 혹은 노동이동은 청년층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성이다. 20-34세 청년층의 통근 및 통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도 인구총조사 2% 샘플(인구가중치 사용)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재 거주지역과 직장 주소를 매칭하여 경기도 청년층이 경기도 내 혹은 서울을 포함한 다른 지역으로의 노동이동에 대한 원인분석을 밀도 있게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청년층이 직장으로 인해 도내 밖으로 이동하는 요인들 가운데, 성별과 연령 학력

수준 그리고 일자리 산업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런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고하는데 본 연구가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구이동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로 전입하는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초 통계량 자료를 본 연구에서는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통계청의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 청년층 고용구조를 지역, 산업, 직종, 규모를 포함한 고용구조 측면과 연령, 성, 학력 그리고 근속 연수와 같은 인적특성별 고용구조 측면에서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년층의 임금구조와 임금결정요인을 살펴보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청년일자리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고 정책개선방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분석, 전달체계의 효율성 평가 등 사업평가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추후의 과제로 넘기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경기도 청년층 노동 시장분석과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 및 관련 사업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청년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경기도 청년층 특성과 인구이동

1 경기도 청년층 인구특성

가. 지역별 청년층 노동공급 특성

청년층의 연령을 구분하는 기준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나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15-29세 연령을 지칭하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이 기준에 근거해서 정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청년층 연령을 18-34세로 정의하고 이 기준에 속한 청년에 대한 다양한 노동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15-18세 대다수 청년층은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만 19세에 상당수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취업의사결정을 고려하여 청년층의 연령을 20-34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이규용 외, 2016).

청년층의 경우 자신들의 경력을 정착해가는 과정 속에서 빈번한 지역이동(노동이동 수반)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중심의 노동시장 분석이 중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31개의 다양한 시군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지역위치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권역별 특성 파악을 위해 2017년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제시한 5개 권역 기준을 따르고자 한다. 경기도 5개 권역은 중부 8개시(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 남부 7개시(성남시,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안성시), 동부 6개시군(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 북서부 3개시(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그리고 북동부 7개시군(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권역(지역)별 청년층의 연령과 성 그리고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 2015년도 인구총조사 2% 표본(시군구 인구가중치 부여)을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이 자료의 경우 현재 거주지를 시군구별로 구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 5개 권역별 연령, 성 그리고 학력별 분포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34세 청년층을 5년 단위 코호트로 구분하여 각각 20-24세, 25-29세 그리고 30-34세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층의 연령 및 성별 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가 <표 4>와 같다. 2015년도 전국 청년층 총 인구는 930만6천명이며, 20-24세, 25-29세 및 30-34세 그룹의 평균비율은 각각 29.7%, 32.0%, 38.4%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코호트 구성비율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패턴은 경기도 지역에서도 거의 흡사하게 보이고 있으며 인천지역과 서울에서도 발견된다.

〈표 1〉 전국 지역별/성별 청년층의 연령 분포

(단위: 천 명, %)

시도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여성비율
전국	9,306 (100.0%)	2,760 (29.7%)	2,975 (32.0%)	3,570 (38.4%)	4,643 (50.1%)
경기	2,279 (100.0%)	667 (29.3%)	717 (31.5%)	894 (39.2%)	1,154 (50.7%)
인천	560 (100.0%)	166 (29.8%)	179 (32.0%)	214 (38.2%)	283 (50.6%)
서울	2,115 (100.0%)	581 (27.5%)	714 (33.8%)	820 (38.8%)	1,095 (51.8%)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층을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연령분포를 <표 2>와 같이 나타내었다. 20-34세 인구 규모에 있어서 남부권역이 제일 많은 86만1천명이며, 중부 67만3천명, 북서부 30만명, 북동부 28만9천명 그리고 동부 15만4천명 순서이다. 권역구분에 상관없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권역별로 다소의 차이가 발견되기는 한다. 예를 들어, 동부권역과 남부권역의 경우 30-34세 비중이 다른 권역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비에 있어서는 경기도 북서부 권역의 경우 여성비중이 52.3%로 다른 경기도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여성비율
중부	673 (100.0%)	205 (30.5%)	217 (32.3%)	250 (37.2%)	337 (50.1%)
남부	861 (100.0%)	239 (27.8%)	269 (31.3%)	352 (40.9%)	434 (50.4%)
동부	154 (100.0%)	42 (27.6%)	48 (31.2%)	63 (41.2%)	76 (49.8%)
북서부	300 (100.0%)	88 (29.4%)	93 (31.1%)	118 (39.5%)	157 (52.3%)
북동부	289 (100.0%)	91 (31.5%)	89 (31.0%)	108 (37.6%)	148 (51.3%)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 각 권역 내 시군구들도 각각의 독립적인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 5개 권역 내 시군구별로 청년층의 연령분포 분석을 본 연구에서 시도하였다. 먼저 5개 권역 가운데 중부지역의 8개시별로 연령분포를 <표 3>에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중부권역권 내 행정단위 시 가운데 20-34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부천시로 17만4천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안산시 14만2천명, 안양시 11만8천명 순서였다. 중부권 내 8개 도시들 가운데 30-34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광명시로 41.6%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20-24세 비중은 27.6%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군포시의 인구코호트 비중도 광명시와 대체로 비슷하다. 반면 과천시와 안산시의 경우 20-24세 비중(32-33%)이 상대적으로 중부 권역 내 다른 시들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 인구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시흥시가 46.8%로 다른 시들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산시(48.4%)와 의왕시(49.0%)도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5개 권역(중부)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중부)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여성비율
의왕시	29 (100%)	9 (30.7%)	9 (32.5%)	10 (36.9%)	14 (49.0%)
군포시	56 (100%)	15 (27.6%)	18 (32.2%)	22 (40.2%)	29 (51.8%)
안양시	118 (100%)	36 (30.3%)	38 (32.7%)	43 (37.0%)	60 (50.8%)
과천시	11 (100%)	3 (31.9%)	3 (33.9%)	4 (34.2%)	6 (52.1%)
시흥시	75 (100%)	24 (32.1%)	23 (30.9%)	27 (37.1%)	35 (46.8%)
안산시	142 (100%)	47 (33.1%)	45 (32.1%)	49 (34.8%)	69 (48.4%)
광명시	64 (100%)	17 (27.6%)	19 (30.8%)	26 (41.6%)	33 (52.4%)
부천시	174 (100%)	52 (29.9%)	57 (33.0%)	64 (37.2%)	89 (51.2%)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 남부권역의 경우도 도시별로 연령분포의 차이는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의 경우 30-34세 인구비중이 무려 47.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시들의 경우

40%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적으로 50% 전후를 보여주고 있다.

<표 4> 5개 권역(남부)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남부)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여성비율
성남시	191 (100%)	52 (27.4%)	62 (32.9%)	75 (39.7%)	97 (50.8%)
용인시	158 (100%)	46 (29.6%)	46 (29.1%)	65 (41.4%)	80 (51.0%)
오산시	43 (100%)	10 (24.1%)	12 (30.0%)	19 (46.0%)	21 (50.4%)
화성시	103 (100%)	23 (22.9%)	30 (29.4%)	49 (47.7%)	52 (50.9%)
수원시	250 (100%)	72 (29.1%)	81 (32.6%)	96 (38.3%)	125 (49.9%)
평택시	81 (100%)	23 (28.8%)	25 (31.2%)	32 (40.0%)	41 (50.2%)
안양시	118 (100%)	36 (30.3%)	38 (32.7%)	43 (37.0%)	60 (50.8%)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 동부권역의 6개 시군별 연령분포는 시와 군, 행정구역에 따른 분포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동부권역에 속한 가평군과 양평군의 경우 20-24세 코호트 비중이 다른 4개시들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에 30-34세 연령 그룹의 비중이 다른 시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여성 청년층의 비중도 2개 군에서 다른 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5> 5개 권역(동부)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동부)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여성비율
하남시	27 (100%)	7 (26.8%)	8 (31.7%)	11 (41.5%)	13 (49.5%)
가평군	7 (100%)	2 (31.4%)	2 (33.9%)	2 (34.7%)	3 (48.7%)
양평군	12 (100%)	4 (31.3%)	4 (33.4%)	4 (35.4%)	6 (48%)
여주시	15 (100%)	4 (30.5%)	5 (31.3%)	6 (38.1%)	7 (48.8%)
이천시	34 (100%)	9 (27.8%)	11 (32%)	14 (40.2%)	17 (49%)
광주시	55 (100%)	14 (25.6%)	16 (29.5%)	24 (44.9%)	28 (51.3%)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북서부권역의 경우 고양시를 제외한 파주시와 김포시의 30-34세 코호트 비중이 다른 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층 비중은 다른 권역의 시군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양시의 경우 여성비중이 5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5개 권역(북서부)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북서부)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여성비율
파주시	67 (100%)	17 (26.3%)	20 (30.8%)	29 (43.0%)	34 (50.4%)
고양시	176 (100%)	55 (31.6%)	56 (32%)	64 (36.4%)	94 (53.2%)
김포시	55 (100%)	14 (26.0%)	16 (28.8%)	25 (45.2%)	28 (51.7%)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북동부권역의 경우 연천군이 20-24세 비중이 33.1%로 30-34세 코호트 비중 30.4% 보다 높게 나타나서 연령증가에 따른 인구비중의 패턴이 경기도 내 다른 시군구와는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포천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시들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코호트 인구구조 패턴은 앞의 경우들과 흡사하다.

〈표 7〉 5개 권역(북동부) 청년층의 연령/성별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북동부)	20-34세	20-24세	25-29세	30-34세	여성비율
양주시	31 (100%)	9 (31.4%)	9 (30.9%)	11 (37.7%)	15 (50.2%)
동두천시	15 (100%)	4 (30.6%)	4 (31.0%)	5 (38.4%)	7 (50.9%)
의정부시	76 (100%)	24 (32.4%)	23 (31.3%)	27 (36.3%)	40 (52.2%)
포천시	23 (100%)	7 (33.5%)	7 (34.3%)	7 (32.3%)	11 (49.4%)
연천군	6 (100%)	2 (33.1%)	2 (36.4%)	2 (30.4%)	2 (44.2%)
남양주시	103 (100%)	31 (30.2%)	30 (29.5%)	41 (40.3%)	53 (51.6%)
구리시	33 (100%)	10 (32.1%)	10 (31.6%)	12 (36.4%)	17 (52.6%)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 청년층의 학력수준을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물론 청년층 연령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고졸 비중은 25.6%, 전문대졸 36.6% 그리고 대졸자 33.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평균과 거의 흡사한 결과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서울 청년층의 학력수준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인접한 인천보다는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8〉 전국 지역별 청년층의 학력 분포

(단위: 천 명, %)

시도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전국	119 (1.3%)	2,212 (23.8%)	3,479 (37.4%)	3,186 (34.2%)	308 (3.3%)
경기	30 (1.4%)	584 (25.6%)	834 (36.6%)	752 (33.0%)	77 (3.4%)
인천	8 (1.5%)	167 (29.9%)	207 (37.0%)	164 (29.4%)	12 (2.3%)
서울	15 (0.8%)	398 (18.5%)	734 (34.7%)	860 (40.7%)	107 (5.1%)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5개 권역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를 <표 9>에서 보여주고 있다. 인구규모가 가장 높은 남부권역이 다른 권역들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대졸자의 비중이 35.5%로 경기도 평균 33.0%를 상회하고 있으며 다른 권역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이상 청년층 비중도 4.6%로 다른 권역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부권역과 북서부권역은 경기도 평균 학력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반면에 동부와 북동부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다른 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북동부 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대졸자의 비중은 27.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 전문대졸자의 비중이 거의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졸자 비중도 30.0%로 다른 권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부지역도 북동부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졸자 보다는 전문대졸과 고졸자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9>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의 학력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중부	9 (1.4%)	175 (26.1%)	245 (36.5%)	224 (33.6%)	19 (2.9%)
남부	10 (1.2%)	201 (23.4%)	304 (35.3%)	305 (35.5%)	39 (4.6%)
동부	2 (1.9%)	47 (30.7%)	56 (36.8%)	42 (27.8%)	4 (2.8%)
북서부	3 (1.0%)	72 (24.3%)	113 (37.9%)	101 (33.9%)	8 (2.9%)
북동부	4 (1.6%)	86 (30.0%)	114 (39.4%)	78 (27.0%)	5 (2.0%)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 각 권역별 내 시군구별 청년층 학력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부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권역 내 각 시별로 매우 상이한 학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과천시와 고양시의 경우 전체 청년층 가운데 대졸자 비중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양시 41.2%, 군포시 40.7% 순서였다. 이에 반해 시흥시 거주 청년층 가운데 대졸자 비중은 23.7%로 최하위에 머물렀고 안산시와 광명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대졸자 비중도 각각 27.2%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중부권역 내 전문대졸의 비중은 8개시에서 평균적으로 35-37%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 내 고졸자의 비중은 대졸자의 비중과 정확히 역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졸자 비중이 제일

높은 과천시시의 경우 고졸자 비중은 10% 수준에 미친 반면 대졸자 비중이 제일 낮은 시흥시의 경우 고졸자 비중이 무려 35%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이런 학력분포는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간 상이한 학력분포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존재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설은 지역별로 상이한 능력을 가진 인구분포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거주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은 지역별로 고학력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졸자의 능력을 요구하는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고학력 청년층이 몰릴 수밖에 없다. 물론 실제 거주지역과 직장위치와의 동일성 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0> 5개 권역(중부) 청년층의 학력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중부)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의왕시	0 (0.5%)	5 (18.1%)	11 (37.5%)	11 (39.8%)	1 (4.2%)
군포시	0 (0.5%)	11 (20.8%)	19 (35.2%)	23 (40.7%)	1 (2.8%)
안양시	0 (0.5%)	22 (19.0%)	41 (35.0%)	48 (41.2%)	5 (4.4%)
과천시	0 (0.7%)	1 (10.3%)	4 (38.7%)	5 (43.5%)	0 (6.8%)
시흥시	1 (2.5%)	27 (36.6%)	27 (36.1%)	17 (23.7%)	0 (1.2%)
안산시	3 (2.2%)	45 (32.2%)	52 (36.5%)	38 (27.2%)	2 (1.9%)
광명시	3 (2.2%)	45 (32.2%)	52 (36.5%)	38 (27.2%)	2 (1.9%)
부천시	2 (1.5%)	46 (26.7%)	64 (36.8%)	56 (32.6%)	4 (2.5%)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 남부권역의 경우도 지역간 학력분포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 비중을 기준으로 안양시가 가장 높은 41.2%를 보여주고 있으며 용인시 39.7%, 성남시 39.0%, 수원시 36.5% 순서이다. 반면에 평택시의 경우 청년층의 25.9%만이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자의 비중은 35.4%로 남부권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오산시 거주자의 청년층 학력수준도 남부권역 내 다른 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역의 경우에서도 각 시별로 전문대졸 비중은 대체적으로 35%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중부권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졸청년층과 대졸청년층 비중은 서로 역의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

<표 11> 5개 권역(남부) 청년층의 학력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남부)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성남시	1 (0.7%)	37 (19.6%)	66 (34.6%)	74 (39.0%)	11 (6.1%)
용인시	1 (1.0%)	27 (17.2%)	58 (36.8%)	62 (39.7%)	8 (5.4%)
오산시	0 (1.8%)	15 (35.2%)	15 (34.7%)	11 (26.7%)	0 (1.6%)
화성시	1 (1.4%)	28 (27.5%)	35 (34.4%)	34 (33.1%)	3 (3.7%)
수원시	2 (1.2%)	53 (21.2%)	9 (36.2%)	91 (36.5%)	12 (4.9%)
평택시	1 (2.4%)	28 (35.4%)	28 (34.6%)	21 (25.9%)	1 (2.0%)
안양시	0 (0.5%)	22 (19%)	41 (35%)	48 (41.2%)	5 (4.4%)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 동부권역의 시군구별 청년층 학력분포의 특징은 하남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대졸자 비중이 3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천시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가운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1.9%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반해 고졸자 비중은 35%를 넘어서고 있다.

<표 12> 5개 권역(동부) 청년층의 학력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동부)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하남시	0 (1.0%)	6 (24.2%)	10 (36.9%)	9 (35%)	0 (3.0%)
가평군	0 (3.4%)	2 (36.6%)	2 (27.8%)	2 (29.3%)	0 (2.8%)
양평군	0 (0.9%)	3 (26%)	5 (43.1%)	3 (26.7%)	0 (3.3%)
여주시	0 (3.3%)	4 (30.3%)	5 (37.0%)	4 (27.2%)	0 (2.3%)
이천시	0 (2.0%)	12 (36.3%)	13 (37.9%)	7 (21.9%)	0 (2.0%)
광주시	1 (1.9%)	17 (30.9%)	19 (35.7%)	15 (28.3%)	1 (3.3%)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 북서부권역에서는 고양시 청년층 학력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김포시 그리고 파주시가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서부권역 청년층의 전문대졸 비중이 38% 수준으로 다른 권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 5개 권역(북서부) 청년층의 학력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북서부)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파주시	1 (2.3%)	20 (30.6%)	26 (38.7%)	17 (26.3%)	1 (2.1%)
고양시	1 (0.7%)	38 (21.7%)	66 (37.6%)	65 (37.0%)	5 (3.0%)
김포시	0 (0.5%)	13 (24.8%)	21 (38.0%)	18 (33.2%)	1 (3.4%)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경기도 북동부권역은 다른 경기도 4개 권역에 비해 청년층 학력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를 제외한 다른 6개 시군에서의 대졸자 비중은 모두 20%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청년가운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비중은 20%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표 14〉 5개 권역(북동부) 청년층의 학력 분포

(단위: 천 명, %)

5개 권역(북동부)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양주시	0 (1.9%)	10 (33.1%)	12 (41.5%)	6 (21.8%)	0 (1.8%)
동두천시	0 (3.6%)	6 (40.9%)	5 (35.3%)	2 (19.5%)	0 (0.8%)
의정부시	1 (1.6%)	22 (29.2%)	31 (41.1%)	20 (26.6%)	1 (1.5%)
포천시	5 (2.3%)	7 (33.6%)	8 (38.5%)	5 (24.7%)	0 (1.0%)
연천군	0 (2.0%)	1 (30.2%)	2 (44.9%)	1 (21.4%)	0 (1.5%)
남양주시	1 (1.0%)	29 (28.8%)	40 (39.0%)	29 (28.8%)	2 (2.4%)
구리시	0 (1.5%)	8 (25.0%)	12 (36.5%)	11 (33.5%)	1 (3.6%)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나. 지역별 청년층의 경제활동 상태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7년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하였다. 경제활동상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역별 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인구총조사의 경우 경제활동 상태를 (1) 주로 일하였음, (2) 가사, 학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3)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4) 일하지 않았음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청년층의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고용률과 취업률을 산출하는데 다소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부지역별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준적 고용측정 방법을 따르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였다. 다만 인구주택총조사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제공하는 인구가중치와 지역별고용조사와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추정되는 다양한 고용지표 수준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로 공표되는 수치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군구별로 다양한 고용지표를 측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분석되는 것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4세 생산가능인구수는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이 가운데

취업이나 비취업으로 분류되는 경제활동인구수는 169만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6.6%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국인구 대상 경제활동참가율 65.4%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 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58만 명으로 고용률은 62.1% 그리고 실업자 수 11만5천명으로 실업률 6.8%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률도 전국대비 다소 높은 편이고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반적인 고용수준은 전국대비 양호한 편이다.

<표 15>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전국	9,953	6,509	65.4	6,037	60.7	471	7.2
경기도 전체	2,545	1,695	66.6	1,580	62.1	115	6.8
중부	721	485	67.3	446	61.9	39	8.1
남부	970	641	66.1	607	62.6	34	5.3
동부	184	131	71.4	122	66.3	9	7.1
북서부	352	230	65.3	216	61.5	13	5.8
북동부	316	206	65.3	187	59.4	18	9.1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재구성.

경기도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 혹은 고용지표는 5개 권역별로 다소 상이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동부권역으로 66.3%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에 북동부권역의 고용률은 60% 미만으로 추정되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북동부권역을 제외한 다른 4개 권역에서의 고용률은 모두 6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북동부권역으로 9.1%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었던 동부권역의 경우 실업률도 7.1%로 상당히 높게 추정되었다. 따라서 고용률이 높았던 권역이 실업률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성별로 경기도와 경기도 5개 권역별 고용지표를 살펴본 결과가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의 고용률 보다 높게 나타나며 실업률의 경우는 권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고용률의 경우는 전국평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도 내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역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가 약 20%

포인트(74.6%-57.7%)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동부권역의 경우 성별 고용률 격차는 8% 포인트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남성의 고용률이 다른 권역보다 현저히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경기도 권역의 경우 북동부권역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를 기준으로 여성의 실업률이 6.9%로 남성의 6.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에서는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표 16>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성별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남성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국	70.6	65.2	7.5	60.2	56.0	6.9
경기도 전체	72.9	68.1	6.6	60.2	56.0	6.9
중부	73.0	67.5	7.7	61.3	56.1	8.6
남부	73.3	69.4	5.3	58.8	55.7	5.3
동부	79.8	74.6	6.5	62.7	57.7	8.0
북서부	70.0	66.2	5.4	60.6	56.9	6.2
북동부	70.5	63.6	9.8	60.3	55.3	8.3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재구성.

청년층 가운데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가운데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로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무업’ 청년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니트족은 (1)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또는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기관에 통학하지 않고, (2) 취업자가 아니며, (3) 가사나 육아를 주로 하지 않으며, (4) 배우자가 없는 20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정의한다. 다만 최근 들어 ‘비구직니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구직니트’와 ‘비구직니트’를 구별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체 니트족 규모만을 추정하였다.

전국 20-34세 인구가운데 청년무업자(니트)의 규모는 138만 명으로 전체 인구 995만 명 대비 니트 비율이 13.9%로 추정되었고 경기도는 이 비율보다는 다소 적은 13.5%로 추정되었다. 니트 비율도 경기도 권역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니트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동부권역으로 15.5%, 그리고 북서부 14.4%, 중부 14.3%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니트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청년무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표 17>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20-34세 인구	청년무업자(니트)	니트 비율
전국	9,953	1,383	13.9
경기도 전체	2,545	344	13.5
중부	721	103	14.3
남부	970	118	12.2
동부	184	23	12.5
북서부	352	50	14.4
북동부	316	49	15.5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재구성.

성별로 니트 규모를 살펴보면 여성청년층에 비해 남성청년층에서 니트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전국 평균에서도 남성의 니트비율은 16.2%인데 반해서 여성의 니트 비율은 11.6%로 낮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전체의 경우도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내 지역가운데 북서부 지역에서 성별간 니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지역의 경우 남성의 니트 비율은 18.0%로 여성의 비율 11.0%보다 무려 7.0%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의 니트 비율로 인한 결과이며 다른 지역의 경우 대체적으로 5.0% 수준이다. 남부지역의 경우는 그 격차가 3.0% 포인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성별 니트 현황

(단위: 천 명, %)

	남성			여성		
	20-34세 인구	청년 니트	니트 비율	20-34세 인구	청년 니트	니트 비율
전국	5,017	813	16.2	4,936	570	11.6
경기도 전체	1,283	199	15.5	1,261	145	11.5
중부	368	58	16.0	353	44	12.6
남부	492	67	13.6	478	50	10.6
동부	94	13	14.4	90	9	10.6
북서부	173	31	18.0	179	19	11.0
북동부	156	28	18.2	159	207	13.0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재구성.

2 경기도 청년층 인구이동

가. 경기도 청년층의 통근 및 통학

경기도 20-34세 청년층의 권역별 통근 및 통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도 인구총조사 2% 샘플(인구가중치 사용) 자료를 분석하였다. 권역 기준은 앞서 구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7)에서 제공한 기준인 5개 권역이다.

청년층의 통학분포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표본가운데 통학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표본 231,874명(인구가중치 이용 추정)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통학지역은 인구총조사에서 광역시도별 수준으로만 제공하기 때문에 시군구별 통학분포를 구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밝혀둔다. <표 19>에서 현재 통학하는 광역시도별 수준에서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통학하는 비중은 거의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로 통학하는 비중이 33%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충남(8.5%), 인천(3.1%), 강원도와 충북이 각각 2%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0>에서는 현재 거주지를 5개 권역별로 나누고 각 지역에 속한 대학생들의 통학지역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지역으로의 통학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권역별로는 다소 상이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북서부와 북동부권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서울로의 통학비중은 다른 중부나 남부 그리고 동부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인접한 동부권역에서의 강원도 통학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9%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에서는 성별에 따른 통학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패턴은 비슷하나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서울 통학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에 인접한 충남지역 분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전북과 전남지역으로의 여성 통학비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물리적 거리가 통학을 결정하는데 고려 변수임을 예측하게 된다.

<표 19> 광역시도별 통학지역 분포(경기도 거주 4년제 대학생)

(단위: 명, %)

통학지역	통학자수	통학자 비율
서울	75,943	32.8
부산	122	0.1
대구	33	0.0
인천	7,109	3.1
광주	149	0.1
대전	1,670	0.7
울산	-	-
세종	953	0.4
경기	115,412	49.8
강원	4,950	2.1
충북	4,952	2.1
충남	19,830	8.5
전북	225	0.1
전남	64	0.0
경북	462	0.2
경남	-	-
제주	-	-
총합	231,874	100.0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표 20> 5개 권역별 통학자수 분포(경기도 거주 4년제 대학생)

(단위: 명)

통학지역	중부	남부	동부	북서부	북동부
서울(11)	20,599	20,639	4,014	16,361	14,330
부산(21)	52	-	-	70	-
대구(22)	33	-	-	-	-
인천(23)	4,512	790	-	1,507	300
광주(24)	-	149	-	-	-
대전(25)	548	581	123	362	56
울산(26)	-	-	-	-	-
세종(29)	393	261	50	130	119
경기(31)	33,442	57,011	4,589	8,979	11,391
강원(32)	147	1,081	939	890	1,893
충북(33)	879	2,407	842	424	400
충남(34)	6,211	11,154	154	1,837	474
전북(35)	102	57	13	66	-
전남(36)	-	-	-	64	-
경북(37)	235	214	13	-	-
경남(38)	-	-	-	-	-
제주(39)	-	-	-	-	-
총합	67,153	94,344	10,724	30,690	28,963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표 21> 성별 통학자수 분포(경기도 거주 20-34세 청년)

(단위: 명, %)

통학지역	남성		여성	
	통학자수	비율	통학자수	비율
서울(11)	37,397	30.3	38,546	35.5
부산(21)	122	0.1	-	-
대구(22)	33	0.0	-	-
인천(23)	4,015	3.3	3,094	2.9
광주(24)	77	0.1	72	0.1
대전(25)	1,181	1.0	489	0.5
울산(26)	-	-	-	-
세종(29)	732	0.6	221	0.2
경기(31)	64,009	51.9	51,403	47.3
강원(32)	2,807	2.3	2,143	2.0
충북(33)	3,220	2.6	1,732	1.6
충남(34)	9,199	7.5	10,631	9.8
전북(35)	225	0.2	-	-
전남(36)	64	0.1	-	-
경북(37)	164	0.1	298	0.3
경남(38)	-	-	-	-
제주(39)	-	-	-	-
총합	123,245	100.0	108,629	100.0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통근지역 분포의 경우 빈도수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충청과 나머지 지역을 하나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 내 거주하는 20-34세 청년층 가운데 통근하고 있는 전체 규모는 138만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72.7%인 약 100만명이 경기도 내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에서는 통근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도 내 통근비율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24.2% 그리고 인천(1.9%), 충청(0.9%), 기타(0.3%) 순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기지역 청년들은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통근지역 전체분포

(단위: 명, %)

통근지역	통근자수	통근자 비율
서울	334,351	24.2
경기	1,006,277	72.7
인천	25,547	1.9
충청	12,467	0.9
기타	4,930	0.3
총합	1,383,572	100.0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통근지역 분포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가 <표 23>에 제시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서울지역 통근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과 충청지역으로의 통근비중은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거주 여성층의 27.0%가 서울로 통근하는데 반해서 경기도 거주 남성층은 21.7%만이 서울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기도 내로 통근하는 비중은 남성의 경우 74.6%로 여성의 70.1%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로의 통근비중의 증가는 경기도 내 통근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23> 성별 통근지역 분포

(단위: 명, %)

통근지역	남성		여성	
	통근자수	통근비율	통근자수	통근비율
서울	161,485	21.7	172,866	27.0
경기	555,051	74.6	451,226	70.1
인천	15,398	2.1	10,149	1.6
충청	8,870	1.2	3,597	0.6
기타	3,150	0.4	1,780	0.3
총합	743,954	100.0	639,618	100.0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청년층 연령을 20-24세, 25-29세 그리고 30-34세로 구분하여 통근지역별 분포를 <표 24>에서 보여주고 있다. 20-24세 코호트의 경우 경기도 내로 통근하는 비중이 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25-29세는 71.2% 그리고 30-34세 경우는 72.5%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청년층에서 경기도 내 통근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력수준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20-24세 직장을 가진 경우, 특히 청년 남성의 학력수준은 고졸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서울로의 통근비중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 연령별 통근지역 분포

(단위: 명, %)

통근지역	20-24세	25-29세	30-34세
서울	49,615 (21.0%)	127,626 (25.7%)	157,110 (24.1%)
경기	180,109 (76.4%)	353,573 (71.2%)	472,595 (72.5%)
인천	3,149 (1.3%)	9,027 (1.8%)	13,371 (2.1%)
충청	2,034 (0.9%)	4,325 (0.9%)	6,108 (0.9%)
기타	885 (0.4%)	1,772 (0.4%)	2,273 (0.4%)
총합	235,792 (100.0%)	496,323 (100.0%)	651,457 (100.0%)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5개 권역별 거주 지역에 따른 통근지역 분포를 <표 25>에서 기술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통근하는 비중이 큰 권역순서로 남부권역(81.3%), 동부권역(79.0%) 그리고 중부, 북서부, 북동부권역에서의 경기도 내 통근비중은 모두 70% 수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의 통근비중은 정확히 경기도 내 통근비중의 증가와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내 통근비중이 가장 높았던 남부권역의 경우 서울로의 통근비중이 16.3% 수준인데 반해서 경기도 내 통근 비중이 가장 낮았던 북동부 거주 청년층의 서울로의 통근비중은 34.6%에 이르고 있다. 거주 권역별로 상이한 통근지역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북서부 권역과 북동부권역에서의 서울 통근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역과 서울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수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5〉 5개 권역별 통근자수 분포

(단위: 명, %)

통근지역	중부	남부	동부	북서부	북동부
서울	112,629 (27.8%)	86,465 (16.3%)	18,411 (19.2%)	57,403 (31.9%)	59,443 (34.6%)
경기	272,550 (67.1%)	430,929 (81.3%)	75,094 (79.0%)	117,069 (65.2%)	109,825 (63.9%)
인천	17,442 (4.3%)	2,718 (0.5%)	267 (0.3%)	4,238 (2.4%)	882 (0.5%)
충청	2,156 (0.5%)	8,524 (1.6%)	751 (0.8%)	532 (0.3%)	504 (0.3%)
기타	1,154 (0.3%)	1,427 (0.3%)	724 (0.8%)	381 (0.2%)	1,244 (0.7%)
총합	405,931 (100.0%)	530,063 (100.0%)	96,057 (100.0%)	179,623 (100.0%)	171,898 (100.0%)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학력수준별 통근지역 분포를 <표 26>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학력수준이 증가할수록 서울로의 통근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고졸미만 청년층의 경우 경기도 내 통근비중이 무려 90%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서 대졸자의 경우는 그 비중이 65.0%로 급감하고 있다. 반면에 고졸미만 청년층의 서울로의 통근비중은 4.8%인데 반해서 대졸자나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경기도 청년층의 30% 이상이 서울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교육수준별 통근자수 분포

(단위: 명, %)

통근지역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서울	746 (4.8%)	43,137 (12.8%)	96,750 (23.3%)	174,835 (31.4%)	18,883 (32.0%)
경기	14,651 (93.4%)	284,337 (84.6%)	307,786 (73.9%)	361,689 (65.0%)	37,814 (64.1%)
인천	132 (0.8%)	4,969 (1.5%)	7,379 (1.8%)	12,038 (2.2%)	1,029 (1.7%)
충청	105 (0.7%)	3,037 (0.9%)	3,054 (0.7%)	5,500 (1.0%)	771 (1.3%)
기타	57 (0.4%)	729 (0.2%)	1,234 (0.3%)	2,398 (0.4%)	512 (0.9%)
총합	15,691 (100.0%)	336,209 (100.0%)	416,203 (100.0%)	556,460 (100.0%)	59,009 (100.0%)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앞에서 통근지역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근자의 나이, 성별, 학력수준 그리고 거주 지역 분포를 살펴보았다. 이런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근로자의 통근지역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요인들이 통근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근자의 나이와 성별, 학력수준 그리고 근로자가 속한 산업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내 근로자가 서울로 통학하는 결정요인 분석결과를 <표 27>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종속변수가 서울로 통근하면 1을 부여하고 경기도 지역에 근무하면 0을 부여하는 프로빗 모델을 기초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에서 보고된 추정계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로 해석하면 된다.

실증분석 결과는 기초통계량 패턴과 매우 흡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학력이 증가할수록 서울로의 통근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역의 경우 북동부권역에서의 서울 통근확률이 다른 권역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업의 경우 제조업 대비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에서 서울로의 통근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보험 및 임대업과 출판·영상·방송 분야에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표 27> 서울지역으로의 통근 결정요인 분석

	추정계수	표준오차
나이	0.000	(0.001)
여성	0.046**	(0.006)
교육수준		
고졸	0.152**	(0.047)
전문대졸	0.287**	(0.045)
대졸	0.369**	(0.043)
대학원이상	0.476**	(0.051)
거주지역		
중부	-0.056**	(0.008)
남부	-0.179**	(0.007)
동부	-0.109**	(0.009)
북서부	-0.033**	(0.009)
산업변수		
광업 및 건설	0.202**	(0.021)
전기/운수/통신	0.159**	(0.021)

	추정계수	표준오차
도소매	0.210**	(0.012)
숙박 및 음식	0.137**	(0.016)
금융보험 및 임대	0.331**	(0.017)
전문과학 기술서비스	0.299**	(0.015)
교육서비스	0.035**	(0.013)
공공행정 서비스	-0.045**	(0.015)
보건 및 사회복지	0.078**	(0.014)
출판/영상/방송	0.388**	(0.015)
기타서비스	0.171**	(0.013)
R-sqs	0.1166	
표본	23,317	

주: 1) ()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s)이며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고려한 추정치임

2) 기준산업은 제조업이며 기준거주 지역은 북동부 지역임

3) 추정계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s)임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나. 경기도 대졸자 청년층의 인구이동

인구이동을 살펴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이전 거주지역에 대해서 시군구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기도 청년층이 경기도 내에서의 인구이동 혹은 노동이동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최신자료 2015년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졸자이동경로조사의 경우 2006년도 패널조사로 시작하였으나 2012년도 이후에는 횡단면 조사로 변경되었다. GOMS 자료는 2-3년제와 4년제 그리고 교육대학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해서 약 4% 수준인 매년 약 1만 8천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다. 2015년도 자료는 2014년도 2월 혹은 2013년도 8월에 졸업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조사시점은 2015년도 9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5년도 전체 응답자 18,056명 가운데 조사시점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층 2,718명을 최종분석 표본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현재 거주지역과 통근지역 그리고 청년들이 졸업한 학교의 주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청년층의 인구이동 패턴을 본 연구에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을 5개 권역으로 세분화 하고 대졸자 청년층이 통근하는 지역분포를 살펴본 결과가 <표 28>에 제시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현재 거주지역과 통근지역의 동일 분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권역별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남부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동일한 남부권역에 통근하는 비중이 68.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반면에 중부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동일 중부권역에 통근하는 비중은 47.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일한 권역에 통근하지 않는 청년층의 경우 경기도 내 다른 권역으로 통근하기 보다는 서울로의 통근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같은 권역 내 통근 비중이 가장 낮은 중부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서울로의 통근 비중이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북동부에 경우에도 같은 권역 통근비중이 51.9%인데 반해 서울로의 통근비중이 25.9%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청년층 가운데 대졸자 표본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청년층의 이동행태를 보여주기에는 다소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표 28> 5개 권역별 대졸자 청년층 통근지역분포

(단위: 명, %)

거주지역 통근지역	중부	남부	동부	북서부	북동부
중부	419(47.3)	50(4.3)	2(1.3)	19(4.7)	9(4.9)
남부	63(7.1)	751(68.9)	16(10.2)	17(4.2)	7(3.9)
동부	2(0.2)	13(1.1)	94(59.9)	2(0.5)	1(0.6)
북서부	10(1.1)	14(1.2)	3(1.9)	208(51.7)	2(1.)
북동부	8(0.9)	6(0.5)	0(0.0)	6(1.2)	94(51.9)
서울	268(30.3)	187(15.9)	23(14.7)	92(22.9)	47(25.9)
기타	116(13.1)	155(13.2)	19(12.1)	59(14.7)	21(11.6)
총합	886(100.0)	1,176(100.0)	157(100.0)	402(100.0)	181(100.0)

자료: 2015년도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재구성

청년층의 경우 정규교육(대학교)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지역간 이동이 상당히 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학교육을 받고 동일지역에서 직장을 구하는지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분포를 <표 29>에서 보여주고 있다. 현재 경기도 중부 권역에서 거주하는 청년층의 36.8%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비중이 22.1%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남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비중이 11.9% 순서였다. 남부권역에 거주하는 경기도 청년층의 대졸지역 분포도 중부권역과 매우 비슷하다. 동부권역의 경우는 충남지역보다는 강원도나 충북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적인 근접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북서부와 북동부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경기도 지역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비중은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9> 5개 권역 거주지역별 대학졸업 지역분포

(단위: 명, %)

거주지역 대학지역	중부	남부	동부	북서부	북동부
서울	196(22.1)	253(21.5)	31(19.8)	115(28.6)	61(33.7)
부산	29(3.3)	37(3.2)	5(3.2)	14(3.5)	3(1.7)
대구	7(0.8)	34(2.9)	4(2.6)	6(1.5)	3(1.7)
인천	47(5.3)	24(2.0)	5(3.2)	15(3.7)	2(1.1)
광주	16(1.8)	14(1.5)	7(4.5)	5(1.2)	2(1.1)
대전	13(1.5)	42(3.6)	3(1.9)	13(3.2)	5(2.8)
울산	6(0.7)	8(0.7)	0(0.0)	3(0.8)	1(0.6)
세종	17(1.9)	10(0.9)	1(0.6)	2(0.5)	2(1.1)
경기	326(36.8)	414(35.2)	60(38.2)	124(30.9)	47(25.9)
강원	22(2.5)	36(3.1)	11(7.1)	11(2.7)	13(7.2)
충북	34(3.8)	60(5.1)	12(7.6)	14(3.5)	6(3.3)
충남	105(11.9)	126(10.7)	5(3.2)	29(7.2)	14(7.7)
전북	20(2.3)	31(2.6)	2(1.3)	9(2.2)	7(3.9)
전남	10(1.1)	13(1.1)	0(0.0)	10(2.5)	5(2.8)
경북	27(3.1)	47(4.0)	7(4.5)	24(5.9)	5(2.8)
경남	8(0.9)	22(1.9)	4(2.5)	6(1.5)	4(2.1)
제주	3(0.3)	2(0.2)	0(0.0)	2(0.5)	1(0.6)
총합	886(100.0)	1,176(100.0)	157(100.0)	402(100.0)	181(100.0)

자료: 2015년도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재구성

현재 거주지역 분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청년들이 출생한 지역이 어디 인가이다. 다만 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기에 청년들이 졸업했던 고등학교 지역 정보를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였다. 경기도 거주 청년층의 고졸지역과 현재 거주지역간 분포를 <표 30>에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중부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같은 경기도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중이 6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중부권역에서 거주했던 청년층의 경우 외지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라도 그 이후 같은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다른 권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물론 이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주소 이전 없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규모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부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같은 경기도 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중은 49.5%로 다른 권역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동부와 북서부 그리고 북동부권역의 경우 경기도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 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특이한 점은 북동부 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이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비중이 19.4%로 다른 권역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0> 5개 권역 거주지역별 고등학교졸업 지역분포

(단위: 명, %)

고졸지역 \ 거주지역	중부	남부	동부	북서부	북동부
서울	96(10.9)	156(13.3)	16(10.2)	52(13.0)	35(19.4)
부산	32(3.6)	48(4.1)	6(3.8)	15(3.8)	4(2.2)
대구	25(2.8)	51(4.4)	2(1.3)	6(1.5)	3(1.7)
인천	36(4.1)	47(4.0)	8(5.1)	21(5.3)	8(4.4)
광주	15(1.7)	29(2.5)	3(1.9)	4(1.0)	1(0.6)
대전	6(0.7)	25(2.1)	4(2.6)	6(1.5)	1(0.6)
울산	12(1.4)	26(2.2)	0(0.0)	3(0.8)	2(1.1)
세종	0(0.0)	1(0.1)	0(0.0)	0(0.0)	0(0.0)
경기	562(63.5)	580(49.5)	84(53.5)	223(55.8)	100(55.6)
강원	12(1.4)	30(2.6)	6(3.8)	4(1.0)	1(0.6)
충북	13(1.5)	19(1.6)	3(1.9)	12(3.0)	4(2.2)
충남	16(1.8)	36(3.1)	5(3.2)	3(0.8)	3(1.7)
전북	13(1.5)	29(2.5)	4(2.6)	14(3.5)	5(2.8)
전남	10(1.1)	14(1.2)	3(1.9)	7(1.8)	0(0.0)
경북	12(1.4)	32(2.7)	6(3.8)	14(3.5)	4(2.2)
경남	21(2.4)	44(3.8)	6(3.8)	13(3.3)	7(3.9)
제주	4(0.5)	4(0.3)	1(0.6)	2(0.5)	2(1.1)
총합	886(100.0)	1,171(100.0)	157(100.0)	399(100.0)	180(100.0)

자료: 2015년도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재구성

다. 경기도 전입 청년층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전입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을 사용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1년 전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동 혹은 노동이동이 빈번한 청년층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전 거주 지역에 대한 시군구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존재함을 감안해야 된다.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2014년도에 경기도로 전입한 청년층 인구는 총 146,094명이며 이들이 전출한 지역별 분포가 아래 <표 31>에 제시되고 있다. 경기도 이외 지역 가운데 서울에서 전입된 인구수는 83,56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인천(9.3%), 강원(5.3%), 충남(5.2%) 순서였다.

경기도로의 전입이 가장 많았던 이 4개 지역(서울, 인천, 강원, 충남) 청년층의 학력분포를 <표 32>에서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전출한 청년층의 경우 대졸자 비중이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사이상 학력자도 7%에 이르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전출한 청년의 경우 대졸자의 비중은 서울보다 낮은 34%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문대졸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전출한 청년층의 학력분포도 인천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석사이상 학력자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는 강원도 지역과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경기도로 최근 전입한 청년층 가운데 서울에서 전입한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에서 전입한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 전입 청년층 전출지별 분포

(단위: 명, %)

전출지역	전출자수	전출자 비율
서울(11)	83,566	57.2
부산(21)	3,334	2.3
대구(22)	2,959	2.0
인천(23)	13,507	9.3
광주(24)	2,962	2.0
대전(25)	4,332	3.0
울산(26)	757	0.5
세종(29)	263	0.2
강원(32)	7,736	5.3
충북(33)	3,771	2.6
충남(34)	7,656	5.2
전북(35)	3,726	2.5
전남(36)	2,690	1.8
경북(37)	3,386	2.3
경남(38)	4,225	2.9
제주(39)	1,224	0.8
총합	146,094	100.0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표 32> 전출지역별 교육수준 비중 분포(%)

(단위: 명, %)

전출지역	고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합계(%)
서울	0.8	18.2	29.9	43.9	7.2	100.0
인천	1.9	23.7	33.5	34.2	6.7	100.0
강원	0.9	21.9	32.5	41.7	2.9	100.0
충남	0.0	23.8	32.2	41.7	2.3	100.0

자료: 2015년도 인구주택총조사(2% 표본) 재구성

3 소결

본 장에서는 경기도 청년층 인구특성과 경제활동상태 그리고 지역이동에 대한 다양한 현황을 실증 분석하였다. 경기도는 31개의 다양한 시군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지역위치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권역별 특성 파악을 위해 2017년도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제공한 5개 권역 기준에 의거해서 지역별 노동시장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2015년도 인구총조사 2% 표본(시군구 인구가중치 부여)을 활용하여 경기도 내 5개 권역별 연령, 성 그리고 학력별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20-34세 청년층을 5년 단위 코호트로 구분하여 각각 20-24세, 25-29세 그리고 30-34세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인구특성 통계량을 추정하였다. 2015년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코호트 구성비율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권역구분에 상관없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권역별로 다소의 차이가 발견되기는 한다. 예를 들어, 동부권역과 남부권역의 경우 30-34세 비중이 다른 권역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비에 있어서는 경기도 북서부권역의 경우 여성비중이 52.3%로 다른 경기도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경기도 각 권역 내 시군구별로 청년층의 연령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시군구 단위에서도 독립적인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층의 학력수준을 고졸미만, 고졸, 전문대졸, 대졸 그리고 대학원 이상의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물론 청년층 연령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고졸이상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고졸 비중은 25.6%, 전문대졸 36.6% 그리고 대졸자 33.0%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과 거의 흡사한 결과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서울 청년층의 학력수준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며 인접한 인천보다는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5개 권역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구규모가 가장 높은 남부권역이 다른 권역들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대졸자의 비중이 35.5%로 경기도 평균 33.0%를 상회하고 있으며 다른 권역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이상 청년층 비중도 4.6%로 다른 권역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부권역과 북서부 권역은 경기도 평균 학력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반면에 동부와 북동부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다른 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각 권역별

내 시군구간 청년층의 학력분포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과 연관되어 분석되어야 할 부분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4세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7년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분석하였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34세 생산가능인구수는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었고 이 가운데 취업이나 비취업으로 분류되는 경제활동인구수는 169만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66.6%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국인구 대상 경제활동참가율 65.4%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 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58만 명으로 고용률은 62.1% 그리고 실업자 수 11만5천명으로 실업률 6.8%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률도 전국대비 다소 높은 편이고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서 전반적인 고용수준은 전국대비 양호한 편이다. 경기도 청년층 경제활동 상태 혹은 고용지표는 5개 권역별로 다소 상이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동부권역으로 66.3%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에 북동부권역의 고용률은 60% 미만으로 추정되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북동부를 제외한 다른 4개 권역에서의 고용률은 모두 6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북동부권역으로 9.1%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었던 동부권역의 경우 실업률도 7.1%로 상당히 높게 추정되었다. 고용률이 높았던 지역이 실업률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남성의 고용률이 여성의 고용률 보다 높게 나타나며 실업률의 경우는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남성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고용률의 경우는 전국 평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기도 내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역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가 약 20% 포인트로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동부권역의 경우 성별 고용률 격차는 8% 포인트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남성의 고용률이 다른 권역보다 현저히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경기도 지역의 경우 북동부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를 기준으로 여성의 실업률이 6.9%로 남성의 6.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에서는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룬다.

2017년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전국 20-34세 인구가운데 청년무업자(니트)의 규모는 138만 명으로 전체 인구 995만 명 대비 니트 비율이 13.9%로 추정되었고 경기도는 이 비율보다는 다소 낮은 13.5%로 추정되었다. 니트비율도 경기도 권역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니트비율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동부권역으로 15.5% 그리고 북서부 14.4%, 중부 14.3%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니트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청년무업자가 비경제 활동인구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20-34세 청년층의 통근 및 통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도 인구총조사 2% 샘플(인구가중치 사용) 자료를 분석하였다. 경기도 내에서 통학하는 비중이 거의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로 통학하는 비중이 33%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충남(8.5%), 인천(3.1%), 강원도와 충북이 각각 2%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북서부와 북동부권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서울로의 통학비중은 다른 중부나 남부 그리고 동부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와 인접한 동부권역에서의 강원도 통학비중은 다른 권역보다 높은 9%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통학지역별 분포에 의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서울 통학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에 인접한 충남지역 분포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전북과 전남지역으로의 여성 통학비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물리적 거리가 통학을 결정하는데 고려 변수임을 예측하게 된다.

통근지역 분포의 경우 경기도 내 거주하는 20-34세 청년층 가운데 통근하고 있는 전체 규모는 138만 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72.7%인 약 100만 명이 경기도 내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통근비율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24.2% 그리고 인천(1.9%), 충청(0.9%), 기타(0.3%) 순서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기지역 청년들은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서울을 포함하는 수도권지역에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서 통근하는 비중이 큰 권역순서로 남부권역(81.3%), 동부권역(79.0%) 그리고 중부, 북서부, 북동부권역에서의 경기도 내 통근비중은 모두 70% 수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의 통근비중은 정확히 경기도 내 통근비중의 증가와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내 통근비중이 가장 높았던 남부권역의 경우 서울로의 통근비중이 16.3% 수준인데 반해서 경기도 내 통근 비중이 가장 낮았던 북동부 거주 청년층의 서울로의 통근비중은 34.6%에 이르고 있다. 거주 지역별로 상이한 통근지역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북서부권역과 북동부권역에서의 서울 통근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거주지역과 서울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수요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력수준이 증가할수록 서울로의 통근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고졸미만 청년층의 경우 경기도 내 통근비중이 무려 90%를 넘어서고 있는데 반해서 대졸자의 경우는 그 비중이 65.0%로 급감하고 있다. 반면에 고졸미만 청년층의 서울로의 통근비중은 4.8%인데 반해서 대졸자나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경기도 청년층의 30% 이상이 서울로 통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그리고 학력이 증가할수록 서울로의 통근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역의 경우 북동부권역에서의 서울 통근확률이 다른 권역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업의 경우 제조업 대비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업에서 서울로의 통근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금융보험 및 임대업과 출판·영상·방송 분야에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이외 지역 가운데 서울에서 전입된 인구수는 83,56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인천(9.3%), 강원(5.3%), 충남(5.2%) 순서였다.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경기도로 전입한 청년층 가운데 서울에서 전출한 청년층의 경우 대졸자 비중이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사이상 학력자도 7%에 이르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전출한 청년의 경우 대졸자의 비중은 서울보다 낮은 34% 수준을 보여 주고 있으며 전문대졸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전출한 청년층의 학력 분포도 인천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석사이상 학력자는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는 강원도 지역과 거의 흡사하다. 따라서 경기도로 최근 전입한 청년층 가운데 서울에서 전입한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지역에서 전입한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31개의 다양한 시군이 존재하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적 위치를 고려한 5개 권역별로 매우 상이한 청년층 인구분포와 지역이동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같은 권역 안에서도 시군구별로 상이한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이런 독립적인 지역특성과 지역노동시장을 반영한 노동정책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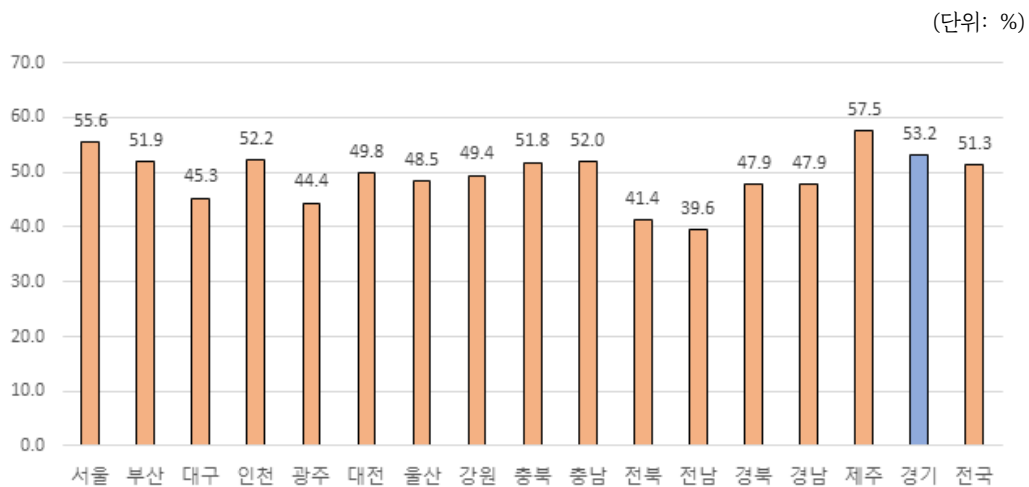
III. 경기도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

1 경기도 청년층의 고용구조

본 절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 인적특성별 고용구조

2017년 상반기 경기도 청년층(15~34세)의 고용률은 53.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청년의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57.5%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는 서울(55.6%)에 이어 고용률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취업자 규모는 176만2천명인데, 이들 중 7.6%(13만3천명)은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취업자의 3.1%(5만5천명)에 달하는 휴학생들의 대부분도 아르바이트성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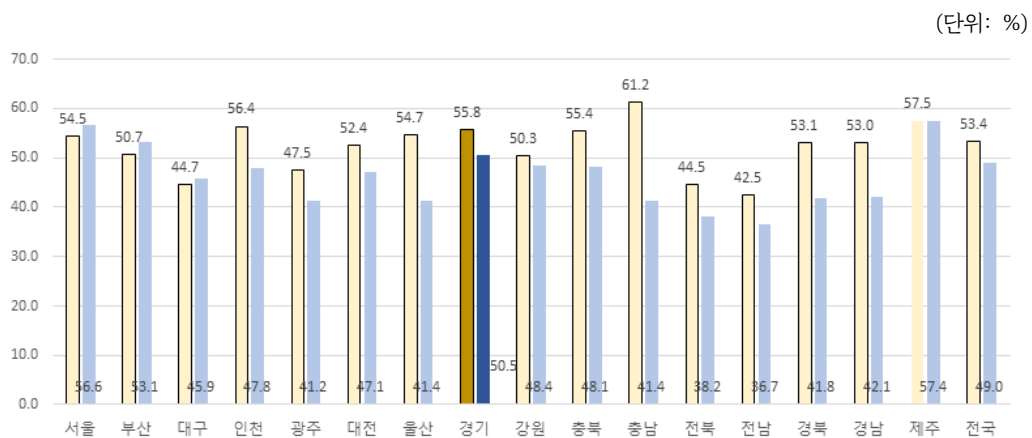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 청년층(15~34세)의 지역별 고용률

1) 성별 분포

성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경기도 청년 남성의 고용률은 55.8%, 여성의 고용률은 50.5%이다.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남성의 고용률은 충남, 제주, 인천 다음으로 네 번째를, 그리고 여성 고용률도 제주, 서울, 부산의 뒤를 따라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 규모는 남성이 93만4천명으로 청년 취업자의 53.0%를 점유하고 있고, 여성은 82만8천명으로 47.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2017. 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2] 청년층(15~34세)의 성별, 지역별 고용률

2) 연령 및 학력별 분포

연령대별로 경기도 청년의 고용률 변화를 보면, <표 33>과 같이 15~19세의 11.2%에서 출발하여 30~34세에는 74.3%까지 높아지고 있다. 15~29세 사이에는 경기도의 고용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지만, 30~34세에는 전국의 평균 고용률(74.5%)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과 비교하면 25~29세에서는 경기도 청년의 고용률이 서울을 앞서고 있지만 30~34세에 들어서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부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결과는 30세 이후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33> 청년층(15~34세)의 연령별, 학력별, 지역별 고용률

(단위: %)

지역	연령				학력			
	15~19	20~24	25~29	30~34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경기	11.2	48.9	71.2	74.3	6.8	47.1	72.9	74.7
서울	10.4	44.2	68.6	77.7	6.3	42.7	74.8	76.2
부산	11.4	43.1	67.4	77.9	7.4	42.1	78.0	74.3
대구	7.2	35.2	64.1	73.9	3.0	34.9	74.5	67.7
인천	9.5	49.1	70.0	72.1	8.8	47.4	73.5	72.8
광주	5.7	39.1	62.1	70.3	4.4	38.3	71.9	64.8
대전	5.0	39.2	72.6	72.9	3.0	39.2	74.9	73.0
울산	5.7	45.1	69.5	72.7	4.9	44.8	72.8	70.4
강원	9.5	48.7	69.6	75.1	7.0	47.4	78.0	72.6
충북	6.7	52.7	71.5	72.7	8.7	48.7	78.0	73.2
충남	8.6	49.1	65.1	75.9	7.1	50.2	75.0	72.6
전북	3.9	39.6	62.0	68.0	7.2	34.1	71.1	67.6
전남	7.5	35.0	71.8	62.7	3.9	38.0	69.3	65.4
경북	8.2	43.8	64.3	73.8	8.9	45.3	72.5	67.8
경남	6.3	46.1	70.2	70.9	5.4	45.3	72.0	69.2
제주	8.1	69.1	78.3	80.3	7.3	60.4	85.0	79.3
전국	9.0	45.4	68.8	74.5	6.4	44.3	74.0	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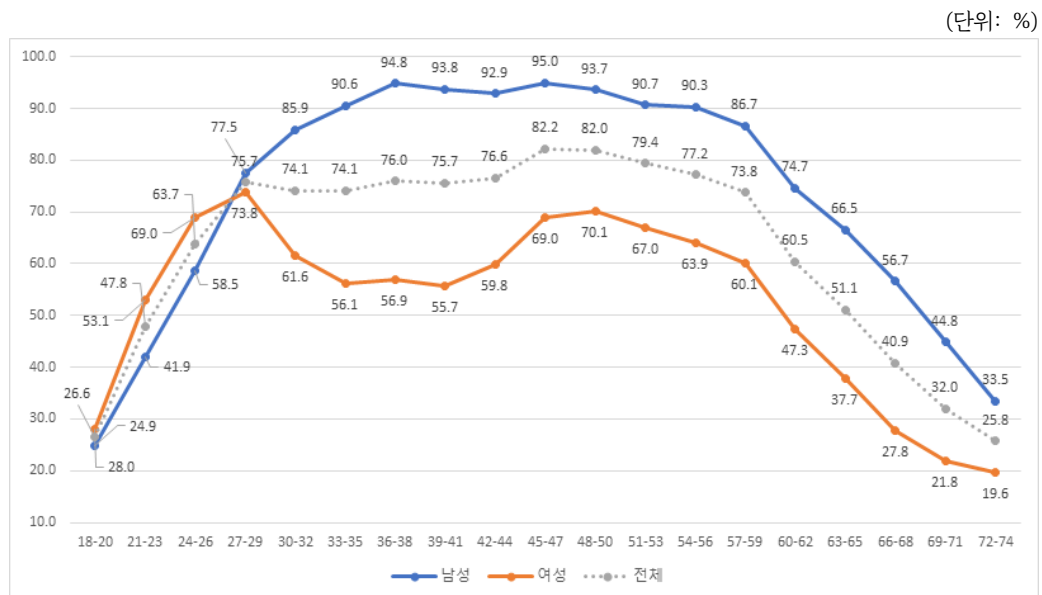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 역시 여성의 경력단절이 상당한 수준으로 27~29세에 73.8%인 여성 고용률은 30세를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33~35세에는 56.1%까지 하락하고 있다. 이후 39~41세까지 회복하다가 42~44세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48~50세에는 고용률이 70.1%까지 상승하였다.

유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경기도의 경우 다른 타 지역과 비교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4]와 같이 경기도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서울 및 여타 도 지역과 비교하면, 경기도 여성의 고용률 하락이 30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록 서울은 여성의 고용률이 27~29세의 77.4%에서

39~41세의 57.1%까지 떨어지지만 12년 동안에 걸쳐 하락하는 것에 비해, 경기도는 27~29세의 정점에서 불과 6년 만에 56.1%로 여성 고용률이 추락하고 있어 대상별 맞춤형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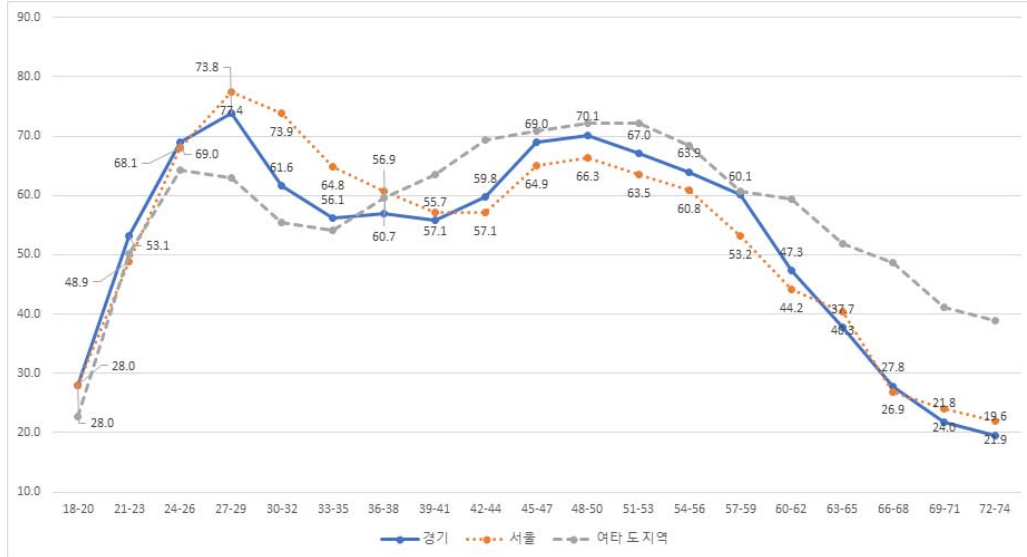
남성의 고용률과 비교하면 30세 이전에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는 남성보다 여성의 고용률이 앞서고 있지만 30세를 기점으로 남녀 고용률의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서울, 인천 등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같이 발견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고용률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34> 참조).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3] 경기도의 성별·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4] 경기, 서울 및 여타 도 지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

이와 같은 분석결과, 경기도에서는 청년여성의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개발이 필요하다.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경력 관리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여성 취업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복공동체와 유사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여성’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이와 같은 정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이 고임금, 정규직의 안정되고 미래가 있는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표 34> 청년층(15~34세)의 성, 연령, 학력 및 지역별 고용률

(단위: %)

구분			지역				
			경기	서울	인천	여타 광역시	여타 도 지역
연령별	남성	15~19세	10.6	10.5	10.1	5.8	7.5
		20~24세	43.9	34.4	44.3	33.9	41.9
		25~29세	70.4	63.1	71.6	63.9	71.3
		30~34세	87.3	84.7	87.0	86.6	87.1
		청년 전체	55.8	54.5	56.4	49.5	52.7
	여성	15~19세	11.8	10.2	8.9	9.6	6.9
		20~24세	53.2	51.2	53.2	45.6	49.9
		25~29세	72.0	73.8	67.4	70.7	63.3
		30~34세	60.1	70.8	55.9	61.1	54.8
		청년 전체	50.5	56.6	47.8	47.2	42.9
학력별	남성	중졸 이하	8.7	7.3	11.0	4.3	6.9
		고졸	50.5	43.2	53.1	41.8	51.5
		전문대졸	80.7	77.2	82.1	82.2	82.7
		대졸 이상	79.8	77.9	79.4	73.6	76.1
	여성	중졸 이하	4.7	5.3	6.2	5.3	6.7
		고졸	42.7	42.1	40.3	36.7	37.3
		전문대졸	67.4	73.1	67.9	68.9	66.3
		대졸 이상	70.3	74.9	66.3	68.3	64.4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학력별로 고용률을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 <표 33>에서 경기도 중졸 이하 청년의 고용률은 6.8%에 불과하지만 고졸은 47.1%, 전문대졸은 72.9%, 그리고 대졸 이상은 74.7%이다. 이처럼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의 고용률 격차는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광역 시도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졸이하 저학력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 원인으로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고졸로 간주되는 학력의 분류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 학력의 분류기준이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최종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청년으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여 학력별 고용률을 계산하여도 여전히 고졸과 전문대졸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고용률 격차가 발견된다.²⁾

2) 최종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경우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을 경우 중졸 이하의 경기도 청년 고용률은 56.8%, 고졸 65.5%, 전문대졸 72.9%, 대졸 이상 76.1%로 나타남

저학력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 또 다른 원인으로 남성의 경우 군 입대 때문에 취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표 34>에서 보면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 여성도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낮아 이와 같은 예측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 또한 저학력 청년의 경우 소득이 높고, 안정적 직장에 취업하기 어려워 아르바이트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자리는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고, 그 결과 저학력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짧으므로 결국 저학력 청년의 고용률은 낮은 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고졸 이하 저학력 청년의 고용안정과 고용률 제고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강화, 캐리어 잡(career job)으로의 진출 지원 등의 정책적 수단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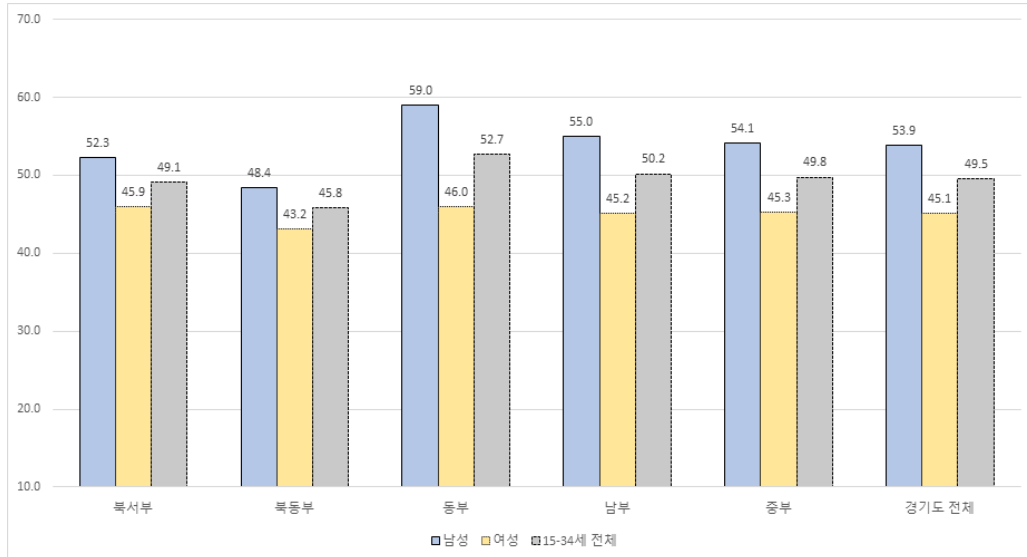
3) 5개 권역별 고용률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산업과 SOC, 그리고 소득의 격차가 상당하며, 대도시와 농촌이 함께 있는 특성을 보이는 지역이 있으며, 이와 같은 특성은 지역의 고용률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별 상이한 고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경기도를 5개 권역³⁾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청년고용률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이 권역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고용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상반기 동부권역과 남부권역의 청년 고용률이 각각 52.7%와 50.2%로 높은 반면, 북동부권역은 45.8%에 불과하여 권역에 따른 청년고용률의 격차가 상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북동부권역은 남성 48.4%, 여성 43.2%로 남녀 모두 가장 낮은 청년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3) 5개 권역은 북서부(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북동부(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동부(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가평군, 이천시, 여주시), 남부(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안성시, 성남시), 중부(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부천시)임(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7).

(단위: %)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5]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의 고용률

북동부권역은 특히 25~29세의 고용률이 다른 권역에 비해 낮다(<표 35> 참조). 남녀 전체적으로 북동부권역의 25~29세 고용률은 65.9%로 다음 순위인 중부권역의 69.2%보다 3.3%포인트나 낮다. 남성은 30~34세에도 고용률이 82.8%로 5개 권역 중 가장 낮으며, 여성은 25~29세에 62.8%의 고용률로 5개 권역 중 가장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뚜렷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대졸 청년의 경우 남부권역과 중부권역이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5〉 경기도 청년층의 성, 연령, 학력 및 권역별 고용률

(단위: %)

구분			5개 권역				
			북서부	북동부	동부	남부	중부
연령별	남성	15~19세	9.4	4.5	6.1	6.5	7.9
		20~24세	31.4	34.0	48.2	35.6	37.2
		25~29세	72.1	68.8	74.6	72.5	69.5
		30~34세	86.5	82.8	91.5	88.8	88.0
		청년 전체	52.3	48.4	59.0	55.0	54.1
	여성	15~19세	9.1	5.6	5.9	8.8	7.4
		20~24세	52.6	45.9	50.2	46.2	42.9
		25~29세	68.0	62.8	66.9	69.4	68.8
		30~34세	50.7	57.9	56.0	51.9	56.6
		청년 전체	45.9	43.2	46.0	45.2	45.3
	남녀 전체	15~19세	9.3	5.0	6.0	7.6	7.7
		20~24세	43.1	40.5	49.3	41.4	40.3
		25~29세	70.1	65.9	71.0	71.1	69.2
		30~34세	68.8	70.5	74.5	71.1	73.3
		청년 전체	49.1	45.8	52.7	50.2	49.8
학력별	남성	중졸 이하	6.9	3.8	10.0	7.7	7.9
		고졸	45.5	45.5	59.4	44.3	46.8
		전문대졸	79.5	78.9	88.4	82.1	81.1
		대졸 이상	79.1	76.8	76.6	82.2	80.7
	여성	중졸 이하	4.1	3.0	5.5	4.2	3.0
		고졸	36.6	33.2	41.6	35.9	33.2
		전문대졸	63.9	68.4	63.9	62.2	63.7
		대졸 이상	65.6	65.3	64.1	65.2	68.1
	남녀 전체	중졸 이하	5.5	3.4	7.8	6.0	5.6
		고졸	41.6	40.1	51.9	40.5	41.0
		전문대졸	71.0	72.2	74.4	70.9	70.8
		대졸 이상	71.3	70.7	70.0	73.6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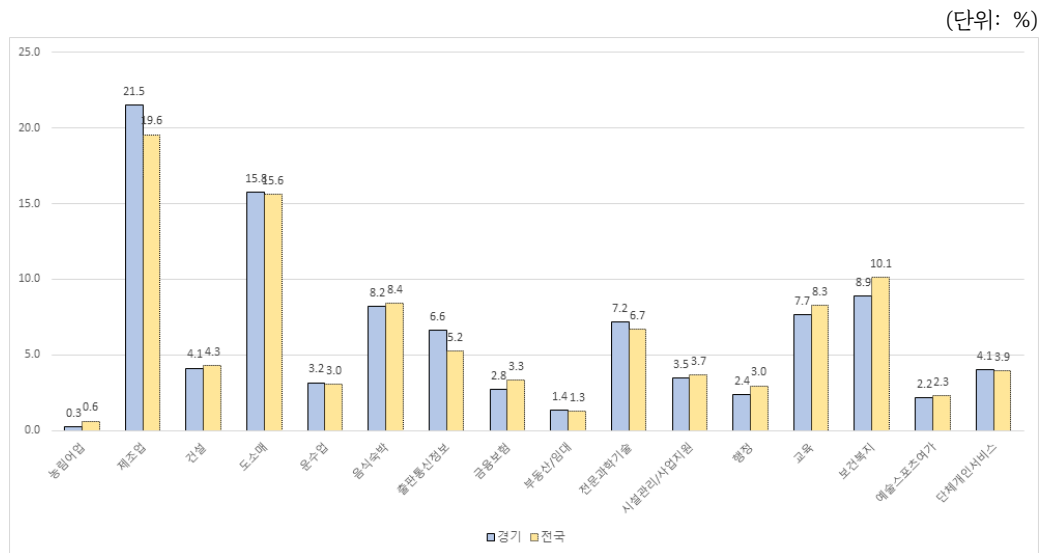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경기도의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역적으로는 북동부권역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북동부권역의 청년층 규모가 27만7천명으로 경기도 전체 청년층의 12.6%에 지나지 않지만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북동부권역의 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은 의미를 지닐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 일자리의 특성과 고용구조⁴⁾

1) 산업

[그림 6]과 같이 경기도 청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는 전국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와 유사하다. 경기도 청년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이것은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현황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들이 취업한 산업을 보면 제조업이 2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도소매(15.8%)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보건복지(8.9%), 음식숙박(8.2%), 교육서비스(7.7%), 전문과학기술(7.2%) 등에 청년의 7% 이상이 취업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6] 청년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경기도 및 전국

남녀 성별로 보면 <표 36>과 같이 남성은 제조업과 건설업에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은 교육서비스와 보건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들의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용돈이나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음. 이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청년일자리 문제의 실상이 왜곡될 위험이 있음. 이에 여기에서는 분석대상을 학교를 졸업, 중퇴 또는 무학인 청년들로 제한함

〈표 36〉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성별 산업분포

(단위: %, 천명)

산업	전체	남성	여성
농업, 임업 및 어업	0.24	0.38	0.07
광업	0.00	0.00	0.00
제조업	19.82	25.70	13.1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13	0.25	0.00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7	0.21	0.12
건설업	3.87	6.18	1.27
도매 및 소매업	16.07	15.90	16.26
운수업	3.01	3.81	2.10
숙박 및 음식점업	10.53	10.81	10.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28	7.17	5.28
금융 및 보험업	2.50	2.33	2.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6	1.31	1.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3	6.69	6.5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46	3.88	2.9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38	2.63	2.11
교육서비스업	8.60	4.64	13.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33	2.04	15.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78	2.69	2.8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90	3.34	4.54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0.01	0.00	0.02
국제 및 외국기관	0.03	0.04	0.03
소계	100.0 (1,762)	100.0 (934)	100.0 (828)

주: 재학, 휴학 중 청년도 포함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37>과 같이 나이가 들수록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진출한 청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나이가 들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의 저학력 청년들이 제조업,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에 상대적으로 많이 취업하고 있는 반면, 고학력 청년들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에 많이 취업하고 있다. 특히 전문대졸 청년의 13.1%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연령 및 학력별 산업분포

(단위: %, 천명)

산업	연령				학력			
	15~19	20~24	25~29	30~34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농림어업	0.00	0.14	0.19	0.35	0.49	0.31	0.45	0.05
광업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8.95	15.29	20.25	23.18	38.99	21.62	19.97	17.4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0.00	0.04	0.11	0.21	0.00	0.09	0.02	0.23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0.10	0.21	0.09	0.21	0.00	0.17	0.19	0.16
건설업	0.64	2.75	3.93	4.82	3.15	4.82	3.89	3.15
도소매	18.64	16.74	16.12	15.35	8.76	20.39	15.74	13.18
운수업	2.45	2.34	3.08	3.37	4.46	3.47	2.96	2.60
숙박 및 음식점업	42.27	17.50	7.82	5.31	27.79	17.72	8.89	4.86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	2.04	3.67	8.22	6.47	1.50	3.00	5.53	9.49
금융 및 보험업	0.31	1.35	2.67	3.23	0.49	1.26	2.61	3.53
부동산업 및 임대업	0.13	1.01	1.07	1.70	0.29	1.14	1.69	1.1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9	4.33	6.96	8.19	2.84	2.17	6.53	10.3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2.70	4.02	3.41	3.28	2.49	4.63	4.15	2.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74	1.32	2.23	3.30	0.64	1.95	0.92	3.56
교육서비스업	5.49	9.90	8.55	8.34	0.69	4.37	5.39	13.9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23	10.81	8.92	7.24	1.46	4.62	13.13	9.11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7.93	4.36	2.48	1.57	1.01	3.88	1.73	2.53
협회, 단체, 수리, 개인서비스	3.89	4.17	3.80	3.85	4.97	4.40	6.12	2.31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활동	0.00	0.0	0.02	0.00	0.00	0.00	0.04	0.00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3	0.06	0.01	0.00	0.00	0.03	0.06
소계	100.0 (85)	100.0 (369)	100.0 (614)	100.0 (693)	100.0 (36)	100.0 (591)	100.0 (386)	100.0 (749)

주: 재학, 휴학 중 청년도 포함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표 38>과 같이 서울은 경기도에 비해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7.1%)은 작은 대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이 12.2%로 경기도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와 출판, 영상, 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의 청년 취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8> 지역과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분포

(단위: %, 천명)

산업	지역				
	경기도	서울	인천	여타 광역시	여타 도 지역
농림어업	0.24	0.00	0.08	0.12	1.94
광업	0.00	0.00	0.00	0.00	0.05
제조업	19.82	7.06	22.74	19.33	24.6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0.13	0.09	0.42	0.39	0.77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0.17	0.12	0.47	0.26	0.34
건설업	3.87	3.46	4.11	4.50	4.31
도소매	16.07	19.43	16.64	15.86	12.17
운수업	3.01	2.30	4.34	3.06	2.73
숙박 및 음식점업	10.53	10.88	10.62	11.31	10.49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	6.28	8.33	4.90	2.97	2.29
금융 및 보험업	2.50	4.26	2.95	3.09	2.7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6	1.34	1.40	0.91	1.2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63	12.23	4.71	4.48	2.5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3.46	3.95	3.98	3.52	3.4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38	2.26	2.34	2.48	4.47
교육서비스업	8.60	9.32	5.81	9.96	8.8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8.33	8.19	7.70	11.63	10.62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2.78	3.11	2.38	2.25	2.5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	3.90	3.65	4.38	3.86	3.8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활동	0.01	0.00	0.00	0.00	0.04
국제 및 외국기관	0.03	0.02	0.02	0.02	0.02
소계	100.0 (1,762)	100.0 (1,526)	100.0 (395)	100.0 (1,230)	100.0 (1,708)

주: 재학, 휴학 중 청년도 포함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권역별로 살펴보면 남부권역과 중부권역이 제조업이 발전하여 청년취업자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 낙후된 북동부권역은 제조업의 비중이 작은 반면, 도소매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중이 5개 권역 중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부권역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5개 권역 중 가장 높다.

〈표 39〉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5개 권역별 산업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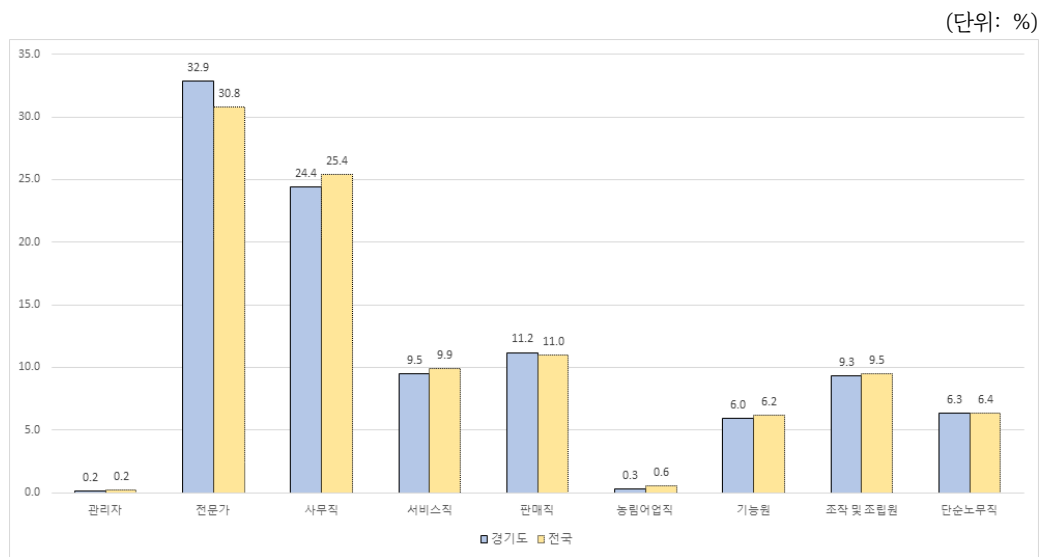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산업	5개 권역				
	북서부	북동부	동부	남부	중부
농림어업	0.14	0.93	1.03	0.30	0.03
광업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	18.12	14.61	17.62	22.90	23.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0.36	0.21	0.00	0.10	0.17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0.09	0.24	0.46	0.12	0.23
건설업	4.22	4.72	6.24	4.30	3.51
도소매	17.23	20.67	19.61	12.26	14.25
운수업	3.59	2.59	5.82	2.74	3.14
숙박 및 음식점업	9.46	8.89	10.49	8.38	9.43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	7.00	5.28	3.65	6.41	6.55
금융 및 보험업	3.54	2.40	2.66	2.50	3.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7	1.39	0.56	1.67	1.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37	5.08	6.03	7.56	8.13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3.26	3.09	2.80	3.81	3.5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99	2.45	2.43	2.38	2.44
교육서비스업	8.55	8.80	6.62	8.75	7.1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7.64	12.65	7.62	8.32	7.84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2.73	2.35	2.85	3.26	2.6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	4.36	3.39	3.52	4.14	2.87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활동	0.00	0.04	0.00	0.00	0.00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23	0.00	0.11	0.00
소계	100.0 (227)	100.0 (194)	100.0 (126)	100.0 (640)	100.0 (464)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2) 직업

경기도 취업 청년들의 직업을 보면 전문직이 3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무직(24.4%), 판매직(11.2%)의 순서이다. 전국과 비교하면 전문직의 경우 전국평균(30.8%)보다 다소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 전반적으로 경기도 청년들의 직업분포는 전국평균과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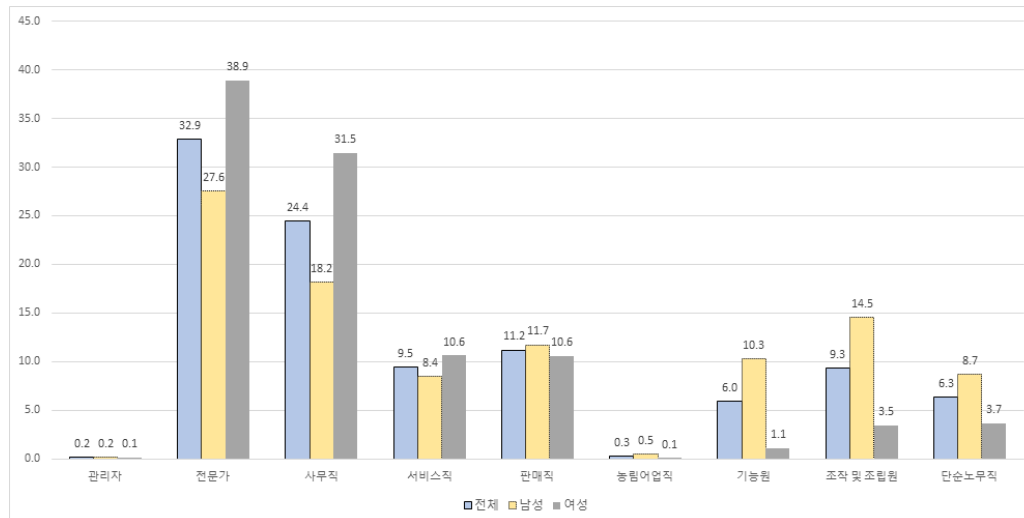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7] 청년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 경기도 및 전국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전문가가 각기 27.6%와 38.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무직으로 각각 18.2%와 31.5%를 점유하고 있다. 판매직도 상당한 비중을 점유하여 남성의 11.7%와 여성의 10.6%가 판매직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남성의 경우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10.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4.5%로 전체 청년취업자의 1/4을 차지하는데 반해 여성은 그 비중이 1.1%와 3.5%에 불과하다. 단순노무직도 남성의 8.7%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지만, 여성은 그 비중이 3.7%로 낮다.

(단위: %)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8] 경기도 청년 취업자의 성별, 직업별 분포

경기도 청년들의 직업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직업 중분류 수준에서 직업분포를 살펴본 결과(<표 40> 참조), 전체적으로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청년취업자의 19.9%가 종사하여 비중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에 일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청년남성의 15.4%와 청년여성의 24.8%가 여기에 속한다. 대분류로는 남녀모두 전문가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전문가 중에서도 정보통신전문가 및 기술직(7.1%)과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의 비중(8.3%)이 높다. 여성은 전문가 중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의 비중이 높아 15.2%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전문가도 9.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전문직 일자리라도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의 월평균 임금이 385.6만원인 반면 여성이 몰려있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230.3만원에 불과하다. 남녀가 취업한 직업의 구성을 보면, 아직도 많은 직업군, 특히 관리직과 같이 좋은 일자리에의 여성 진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좋은)일자리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취업과 관련된 직접, 간접적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여성 일자리의 질과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40〉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 중분류별 분포

(단위: %, 천명)

대분류	직업	전체	남성	여성
	중분류			
1.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고위직	0.00	0.00	0.00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0.00	0.00	0.00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0.06	0.02	0.11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0.04	0.07	0.01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0.05	0.08	0.02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	0.54	0.37	0.73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4.61	7.07	1.84
	23.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5.52	8.26	2.41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8.43	2.49	15.15
	25.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5.59	1.87	9.79
	26. 법률 및 행정전문직	0.03	0.05	0.02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48	3.27	1.58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5.69	4.18	7.41
3. 사무 종사자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9.85	15.44	24.84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1.74	1.57	1.94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0.37	0.32	0.44
	39.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2.46	0.88	4.25
4. 서비스 종사자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1.14	1.73	0.47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1.96	0.33	3.81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0.98	0.98	0.99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37	5.38	5.36
5. 판매 종사자	51. 영업직	2.73	4.52	0.71
	52. 매장 판매직	6.27	5.24	7.45
	53.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2.19	1.97	2.45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0.26	0.45	0.05
	62. 임업 숙련직	0.00	0.00	0.00
	64. 어업 숙련직	0.00	0.00	0.00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0.62	0.65	0.59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0.12	0.14	0.10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0.26	0.47	0.01
	74.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0.54	0.99	0.04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1.46	2.73	0.03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1.28	2.31	0.11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0.99	1.64	0.02
	78. 영상 및 통신장비관련 기능직	0.33	0.58	0.05
	79. 기타 기능 관련직	0.47	0.76	0.13

직업		전체	남성	여성
대분류	중분류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조작직	0.13	0.21	0.04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0.24	0.45	0.01
	83. 화학 관련 기계조작직	1.15	1.63	0.61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0.61	0.99	0.18
	85.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1.97	3.38	0.39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3.36	4.51	2.07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29	2.39	0.04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0.07	0.13	0.00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0.50	0.85	0.12
9. 단순노무직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0.40	0.73	0.02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1.87	3.24	0.34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1.92	1.97	1.87
	94.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0.43	0.67	0.16
	95.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1.34	1.64	1.01
	99. 농림어업 및 기타서비스 단순노무직	0.34	0.42	0.25
소계		100.0 (835)	100.0 (739)	100.0 (1,573)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청년층 취업자의 연령과 직업의 관계를 살펴보면 나이가 25세 이후인 경우 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서비스직과 판매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학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력이 높은 청년, 특히 고학력 남성의 대부분이 25세 이후에 노동시장에 진출하며, 고학력자들이 전문직과 사무직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수준과 직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표 41> 참조). 한편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는 상대적으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나 단순노무직, 그리고 서비스직과 판매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 대졸 이상 청년의 절반에 가까운 49.3%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 고졸자는 그 비중이 11.5%에 불과하다. 고졸자의 12.5%가 단순노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대졸 이상은 그 비중이 1.8%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41〉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연령 및 학력별 직업분포

(단위: %, 천명)

직업	연령				학력			
	15~19	20~24	25~29	30~34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관리직	0.00	0.00	0.14	0.22	0.00	0.13	0.11	0.16
전문직	7.01	26.75	35.34	34.81	3.81	11.53	32.18	49.33
사무직	9.90	19.68	25.14	25.56	2.60	15.95	24.41	29.82
서비스직	36.15	16.74	9.61	7.11	19.37	18.28	11.01	5.80
판매직	23.93	15.28	10.44	10.47	9.57	18.22	11.52	7.74
농림어업직	0.18	0.11	0.27	0.30	0.00	0.28	0.54	0.08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3.89	5.58	4.77	6.42	6.50	8.17	7.52	2.4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25	6.64	8.73	9.90	21.43	14.92	8.57	2.85
단순노무직	14.68	9.22	5.56	5.21	36.72	12.51	4.15	1.82
소계	100.0 (85)	100.0 (369)	100.0 (614)	100.0 (693)	100.0 (36)	100.0 (591)	100.0 (386)	100.0 (749)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경기지역 청년취업자의 직업구조가 다른 광역시도의 직업구조와 다른가를 판단하기 위해 권역을 5개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청년취업자의 직업구조를 정리한 결과는 <표 42>에 나타나 있다.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직업구조는 대체로 서울과 다른 지역 사이의 중간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문가의 비중은 서울(36.2%)에 비해 경기도가 32.0%로 낮지만 인천이나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여서는 높다. 단순노무직도 서울(4.5%)과 비교하여서는 경기도의 비중이 6.6%로 높지만 인천(9.5%) 등 여타 지역과 비교하여서는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42> 지역별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분포

(단위: %, 천명)

직업	지역				
	경기도	서울	인천	여타 광역시	여타 도 지역
관리직	0.14	0.16	0.16	0.36	0.23
전문직	31.96	36.19	26.54	29.32	23.59
사무직	23.43	28.85	25.55	23.19	21.84
서비스직	11.40	11.75	11.50	11.77	11.65
판매직	12.12	12.87	12.53	12.54	10.15
농림어업직	0.25	0.03	0.08	0.09	1.64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5.54	3.46	5.63	6.53	7.7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8.53	2.20	8.52	9.42	14.83
단순노무직	6.63	4.49	9.49	6.76	8.32
소계	100.0 (1,762)	100.0 (1,526)	100.0 (395)	100.0 (1,230)	100.0 (1,708)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5개 권역별로 청년취업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표 43>과 같이 역시 북동부권역이 전문직의 비중이 낮은 대신 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5개 권역별 직업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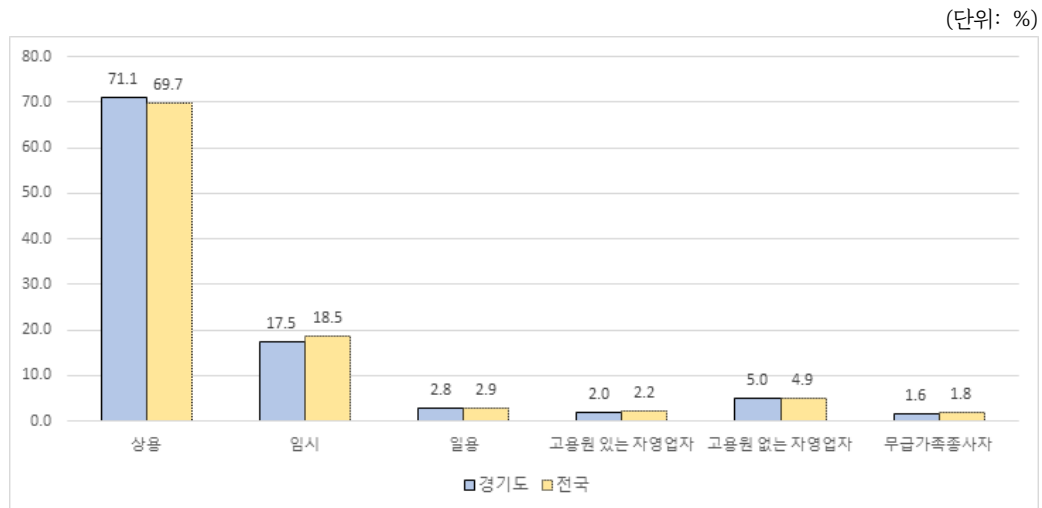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직업	5개 권역				
	북서부	북동부	동부	남부	중부
관리직	0.38	0.03	0.00	0.18	0.06
전문직	32.49	29.92	24.05	34.28	31.35
사무직	24.32	22.74	18.06	22.72	25.26
서비스직	11.24	11.11	12.55	11.47	11.27
판매직	13.38	15.05	15.58	10.40	11.89
농림어업직	0.33	0.49	0.90	0.22	0.02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5.03	6.24	9.52	5.28	4.9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7.01	7.31	8.59	8.12	10.06
단순노무직	5.81	7.10	10.76	7.33	5.09
소계	100.0 (217)	100.0 (209)	100.0 (113)	100.0 (666)	100.0 (556)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3) 종사상 지위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그림 9]와 같이 임금근로자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용직이 71.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임시직(17.5%)과 일용직(2.8%)의 순서이다. 비임금근로자는 8.6%로 이 중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5.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2.0%이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그림 9]처럼 전국의 평균치와 거의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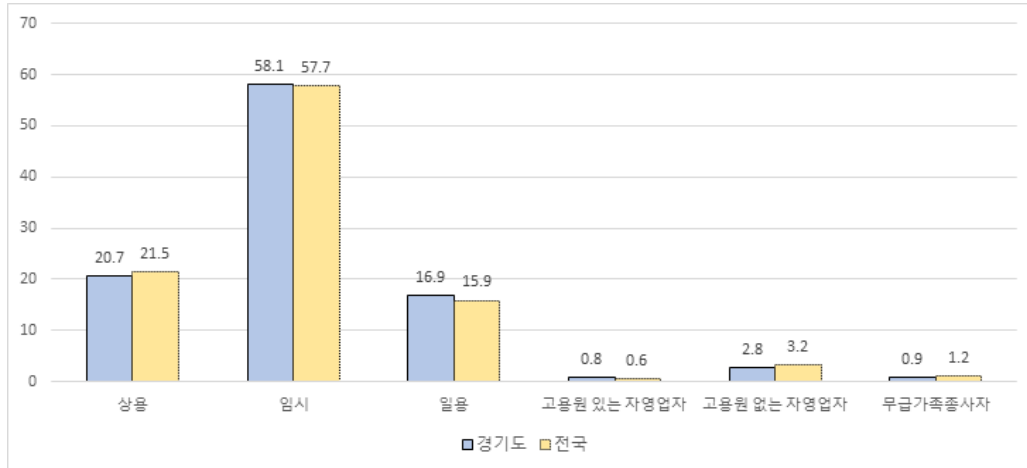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9]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졸업, 중퇴 및 무학 청년

본 통계 분석에서는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을 분석에 포함시켰을 때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과다하게 평가될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졸업, 중퇴 또는 무학인 청년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0]에 나타나 있다.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에 있는 청년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임시직이 58.1%로 절반 넘고 있으며, 상용직은 20.7%에 불과하다. 일용직도 16.9%로 임시 및 일용직이 75.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 청년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전국 청년의 종사상 지위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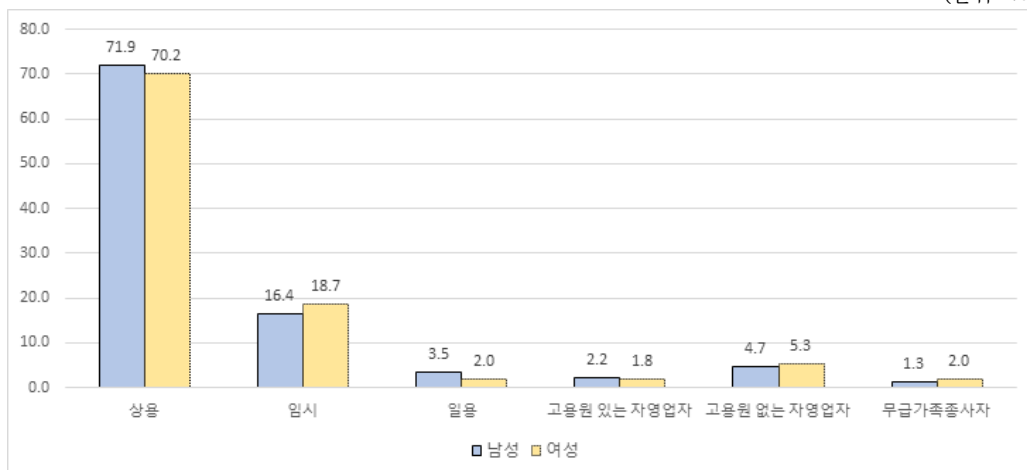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0]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재학 및 휴학 청년

종사상 지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거의 없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임시직의 비중이 높은 반면, 상용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다소 낮은 특징을 보임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성별에 따른 종사상지위 현황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단위: %)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1]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성별 종사상지위의 분포

연령에 따라서는 25세를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20~24세에 61.1% 수준이었던 상용직의 비중이 25~29세에 74.4%로 상승하고, 대신 임시직의 비중은 29.5%에서 16.7%로 하락하고 있다. 3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5~29세에 6.8%에 불과하였던 자영업자의 비중은 30~34세에 12.4%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학력별로는 예상처럼 고학력자일수록 상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 고졸의 57.7%가 상용직이나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그 비중이 78.9%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자영업의 경우에는 학력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고졸 청년 중 자영업 종사하는 비중은 9.2%이나 대졸 이상도 그 비중이 8.6%로 통계적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표 44> 경기도 청년 취업자의 연령, 학력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

(단위: %)

종사상 지위		연령				학력			
		15~19	20~24	25~29	30~34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38.3	61.1	74.4	74.4	41.8	57.7	73.7	78.9
	임시근로자	49.5	29.5	16.7	11.4	40.8	27.5	16.1	11.4
	일용근로자	10.7	5.4	2.2	1.8	10.7	5.7	2.2	1.1
	소계	98.4	95.9	93.2	87.6	93.3	90.8	92.0	91.4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3	0.7	1.3	3.2	0.9	2.0	1.9	2.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	1.6	4.1	7.5	5.5	4.9	4.2	5.5
	무급가족종사자	1.4	1.8	1.4	1.7	0.4	2.4	2.0	1.0
	소계	1.6	4.1	6.8	12.4	6.7	9.2	8.1	8.6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지역에 따라서도 <표 45>처럼 지역 간 유의한 차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여타 도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대신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 지역과 종사상 지위의 분포

(단위: %)

종사상 지위		지역				
		경기도	서울	인천	여타 광역시	여타 도 지역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74.8	74.9	71.5	72.7	70.5
	임시근로자	15.5	14.3	18.1	17.0	15.4
	일용근로자	2.3	2.7	3.0	2.3	3.1
	소계	92.5	92.0	92.6	92.1	89.0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0	2.6	2.6	2.4	2.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3	4.8	4.0	3.8	5.0
	무급가족종사자	1.2	0.7	0.8	1.8	3.7
	소계	7.5	8.1	7.4	8.0	11.0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표 46〉 청년 취업자의 5개 권역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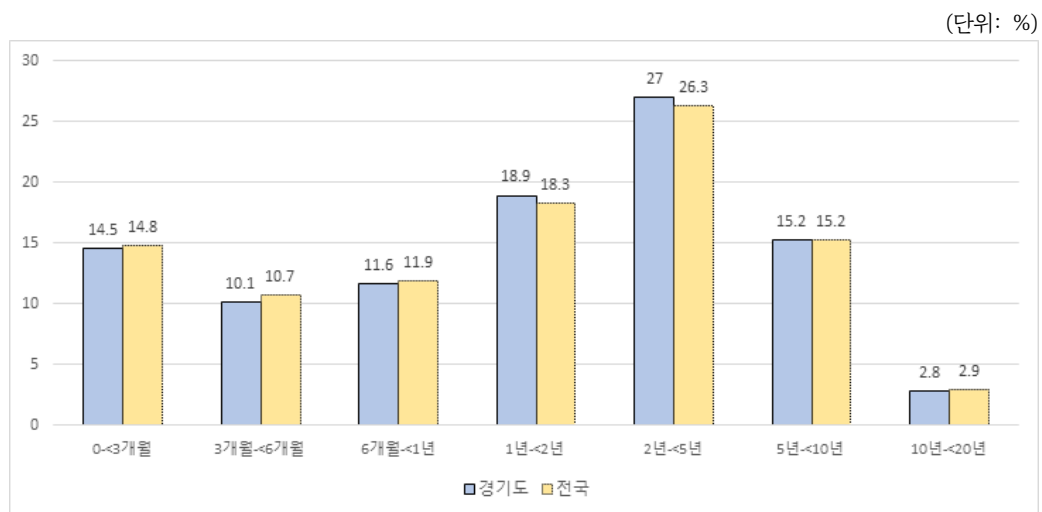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		5개 권역				
		북서부	북동부	동부	남부	중부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75.6	71.6	71.3	76.1	74.9
	임시근로자	15.7	16.8	15.4	14.9	15.6
	일용근로자	1.8	2.8	2.1	2.0	2.8
	소계	93.1	91.2	88.7	93.0	93.3
자영업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2	2.4	2.2	2.0	1.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1	5.1	5.4	4.0	4.2
	무급가족종사자	0.7	1.4	3.6	1.0	1.0
	소계	6.9	8.8	11.3	7.0	6.7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 내 5개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부권역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고, 대신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데, 이는 동부권역이 양평군, 가평군, 이천시, 여주시 등으로 농업과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4) 근속기간

학교를 졸업, 중퇴 또는 무학인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평균 근로기간은 2.56년으로 조사되었다. 남녀로 구분하면 남성의 평균근속기간이 2.58년인데 비해 여성은 2.53년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근속기간의 분포를 보면 2년에서 5년 미만이 27.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년에서 2년 미만으로 18.9%를 차지하고 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취업자가 36.2%로 상당수의 청년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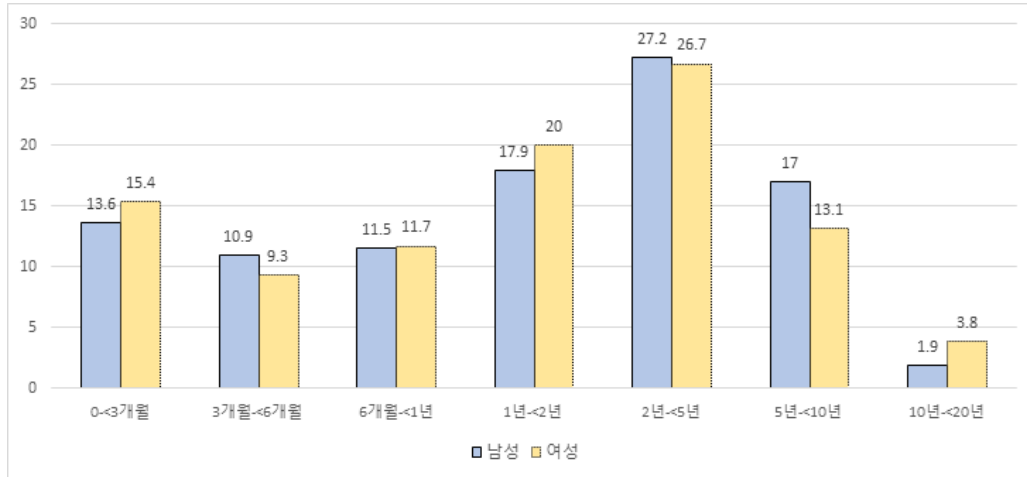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2] 청년취업자의 근속기간 분포

성별로 보면 남성의 평균근속기간이 2.58년인데 비해 여성의 근속기간은 평균 2.53년으로 남녀 간 격차가 크지 않다.⁵⁾ 남성과 여성의 근속기간 분포는 [그림 13]과 같으며 여성은 3개월 미만이 15.4%이나 남성은 그 비중이 13.6%에 지나지 않다. 반대로 2년에서 5년 미만의 비중은 남성 27.2%, 여성 26.7%로 나타났다. 특히 근속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의 경우 남성 17.0%, 여성 13.1%로 성별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성별 근속기간에 대한 t-test는 10%의 유의수준을 통과하지 못함

(단위: %)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3]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성별 근속기간 분포

<표 47> 청년 취업자의 연령, 학력별 근속기간

(단위: %, 년)

근속기간	연령				학력			
	15~19	20~24	25~29	30~34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3개월 미만	52.8	27.4	13.3	7.9	24.3	18.5	14.1	11.9
3~6개월 미만	16.6	15.6	10.9	6.8	13.0	13.0	10.5	8.1
6개월~1년 미만	15.6	15.0	12.7	9.1	18.5	13.3	12.5	9.9
1~2년 미만	12.8	24.7	22.7	13.6	18.2	18.0	19.3	19.2
2~5년 미만	2.1	16.1	30.4	30.0	20.3	24.1	26.2	29.4
5~10년 미만	0.0	1.2	9.8	26.4	5.9	10.6	13.9	18.9
10~20년 미만	0.0	0.0	0.3	6.2	0.0	2.4	3.6	2.7
평균 근속기간(년)	0.42	1.01	2.02	3.78	1.41	2.12	2.57	2.86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연령별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균근속기간이 증가하여 학교를 졸업, 중퇴 또는 무학인 청년의 경우 20~24세는 평균근속기간이 1.01년이었으나 25~29세는 2.02년, 그리고 30~34세는 3.78세로 조사되었다. 학력별로도 고학력일수록 평균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즉, 고졸의 평균근속기간은 2.12년이나 전문대는 2.57년, 그리고 4년제 대졸 이상은 2.86년으로 평균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고용 불안이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들이 같은 직장에서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저학력 청년들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다른 지역 청년들 사이의 근속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평가한 결과 <표 48>처럼 지역 간 유의할만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표 48> 지역과 청년 취업자의 근속기간

(단위: %, 년)

근속기간	지역				
	경기도	서울	인천	여타 광역시	여타 도 지역
3개월 미만	11.5	15.5	13.9	14.9	14.6
3~6개월 미만	10.1	11.9	13.4	10.1	9.8
6개월~1년 미만	11.6	11.5	13.0	12.0	12.2
1~2년 미만	18.9	16.8	18.3	18.3	18.9
2~5년 미만	27.0	25.9	24.1	26.9	26.3
5~10년 미만	15.2	15.8	14.6	15.2	15.0
10~20년 미만	2.8	2.7	2.8	2.8	3.2
평균 근속기간(년)	2.56	2.53	2.43	2.53	2.58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 내 권역별로 청년취업자의 평균근속기간을 비교하면, 북서부권역이 2.82년으로 가장 오래 근무하고 있으나 북동부권역은 그 값이 2.30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고용안정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있음을 시사하며, 근속기간이 짧은 지역에 대한 장기근속을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제기할 수 있다.

<표 49> 5개 권역별 청년 취업자의 근로기간

(단위: %, 년)

근속기간	5개 권역				
	북서부	북동부	동부	남부	중부
3개월 미만	14.7	16.3	11.8	15.0	13.6
3~6개월 미만	8.7	11.4	9.0	10.3	10.2
6개월~1년 미만	12.6	10.7	13.9	9.9	13.1
1~2년 미만	15.3	19.7	18.2	19.2	19.7
2~5년 미만	26.3	26.2	27.6	27.5	26.8
5~10년 미만	18.2	13.9	16.2	15.3	14.2
10~20년 미만	4.2	1.9	3.4	2.8	2.3
평균 근속기간(년)	2.82	2.30	2.74	2.61	2.46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5) 기간제 여부 및 계약기간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기간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17. 조사대상주간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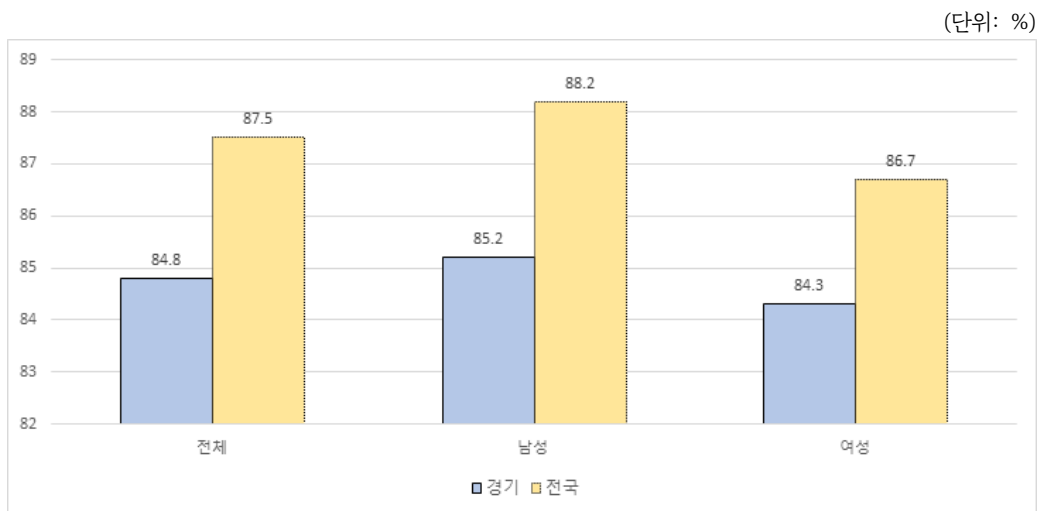
- (1) 정하였음 (2)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문17-1. (정하였으면)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1) 1개월 미만 (2) 1개월~6개월 미만
 (3) 6개월~1년 미만 (4) 1년
 (5) 1년 초과~2년 (6) 2년 초과~3년
 (7) 3년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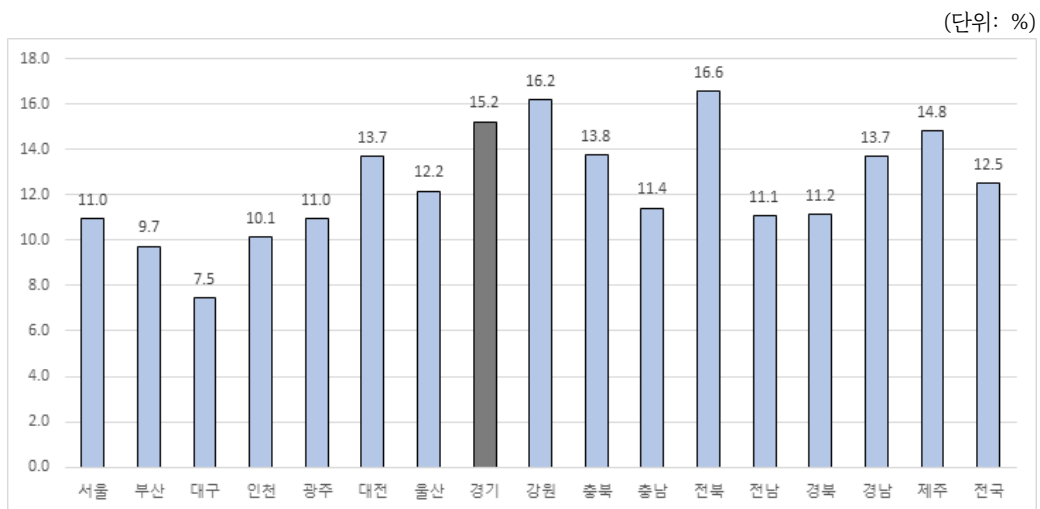
경기도의 청년취업자 중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84.8%로 전국평균 87.5%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기간제의 비중이 높으며,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 15]와 같이 경기도 청년 중 기간제의 비중은 15.2%로 전북과 강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기간제 비중이 높다.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4]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가 아닌 근로자의 비중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5]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인 근로자의 지역별 비중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기간제의 비중이 크다.⁶⁾ 15~19세는 기간제의 비중이 26.2%이나 25~29세는 15.5%로 줄어들고, 30~34세는 더욱 하락하여 10.9%를 나타내고 있다. 학력별로도 고학력일수록 기간제의 비중이 낮다. 고졸은 기간제 비중이 19.5%이지만 전문대졸은 그 비중이 14.6%로 낮아지고, 대졸이상은 더욱 낮아져 기간제 비중이 12.9%를 보여주고 있다.

<표 50> 경기도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의 비중과 계약기간의 분포: 연령 및 학력

(단위: %)

기간제	연령				학력			
	15~19	20~24	25~29	30~34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기간제 비중	26.2	22.7	15.5	10.9	20.2	19.5	14.6	12.9
계약기간 분포								
1개월 미만	15.0	8.3	4.7	3.1	6.8	9.8	5.3	2.3
1~6개월 미만	32.3	18.1	9.9	10.3	37.8	15.6	9.5	12.0
6개월~1년 미만	18.7	37.1	25.0	23.5	26.8	32.8	23.6	25.4
1년	30.4	23.5	43.1	46.5	16.9	30.5	45.9	41.5
1년 초과~2년 이하	1.7	5.5	10.6	10.1	0.0	4.2	10.9	11.8
2년 초과~3년 이하	0.6	5.6	2.6	3.9	9.2	4.4	2.9	3.2
3년 초과	1.2	1.9	4.1	2.7	2.6	2.7	2.0	3.8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표 51> 지역과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의 비중 및 계약기간의 분포

(단위: %)

기간제	지역				
	경기도	서울	인천	여타 광역시	여타 도 지역
기간제 비중	15.2	11.0	10.1	10.4	13.2
계약기간 분포					
1개월 미만	5.7	6.6	4.5	6.2	6.7
1~6개월 미만	13.3	16.1	12.0	9.4	9.3
6개월~1년 미만	27.6	31.0	36.1	31.9	35.1
1년	38.1	31.4	40.3	39.0	32.4
1년 초과~2년 이하	8.6	9.0	4.1	7.7	6.9
2년 초과~3년 이하	3.7	2.4	3.1	4.1	6.4
3년 초과	3.0	3.6	0.0	1.8	3.2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6)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청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기간제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6개월에서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다. <표 50>, <표 51>, <표 52>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1년 또는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가장 많다.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도 상당수 있는데, 나이가 어리거나 학력수준이 낮을 경우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표 51>과 같이 경기도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의 비중은 15.2%로 다른 지역에 비해 기간제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접한 서울과 인천의 경우 기간제 비중이 각각 11.0%와 10.1%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내 5개 권역별로는 북동부권역의 기간제 비중이 18.2%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동부권역(16.8%), 북서부권역(15.7%) 등의 순서이다. 계약기간은 동부권역의 경우 55.7%가 1년 계약인 반면, 북동부권역은 1년 계약이 24.5%에 불과하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 39.1%로 가장 많다.

경기도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제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기간제 비중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제기된다.

<표 52>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취업자 중 기간제의 비중과 계약기간의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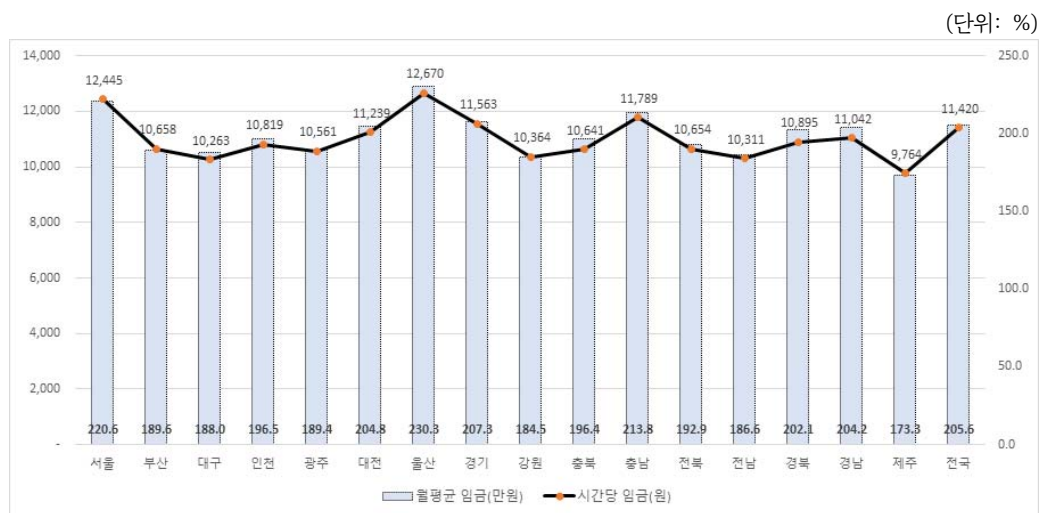
기간제	5개 권역				
	북서부	북동부	동부	남부	중부
기간제 비중	15.7	18.2	16.8	14.2	14.9
계약기간 분포					
1개월 미만	2.4	6.3	3.6	3.8	9.6
1~6개월 미만	6.2	13.4	13.4	15.7	13.6
6개월~1년 미만	20.7	39.1	15.5	19.5	36.7
1년	42.3	24.5	55.7	44.7	31.4
1년 초과~2년 이하	15.7	12.2	4.7	9.1	4.6
2년 초과~3년 이하	3.8	3.4	5.3	4.4	2.6
3년 초과	9.0	1.1	2.8	2.9	1.5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2 경기도 청년의 임금구조

가. 임금수준

경기도 청년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7년 4월 기준 207.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205.6만원과 엇비슷한 값으로, 울산이 230.3만원으로 가장 높다. 경기도는 서울(220.6만원)과 충남(213.8만원)의 뒤를 이어 광역시도 중 4번째로 월평균 임금이 높다. 성별에 따라서는 경기도 청년남성의 월평균 임금이 227.5만원인데 비해 청년여성은 184.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청년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81.1%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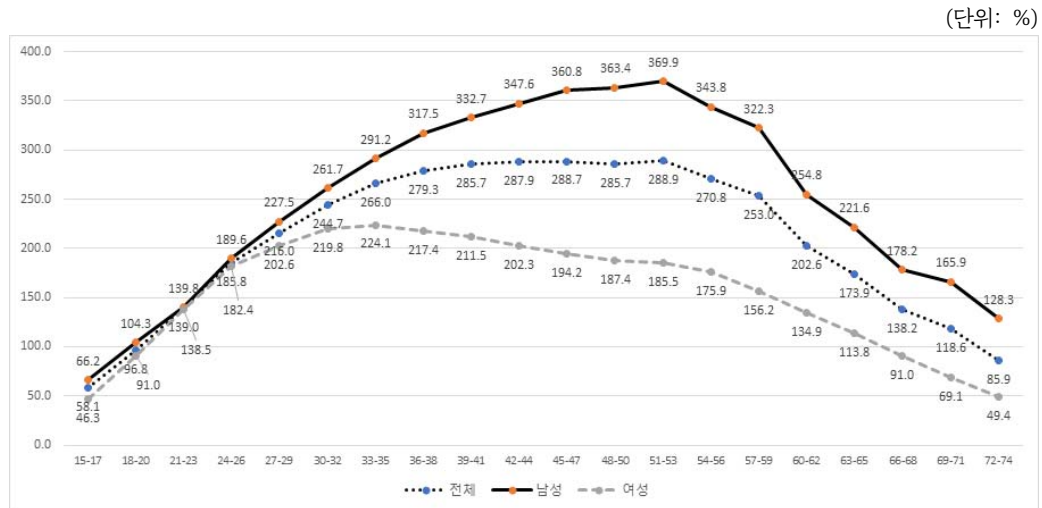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6] 청년취업자의 월평균 임금 및 시간당 임금의 분포(재학 및 휴학생 포함)

시간당 임금은 경기도가 11,563원으로 역시 전국 평균인 11,4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12,670원을 기록하였으며, 경기도는 서울(12,445원), 충남(11,789원)의 뒤를 이어 4위에 위치하고 있다. 성별로 분석해보면 남성의 시간당 임금은 12,209원인 반면 여성은 남성의 88.5%인 10,810원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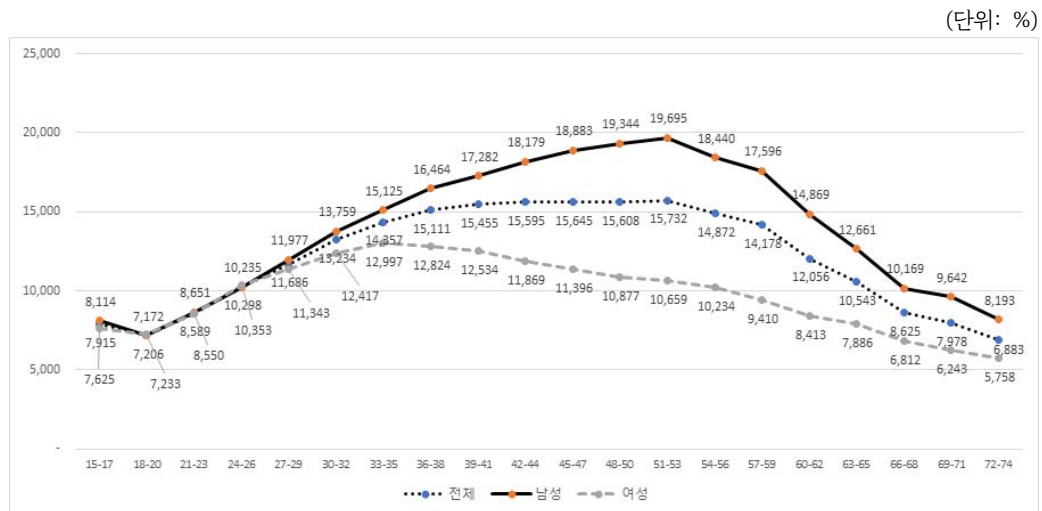
나. 연령과 임금의 변화

[그림 17]과 [그림 18]을 통해 연령에 따라 경기도 취업자의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7] 성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 임금의 변화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18] 성과 연령에 따른 시간당 임금의 변화

남성의 임금은 연령에 따라 계속 상승하여 51~53세에 월평균 임금 369.9만원, 시간당 임금 19,695원으로 정점을 이룬 뒤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여성의 임금은 33~35세에 월평균 임금 224.1만원, 시간당 임금 12,997원의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이후 완만하게 줄어드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24~26세까지는 남녀 성별 간 임금격차가 거의 없거나 심지어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높지만 27~29세를 기점으로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되어 50대 초반이 되면 남성의 임금이 여성의 2배 수준에 까지 달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해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커리어 잡(career job)을 가지고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여성이 경력단절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며, 이러한 지원에는 보육서비스지원의 내실뿐만이 아니라 여성이 직장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캐리어를 구축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 학력과 임금⁷⁾

학력에 따라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 상승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의 경우 중졸 이하 청년층은 156.3만원을 받고 있지만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253.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졸 청년이 받는 임금은 대졸 이상 청년이 받는 임금의 61.6%에 불과하여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시간당 임금은 <표 53>과 같이 중졸 이하가 시간당 8,778원을 받는 반면, 대졸 이상은 14,062원으로 중졸의 1.60배의 임금을 받고 있다.

7) 본 통계분석에서도 학교를 재학 또는 휴학한 청년은 분석에서 제외함.

〈표 53〉 경기도 청년 취업자의 연령별, 학력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

임금	연령				학력			
	15~19	20~24	25~29	30~34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월평균 임금	81.4	146.1	208.7	259.2	156.3	155.9	202.8	253.0
월평균 임금의 분포								
0~50만원	46.3	13.4	2.0	1.3	11.7	15.6	1.8	1.5
50만원 초과~100만원	19.0	15.2	5.8	2.7	13.9	12.7	4.5	4.3
100만원 초과~150만원	24.5	27.6	14.4	9.1	25.5	23.2	17.6	8.6
150만원 초과~200만원	9.0	31.0	34.7	22.5	31.0	26.4	37.9	23.9
200만원 초과~300만원	1.2	11.3	35.8	42.1	15.0	19.0	31.6	41.0
300만원 초과~500만원	0.0	1.4	7.2	20.6	3.1	3.1	6.6	18.9
500만원 초과	0.0	0.2	0.1	1.8	0.0	0.1	0.0	1.7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표 54〉 경기도 청년 취업자의 연령별, 학력별 시간당 임금

(단위: 원, %)

임금	연령				학력			
	15~19	20~24	25~29	30~34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업	대졸 이상
시간당 임금	7,424	9,228	11,426	13,939	8,778	9,528	10,865	14,062
시간당 임금의 분포								
0~6,470원	40.7	18.5	7.8	4.6	24.5	17.8	8.4	4.3
6,471원~10,000원	52.5	50.7	32.6	22.1	52.9	46.5	38.2	19.7
10,001원~15,000원	5.7	25.7	44.8	38.1	18.1	28.4	41.6	41.4
15,001원~20,000원	0.6	3.8	11.0	22.3	2.2	5.3	9.1	22.2
20,001원 이상	0.7	1.3	3.8	13.0	2.3	2.0	2.6	12.4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시간당 임금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7년의 최저임금인 6,470원 이하가 9.4%이고, 6,471원~10,000원이 32.3%, 10,001원~15,000원 37.4%, 15,001원~20,000원 13.9%, 그리고 20,001원 이상이 7.0%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수준이 중졸 이하일 경우에는 24.5%의 청년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았지만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낮아져 대졸 이상의 청년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비중이 4.3%에 불과하다.

라. 권역별 임금수준

권역별로 보면 역시 북동부권역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5〉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5개 권역별 월평균 임금 및 임금분포

(단위: 만원, %)

임금	5개 권역					
	북서부	북동부	동부	남부	중부	전 지역
월평균 임금	215.7	186.4	195.2	216.4	203.3	207.3
월평균 임금의 분포						
0~50만원	5.9	4.8	3.8	7.1	7.2	6.5
50만원 초과~100만원	9.5	8.5	8.6	7.3	6.0	7.4
100만원 초과~150만원	13.6	23.6	20.1	14.0	15.3	15.9
150만원 초과~200만원	25.5	31.5	31.7	26.0	29.2	28.0
200만원 초과~300만원	32.2	27.3	29.0	31.1	32.2	31.0
300만원 초과~500만원	11.8	4.0	6.9	13.5	9.7	10.5
500만원 초과	1.5	0.3	0.1	1.0	0.5	0.8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표 56〉 경기도 청년층 취업자의 5개 권역별 시간당 임금 및 임금분포

(단위: 원, %)

임금	5개 권역					
	북서부	북동부	동부	남부	중부	전 지역
시간당 임금	12,332	10,077	10,770	12,131	11,293	11,563
시간당 임금의 분포						
0~6,470원	13.1	15.7	12.2	12.3	11.9	12.6
6,471원~10,000원	28.0	41.0	39.3	30.1	33.8	32.9
10,001원~15,000원	31.1	34.1	34.1	34.6	36.9	35.0
15,001원~20,000원	18.6	6.7	10.6	14.3	11.9	12.9
20,001원 이상	8.3	2.5	3.9	8.8	5.4	6.6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북동부권역은 월평균 임금이 186.4만원으로 가장 임금수준이 높은 북서부의 86.4%에 불과하다. 시간당 임금도 10,077원으로 역시 북서부권역의 81.7%에 그치고 있었다. 청년 취업자는 남부권역과 중부권역에 가장 많지만 임금수준은 북서부권역과 남부권역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북동부권역은 청년층 취업자의 15.7%가 최저임금 이하로 나타났으며, 시간당 임금이 15,001원을 초과하는 청년이 9.2%에 불과하다.

마. 산업별 임금수준

<표 57>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산업	경기도			전국
	남성	여성	전체	
농림어업	153.1	174.4	155.2	153.2
광업	-	-	-	269.4
제조업	248.1	205.1	234.7	233.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296.3	-	296.3	268.9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241.5	186.2	222.9	238.8
건설업	249.6	201.2	242.1	229.7
도소매	209.0	168.9	190.0	188.9
운수업	219.0	213.3	216.9	220.5
숙박 및 음식점업	130.5	104.1	118.2	122.2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	270.5	219.4	250.2	237.1
금융 및 보험업	325.9	251.6	288.0	27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2.6	183.6	199.6	198.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91.1	224.9	260.1	254.9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203.7	174.4	192.0	194.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58.3	205.9	235.5	230.8
교육서비스업	169.1	180.7	177.4	188.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59.5	202.3	209.7	206.8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171.3	121.3	147.6	155.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	201.5	155.5	178.2	175.8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활동	-	100.0	100.0	100.0
국제 및 외국기관	287.7	295.2	290.8	248.9
전체	227.5	184.4	207.3	205.6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산업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표 57>과 같이 숙박 및 음식점업의 낮은 임금에 주목할 만하다. 경기도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8.2만원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도 122.2만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288.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72.0만원을 나타내었다.⁸⁾

<표 58> 청년층 취업자의 산업별 시간당 임금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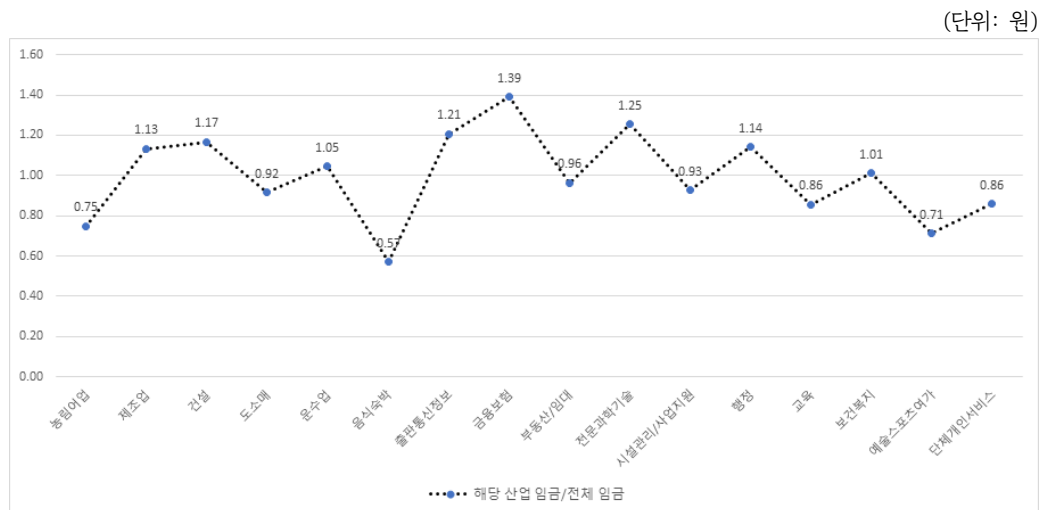
산업	경기도			전국
	남성	여성	전체	
농림어업	8,569	10,035	8,717	8,369
광업	-	-	-	15,128
제조업	12,617	11,063	12,138	12,1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16,370	-	16,370	14,983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12,487	10,145	11,703	13,160
건설업	12,698	11,295	12,488	12,381
도소매	11,003	9,896	10,486	10,255
운수업	11,788	12,111	11,899	11,888
숙박 및 음식점업	7,947	7,914	7,932	7,901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	14,853	12,066	13,755	13,150
금융 및 보험업	17,327	13,267	15,338	14,70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640	10,149	10,420	10,6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424	12,425	14,024	13,86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	11,064	9,986	10,637	10,73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13,639	12,552	13,209	12,656
교육서비스업	12,789	12,424	12,532	12,37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4,108	11,194	11,579	11,402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	10,364	8,943	9,690	10,02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	10,500	8,720	9,600	9,491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활동	-	5,753	5,753	5,753
국제 및 외국기관	13,544	15,250	14,255	13,479
전체	12,209	10,810	11,563	11,420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과 국제 및 외국기관의 경우 월평균 임금이 금융 및 보험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표본수가 적어 제외하였음

이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업에 종사하는 경기도의 청년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청년에 비해 약 2.44배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당 임금에서도 숙박 및 음식점업이 7,932원으로 가장 낮고, 금융 및 보험업이 15,338원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높다(<표 58> 참조).⁹⁾

경기도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을 서로 비교하면 [그림 19]와 같이 전체 월평균 임금과 비교하여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임금수준이 높다. 반면, 음식 및 숙박업을 필두, 예술,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업, 농림어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9] 경기 청년의 산업별 월평균 임금 수준(=해당 산업 월평균 임금/전체 월평균 임금)

바. 직업별 임금수준

직업에 따른 임금차이를 보면 단순노무직의 임금수준이 경기도 140.4만원, 전국 139.3만원으로 가장 낮다. 이러한 임금수준은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관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단순노무종사자 이외에도 서비스종사자의 임금수준이 경기도 144.3만원으로 가장 낮은데, 같은 서비스종사자 중에서도 여성의 임금이 낮아 남성의 88.7%에 그치고 있으며, 판매종사자도 역시저임금 직종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9) 시간당 임금도 가구나 고용 및 자가소비활동의 시간 당 임금이 더 낮지만 표본수가 매우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있다. 특히 여성 판매직은 월평균 123.2만원으로 여성 서비스종사자보다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직업	경기도			전국
	남성	여성	전체	
관리자	313.7	291.6	304.5	289.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5.9	209.4	239.6	234.2
사무종사자	255.7	202.3	223.6	222.4
서비스종사자	152.6	135.3	144.3	146.5
판매종사자	198.7	123.2	162.4	159.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89.8	230.0	190.4	182.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24.0	168.9	219.8	220.6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25.3	191.3	219.3	226.4
단순노무종사자	151.0	114.3	140.4	139.3
전체	227.5	184.4	207.3	205.6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표 60> 청년층 취업자의 직업별 시간당 임금

(단위: 원)

직업	경기도			전국
	남성	여성	전체	
관리자	14,566	14,736	14,637	14,72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160	12,447	13,702	13,329
사무종사자	13,694	11,374	12,320	12,216
서비스종사자	8,988	8,490	8,751	8,730
판매종사자	10,539	7,964	9,304	9,02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483	11,027	10,491	9,3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420	9,345	11,259	11,43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157	9,623	10,891	11,514
단순노무종사자	8,453	7,407	8,152	8,042
전체	12,209	10,810	11,563	11,420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월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임금에서도 단순노무종사자가 경기도 8,152원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서비스종사자의 8,751원, 판매종사자의 9,304원이다. 특히, 월평균 임금과 마찬가지로 여성 판매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은 7,964원으로 남성의 75.6%에 불과하며, 서비스분야의 여성종사자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임금은 관리자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임금보다 많지만, 시간당 임금은 전문가가 관리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 근속기간과 임금수준

근속기간에 따라서도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지고 있다. 근속기간과 임금에서도 경기도 청년들의 임금프로파일은 전국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 청년층 취업자의 근속기간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근속기간	경기도			전국
	남성	여성	전체	
3개월 미만	162.3	128.9	146.3	146.1
3개월~6개월 미만	182.7	146.8	166.7	166.4
6개월~1년 미만	199.0	163.5	182.4	181.0
1년~2년 미만	215.6	181.7	198.6	199.6
2년~5년 미만	263.3	204.6	236.0	233.1
5년~10년 미만	302.0	257.1	284.0	279.4
10~20년 미만	325.3	281.5	296.1	289.8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여성과 남성 모두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표 62>의 시간당 임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취업 당시 시간당 9,072원인 시간당 임금은 근속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면서 15,026원으로 1.66배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청년에게 취업만이 아니라 장기근속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취업 초기에는 임금수준이 낮더라도 한 직장에 오래 다니게 되면 임금도 따라 올라가 청년들의 직장 만족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2> 청년층 취업자의 근속기간별 시간당 임금

(단위: 원)

근속기간	경기도			전국
	남성	여성	전체	
3개월 미만	9,561	8,541	9,072	9,157
3개월 ~ 6개월 미만	10,249	9,837	10,066	9,686
6개월 ~ 1년 미만	10,782	9,748	10,302	10,173
1년 ~ 2년 미만	11,626	10,393	11,013	10,943
2년 ~ 5년 미만	13,635	11,591	12,706	12,528
5년 ~ 10년 미만	15,628	14,053	15,026	14,935
10 ~ 20년 미만	16,823	16,567	16,660	15,649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아. 기간제 여부와 임금수준

기간제 여부에 따라 상당한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의 경우 기간제가 아니면 월평균 217.0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기간제인 경우는 74.0%인 160.6만원에 그치고 있다.

<표 63> 청년층 취업자의 기간제 여부 및 계약기간과 월평균 임금

(단위: 만원)

고용형태		경기도			전국
		남성	여성	전체	
기간제 여부	기간제 아님	238.8	192.2	217.0	212.6
	기간제	172.2	147.8	160.6	161.6
계약 기간	1개월 미만	83.9	65.8	79.0	92.8
	1 ~ 6개월 미만	113.1	102.1	107.8	114.5
	6개월 ~ 1년 미만	163.7	124.6	143.4	143.8
	1년	226.9	193.3	210.0	205.7
	1년 초과 ~ 2년 미만	217.2	185.5	199.4	198.4
	2년 초과 ~ 3년 미만	229.9	172.3	212.4	207.7
	3년 초과	223.3	210.7	220.0	220.2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또한 같은 기간제이라도 계약기간이 늘어날수록 월평균 임금도 상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07.8만원이지만 3년을 초과하면 220.0만원으로 임금이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자. 종사상 지위와 임금수준

종사상 지위와 관련되어서도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이 임시직이나 일용직보다 많다. 경기도 청년층 전체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40.1만원이지만 임시직은 131.2만원(54.6%), 일용직은 92.8만원(38.7%)에 불과하다.

〈표 64〉 청년층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

(단위: 만원, 원)

종사상 지위		경기도			전국
		남성	여성	전체	
월평균 임금(만원)	상용직	261.2	215.6	240.1	235.8
	임시직	147.5	115.5	131.2	134.6
	일용직	109.4	60.8	92.8	97.9
시간당 임금(원)	상용직	13,572	11,746	12,743	12,583
	임시직	8,974	8,891	8,932	8,810
	일용직	7,472	6,669	7,197	7,510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3 임금함수의 추정

월평균 임금의 로그값을 종속변수¹⁰⁾로 하고 설명변수로 성별, 연령, 거주권역 등 인구학적 변수와 학력, 근속기간 등 인적자본 변수, 그리고 기간제 여부, 종사상 지위, 산업 및 직업 등 직장의 특성변수를 사용하여 경기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금함수를 추정하여 보았다.

추정결과는 <표 65>와 같으며, 근속기간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월평균 임금이 2.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결과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임금이 14.7% 더 받고 있다.
- ②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하지만 상승속도는 완만하여져 32.2세 이후에는 임금이 도리어 하락하는 역 U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 ③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격차를 찾을 수 없지만 4년제 대졸 이상과는 명확한 임금격차가 있다. 중졸 이하에 비해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월평균 임금이 7.5%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 ④ 5대 권역에 따른 유의한 임금격차는 발견되지 않음. 단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북동부가 북서부에 비해 임금이 낮다.
- ⑤ 기간제일 경우 임금이 3.46% 낮고, 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은 76.3%, 임시직은 37.4% 임금이 더 높다.
- ⑥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판매직의 임금이 단순노무직보다 5.8%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10) 통상적으로 월평균 임금 대신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나 여기에서는 모형의 설명력이 훨씬 높아지는 월평균 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함

<표 65>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 추정 - 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원)

설명변수	추정계수	P> t
상수	1.29235	0.000
성별(0: 여성, 1: 남성)	0.14672	0.000
연령	0.19772	0.000
연령의 제곱	-0.00307	0.000
학력수준(중졸 이하 기준)		
고졸	-0.12647	0.000
전문대졸	-0.02590	0.437
4년제 대졸 이상	0.07491	0.025
거주 권역(북서부 기준)		
북동부	-0.01636	0.365
동부	-0.00189	0.931
남부	0.00899	0.535
중부	0.00237	0.873
근속기간(년)	0.02396	0.000
기간제 여부(0: 기간제 아님, 1: 기간제)	-0.03460	0.005
종사상 지위(일용직 기준)	0.76247	0.000
상용직	0.37400	0.000
임시직		
산업(농림수산업 기준)	0.08282	0.615
제조업	0.20395	0.219
건설업	0.07848	0.634
도소매	0.07591	0.648
운수업	-0.16098	0.330
음식숙박업	0.06118	0.712
출판방송통신정보	0.26340	0.114
금융보험	0.08769	0.605
부동산 및 임대업	0.07952	0.630
전문과학기술	0.08016	0.629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0.03166	0.849
행정	-0.13235	0.423
교육	-0.00940	0.955
보건복지	-0.12826	0.438
예술스포츠여가	-0.01944	0.907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	0.09848	0.584
여타 사업		
직업(단순노무직 기준)	0.19641	0.091

설명변수	추정계수	P> t
관리자	0.12721	0.000
전문가	0.03296	0.129
사무직	0.06031	0.012
서비스직	-0.05776	0.016
판매직	0.14605	0.346
농림어업 숙련직	0.12801	0.000
기능원	0.08668	0.000
기계조작 및 조립직		
표본수	7,710	
F-값	299.31	
Adjusted R-squared	0.5952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다음 단계로 경기도 청년들의 임금구조가 전국의 청년 임금구조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 위의 임금 추정에서 5개 권역을 제외하고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66>과 같으며, 주요한 결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근속기간에 따라서 경기도 청년은 근속기간 1년 증가에 따라 임금이 2.4% 상승하나 전국적으로는 2.7% 상승하였다.
- ② 경기도에서는 전문대졸까지는 학력 간 임금격차가 없으나 전국적으로는 전문대졸이 중졸 이하보다 5.7%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중졸 이하보다 경기도에서 7.6% 더 많은 월평균 임금을 받지만 전국적으로는 그 값이 16.6%에 달하여 청년의 학력 임금 프리미엄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③ 하지만 상용직과 임시직 등 종사상 지위에 따른 임금격차는 경기도가 전국평균보다 높다는 것이 나타났다.

<표 66> 경기도와 전국의 청년 취업자 임금의 추정 - 월평균 임금 기준

(단위: 원)

설명변수	경기도	전국
상수	1.29333(0.000)	1.69857(0.000)
성별(0: 여성, 1: 남성)	0.14716(0.000)	0.14509(0.000)
연령	0.19716(0.000)	0.16669(0.000)
연령의 제곱	-0.00306(0.000)	-0.00256(0.000)
학력수준(중졸 이하 기준)		
고졸	-0.12651(0.000)	-0.00934(0.606)
전문대졸	-0.02588(0.438)	0.05709(0.002)
4년제 대졸 이상	0.07627(0.022)	0.16558(0.000)
근속기간(년)	0.02398(0.000)	0.02706(0.000)
기간제 여부(0: 기간제 아님, 1: 기간제)	-0.03521(0.004)	-0.03161(0.000)
종사상 지위(일용직 기준)	0.76246(0.000)	0.67231(0.000)
상용직	0.37479(0.000)	0.30135(0.000)
임시직		
산업(농림수산업 기준)	0.09153(0.578)	0.06975(0.273)
제조업	0.21164(0.202)	0.15810(0.014)
건설업	0.08527(0.605)	0.05872(0.357)
도소매	0.08398(0.613)	0.10094(0.121)
운수업	-0.15316(0.353)	-0.14551(0.023)
음식숙박업	0.06892(0.677)	0.01413(0.826)
출판방송통신정보	0.27083(0.104)	0.22263(0.001)
금융보험	0.09613(0.570)	0.09045(0.180)
부동산 및 임대업	0.08791(0.594)	0.08651(0.178)
전문과학기술	0.08926(0.590)	0.06417(0.318)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0.03876(0.816)	0.02854(0.660)
행정	-0.12521(0.448)	-0.13319(0.038)
교육	-0.00288(0.986)	-0.05839(0.362)
보건복지	-0.12015(0.467)	-0.13014(0.046)
예술스포츠여가	-0.01097(0.947)	-0.04701(0.468)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	0.10366(0.564)	0.08794(0.205)
여타 사업		
직업(단순노무직 기준)	0.19876(0.087)	0.18115(0.0001)
관리자	0.12757(0.000)	0.19459(0.000)
전문가	0.03284(0.129)	0.08044(0.000)
사무직	0.06008(0.013)	0.11635(0.000)
서비스직	-0.05811(0.015)	-0.01580(0.248)
판매직	0.14313(0.355)	0.10703(0.213)

설명변수	경기도	전국
농림어업 숙련직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직	0.12737(0.000) 0.08646(0.000)	0.16271(0.000) 0.14547(0.000)
표본수	7,710	23,123
F-값	334.48	841.43
Adjusted R-squared	0.5953	0.5527

주: 괄호 안은 |z|>t임

자료: 통계청(2017. 04), 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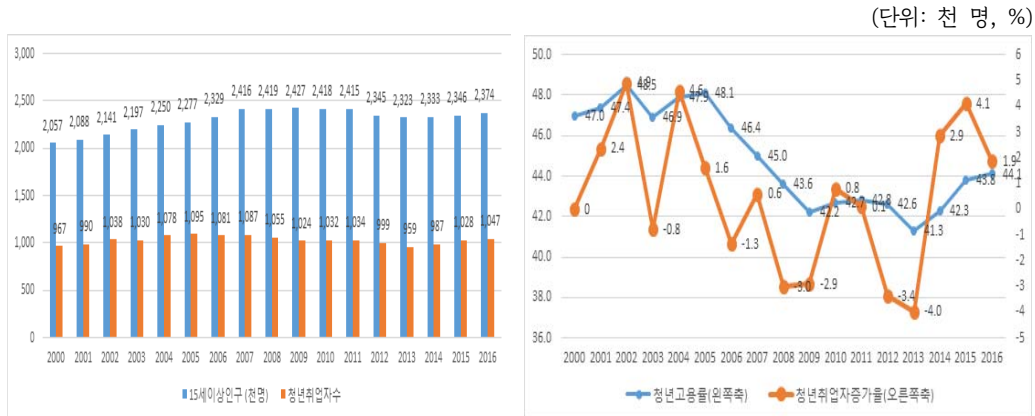


IV. 경기도 청년정책 수요 관점에서 본 청년층 고용 문제의 진단

경기도 청년고용문제는 전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측면도 있고 경기도 자체의 특성을 보이는 측면도 있다. 여기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경기도 청년고용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청년층의 노동시장 실태 및 현안을 앞 장에서의 논의 및 기타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¹¹⁾

1 권역별 청년층 고용대책 필요

경기도의 청년층(15~29세) 인구는 2009년 243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 이후 다소 증가하여 청년층 인구유입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청년 취업자 수는 2005년 110만명을 최고점으로 하여 2013년 96만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105만 명을 나타내고 있다. 고용률은 2004년과 200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여 2013년 43.1%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16년 44.1%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2005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자료 2: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7), 경기도 지역고용전략보고서.

[그림 20] 경기도의 청년(15-29세) 경제활동 상태 추이

11) 여기서의 논의는 제2절 및 제3절의 통계와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7)의 「경기도 지역 고용전략보고서」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경기도 청년층(20~34세 기준) 경제활동 상태 혹은 고용지표는 5개 권역별로 다소 상이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동부권역으로 66.3%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에 북동부권역의 고용률은 60% 미만으로 추정되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북동부권역을 제외한 다른 4개 권역에서의 고용률은 모두 6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실업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고용률이 가장 낮았던 북동부권역으로 9.1%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었던 동부권역의 경우 실업률도 7.1%로 상당히 높아 권역별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7>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고용지표

(단위: 천 명, %)

	생산가능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전국	9,953	6,509	65.4	6,037	60.7	471	7.2
경기도 전체	2,545	1,695	66.6	1,580	62.1	115	6.8
중부	721	485	67.3	446	61.9	39	8.1
남부	970	641	66.1	607	62.6	34	5.3
동부	184	131	71.4	122	66.3	9	7.1
북서부	352	230	65.3	216	61.5	13	5.8
북동부	316	206	65.3	187	59.4	18	9.1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17년도 상반기), 본 연구의 제2절 참조.

2 청년 실업률 증가

고용률이나 취업자 증가 등 통계 지표로 본 경기도의 청년고용 사정은 2013년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나, 청년에게 적합한 양질의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의 증가 등으로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참조 그림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경우, 경기도의 청년 고용률은 43.7%로 전국 대비 높은 편이나,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낮은 편이다. 또한 서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 인천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이는 경기도의 경우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질의 고용 기회가 충분하지는 않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그림 21] 청년(15-29세) 실업률 추이

3 청년 니트와 유휴화 문제

청년 니트의 문제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분석한 전국 20-34세 인구가운데 청년무업자(니트)의 규모는 138만 명으로 전체 인구 995만 명 대비 니트 비율이 13.9%로 추정되었고 경기도는 이 비율보다 다소 적은 13.5%로 나타나고 있다. 니트 비율을 경기도 권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권역은 북동부 권역으로 15.5% 그리고 북서부 14.4%, 중부 14.3%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권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니트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68〉 경기도 5개 권역별 청년층(20-34세) 니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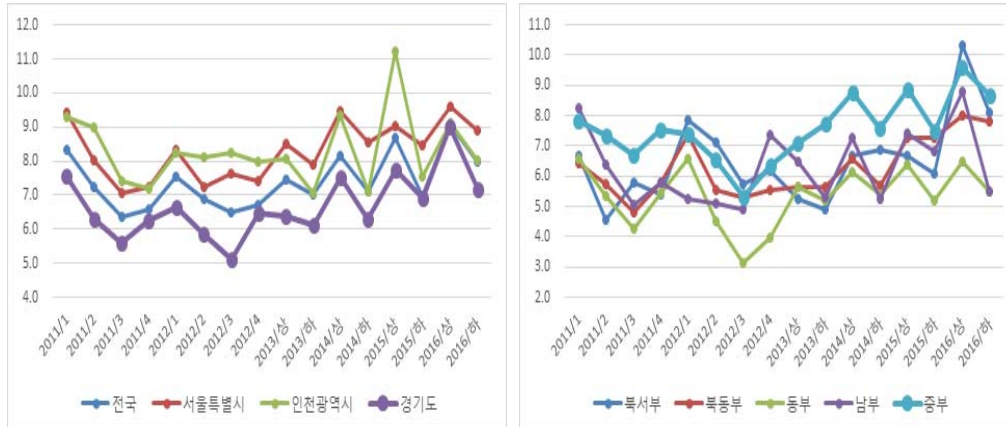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34세 인구	청년무업자(니트)	니트 비율
전국	9,953	1,383	13.9
경기도 전체	2,545	344	13.5
중부	721	103	14.3
남부	970	118	12.2
동부	184	23	12.5
북서부	352	50	14.4
북동부	316	49	15.5

자료: 지역별고용조사(2017년도 상반기), 본 연구의 제2절의 표를 재인용

한편, 청년인구 대비 실업자에 취업을 위한 통학이나 취업준비생까지를 포함한 계층의 비율을 유휴화율로 정의하고 계산해보면, 경기도의 경우 전국 대비 유휴화율은 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보면, 최근 유휴화율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보면 중부 지역의 유휴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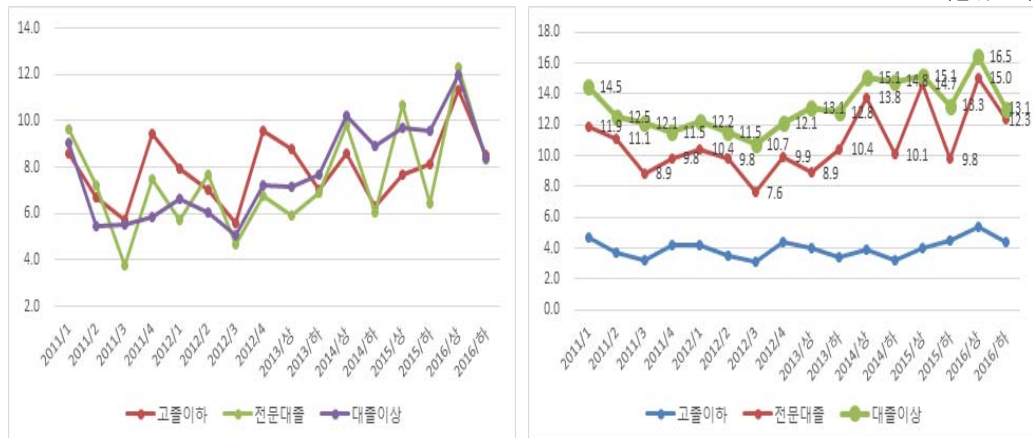
(단위: %)



주: 유휴화율 = [실업자 +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통학 + 취업준비생)] / 청년인구x100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그림 22] 청년(15-29세) 유휴화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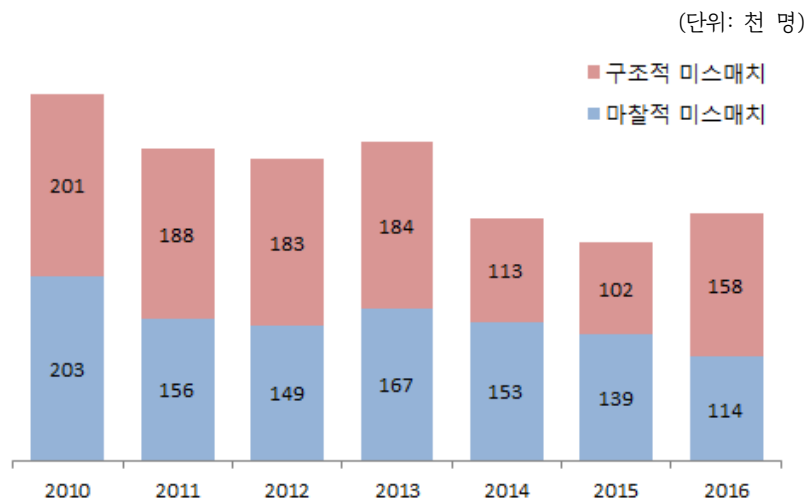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그림 23] 청년(15-29세) 학력별 실업률과 유휴화율 추이

4 일자리 미스매치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경기도의 미스매치 중 노동수요 부족을 나타내는 양적 미스매치 구직자가 2008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미스매치 구직자는 67만 명이며, 이 중에서 양적 미스매치 구직자는 39만 8천 명으로 2008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취업애로자 중 마찰적 미스매치(근로조건, 근무여건, 공간적 불일치, 정보부족 등에서 유발)의 비중은 17.1%(11만 4천 명)로 전국(20.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구조적 미스매치(숙련도 및 직군 간 불균형에 의해 유발)의 비중은 23.6%(15만 8천 명)로 전국(9.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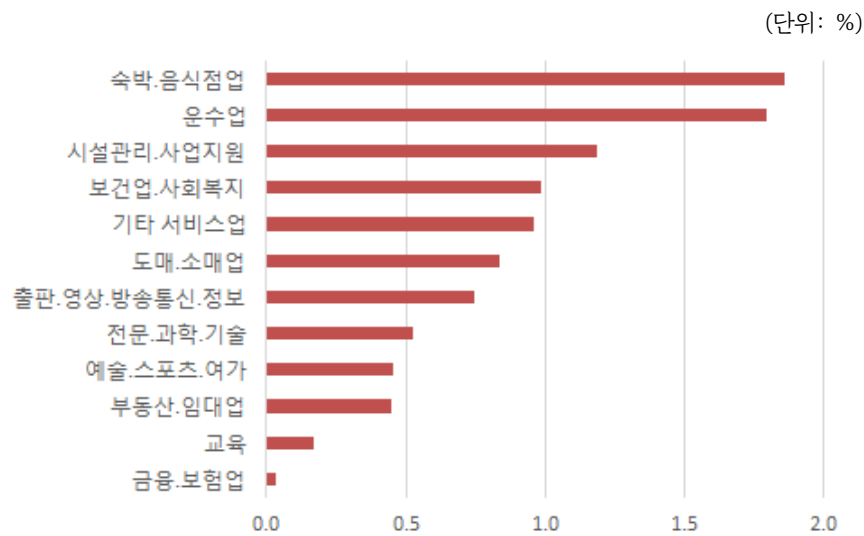


자료: 경기도일자리재단(2016) 내부자료.

[그림 24] 경기도의 미스매치 추이

경기도 내 미충원율이 높은 직종은 숙박·음식, 운수업, 시설관리·사업지원 등 근로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비숙련직종인데, 2016년 경기도 미충원율은 숙박·음식점업 1.9%, 운수업 1.8%, 시설관리·사업지원 1.2%, 보건업·사회복지 1.0%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반면, 금융·보험업은 미충원율이 거의 없으며, 교육 0.2%, 전문·과학·기술 0.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은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들은 미충원율이 거의 없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직종은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학력 청년층의 일자리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여건일 뿐 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로 연계할 정책수단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 직종별사업체조사.

[그림 25] 경기도 서비스업의 미충원율(2016년)

5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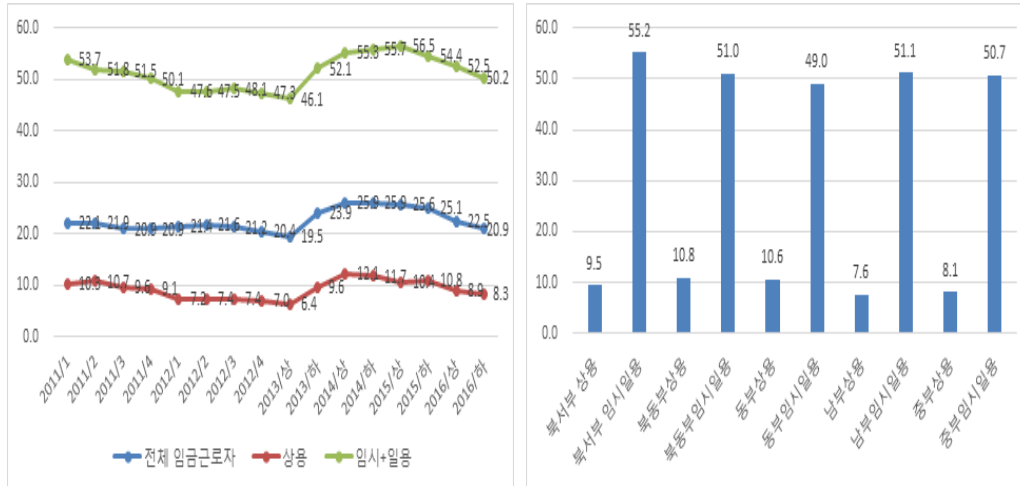
한편, 청년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 비정규직 문제는 청년층의 고용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이면서 청년층이 당면한 노동시장 현실이다. 경기도 저임금일자리(중위 임금의 60% 이하) 비중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간 낮은 편이지만, 2016년 하반기에 20.9%로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영세사업장이 집중해 있는 북동부권역과 동부권역에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일용근로자의 50% 이상이 저임금일자리이며, 업종별로는 가구 내 고용, 음식숙박, 예술여가, 사업시설관리, 보건복지 순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그림 26] 지역별, 경기도 권역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그림 27] 경기도 종사상 지위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6 경기도 청년층의 일자리 인식과 수요조사 결과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¹²⁾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조사대상자 3명 중 1명 이상이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라고 응답(34.5%)하였고, 생활비 마련(19%), 대학 등 교육문제(12.1%), 주거비용 조달(8%)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어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 또한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비중도 36.6%로 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와 진로·적성의 불일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또는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사업은 조사대상자의 5명 중 1명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다수인 78.2%가 청년사업을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청년대상 사업을 알고 있는 청년 262명(21.8%) 중 과반수인 63.4%의 응답자가 사업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인식과 체감성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은 홍보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낮은 체감성이 낮은 인식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청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정책 요구조사 종합순위로는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정책 59.9%, 주거/임대 정책 47.7%, 생활비 지원 정책 40.2% 순이다. 경기도 청년지원 정책의 우선적 대상자에 대한 종합순위를 보면 취약계층 미취업자(50.1%), 장기 실업자(31.8%), 모든 청년(28.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청년정책이 일자리, 주거, 생활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되, 취약계층 미취업자, 장기실업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2) 양정선 외(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V.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현황과 실태

1 경기도 청년정책 기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 및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경기도의 청년정책 기본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¹³⁾ 청년정책과 관련한 경기도의 조례는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2015. 8.13 제정)」, 「경기도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2011.11.9. 제정)」, 「경기도 청년 창업지원 조례(2015.11.4. 제정)」가 있다.¹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017년 7월에 발표한 경기도 청년정책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정책 추진목표로 참여, 도약, 자립, 향후의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각 목표별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참여목표는 청년참여 정책추진의 전략 목표하에 청년활동지원,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청년지원사업단 설치, 청년정책 통합 추진이다. 도약의 전략목표는 청년역량강화로 이의 추진전략은 교육비경감, 청년역량개발, 전문적 맞춤형인재 양성이다. 자립의 전략목표는 입직과 안정이며 이의 추진전략은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제고, 생활안정, 입직 전 체험과 멘토링, 적성파악과 진로결정이다. 끝으로 향후의 전략목표는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의 추진전략은 장거리 이동 지원, 주거안정 지원, 문화활성화, 권리보호이다. 이상과 같이 각 정책목표와 전략목표를 두고 총 15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진전략에 따라 총 10개 실국 15개 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31개의 청년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3) 본 연구는 청년일자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나 청년일자리문제는 일자리차원을 넘어 청년정책을 요구받고 있음이 현실이어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본격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경기도의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4) 경기도 조례에서 청년 연령의 범위는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및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19~29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으며,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20~39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다.

<표 69> 2017년 시행중인 경기도 청년정책

사업명	추진부서	분야
청년 따복공동체 사업	따복공동체지원과	참여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 사업	교육협력과	교육
경기도 학자금 이자 지원	교육협력과	생활
G-NEXT (게임산업육성추진)	콘텐츠산업과	문화
경기산업기술 교육센터 운영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육성사업	국제통상과	고용
농촌지도인프라구축지원(전문능력개발)	지도정책과	교육
농촌지도인프라구축지원(후계농업인력양성)	지도정책과	교육
경기도 영상아카데미	기획예산담당관	교육
경기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	콘텐츠산업과	고용
문화창조허브(판교, 광교, 북부)	콘텐츠산업과	문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기업지원과	고용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	기업지원과	고용
청년창업 SMART 2030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지원	공정경제과	고용
일하는 청년 통장	사회적일자리과	고용
자립지원사업	아동청소년과	생활
청년구직지원금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교육협력과	고용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	교육협력과	고용
대학생 공직자 멘토링	교육협력과	교육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	교육협력과	교육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북부환경관리과	고용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사업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
BABY2+ 따복하우스	따복하우스과	주거
송파학사 운영	교육협력과	주거
따복기숙사 사업	교육협력과	주거
청년 공유기숙사	주택정책과	주거
서울농생대 문화공간조성 (청년문화창작소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

자료: 경기도(2017.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2017년 발표한 동 자료에서는 현행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정비한 후 전략목표에 따른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청년지원과제로 17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 중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과제를 보면, 사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 맞춤형 인력 양성과 현장적합 인재교육 사업과 장기 구직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청년 구직 지원(1년 이상 장기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컨설팅 지원) 컨설팅 대상자 중 소득 8분위 이하 청년에게 구직지원금 우선 자격 부여 사업이 대표적이다.

청년정책의 지원체계를 보면 정책총괄은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청년지원팀)가 담당 하며, 실국별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경기도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대내외 청년정책 현황관리 및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정책의 심의의결은 경기도 청년정책 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심의의결, 정책자문, 사업 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위원회(청년행복위원회, 따북청년포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정책은 청년구직지원금이나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창업지원 사업 등 다음에서 논의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사업의 많은 부분을 경제실이 총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년정책의 청년 일자리정책의 영역이 일부는 중첩되지만 종합적인 청년일자리 정책을 포괄하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경기도 청년일자리 대책 현황

가. 총괄

경기도는 청년 인구의 1/4 정도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유사한 청년 고용 관련 정책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정책, 청년고용지원금사업, 청년취업지원서비스,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 등 청년고용 정책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창업 빌리지모델, 청년고용 플랫폼(www.jobaba.net) 등 지역 및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역발전과 연계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70>은 통상적으로 일자리 사업의 범주를 구분하는 분류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사업 수는 모두 60개이다. 직접일자리사업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등 모두 16개 사업이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운영 지원 등 24개 사업이다. 고용서비스사업은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 5개 사업이며, 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이고 창업지원사업으로는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등 10개 사업이다.

사업예산을 보면 모두 2조 5,728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이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창업지원 20.4%, 직접일자리 사업 13.5% 순이다.

<표 70> 중앙정부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2017년)

(단위: 개,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수(개)		예산(억원)	
직접일자리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16	26.7	3,480	13.5
직업능력개발	청년취업아카데미, 일학습병행운영지원 등	24	40.0	12,040	46.8
고용서비스	청년취업진로및일경험지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	5	8.3	2,657	10.3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5	8.3	2,290	8.9
창업지원	창업성공패키지, 창업선도대학 등	10	16.7	5,261	20.4
	계	60	100.0	25,728	100.0

자료: 고용노동부

<표 71>은 같은 기준에 따른 2017년 경기도(광역기준)에서 수행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 수를 보면 직접일자리 창출 99개, 직업능력개발 훈련 22개, 고용서비스 17개, 고용장려금 2개, 창업지원 26개, 일자리인프라 구축 26개 등 모두 192개 사업이다.¹⁵⁾

일자리 예산을 보면 총 5,344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투입예산인 전체의 72.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예산의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가 39.3%이고 도비 27.1% 그리고 시군비 33.6%이다.

<표 71> 2017년 경기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17년 목표(명)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소계	86,661	534,400	210,274	144,619	179,507
직접일자리창출(99)	22,597	384,642	169,366	66,461	148,815
직업능력개발훈련(22)	6,035	35,367	16,071	14,609	4,687
고용서비스(17)	45,136	27,680	11,282	13,942	2,456
고용장려금(2)	5,448	17,433	5,962	9,484	1,987
창업지원(26)	7,445	34,876	2,707	26,755	5,414
일자리인프라 구축(26)	-	34,402	4,886	13,368	16,148
	'17년 목표(비중)	사업비(비중)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소계	100.0	100.0	(39.3)	(27.1)	(33.6)
직접일자리창출(99)	26.1	72.0	(44.0)	(17.3)	(38.7)
직업능력개발훈련(22)	7.0	6.6	(45.4)	(41.3)	(13.3)
고용서비스(17)	52.1	5.2	(40.8)	(50.4)	(8.9)
고용장려금(2)	6.3	3.3	(34.2)	(54.4)	(11.4)
창업지원(26)	8.6	6.5	(7.8)	(76.7)	(15.5)
일자리인프라 구축(26)	-	6.4	(14.2)	(38.9)	(46.9)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15) 자료의 집계 기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쉽지 않으나 개별 사업들의 현황을 볼 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매칭사업이 거의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누락되어 있는 사업도 상당수에 이릅니다.

<표 72>는 경기도 청년일자리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앞에서의 분류와는 다른 체계인데 이는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경기도 청년일자리 사업은 모두 69개 사업이며 이 중 창업지원사업이 29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이 15개 사업, 그리고 대학중심 일자리 사업이 7개 사업 등이다.

사업예산을 보면 총 1,547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사업유형별로 보면 창업지원사업 예산 비중이 3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과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사업이 각각 22.7%와 21.1%로 뒤를 잇고 있다. 예산주체별 매칭 비율을 보면 전체예산의 60.0%가 도비예산이고 국비예산비율은 25.8%이다.

<표 72> 경기도 청년일자리 사업 현황(2017년)

(단위: 백만원, %)

	사업수	예산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고교생 직업마인드 교육 및 취업활성화	4	912	140	772	-	-	-
고용서비스	4	6,671	2,061	4,610	-	-	-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	4	32,577	9,974	15,998	208	6,397	-
대학중심 일자리	7	7,356	3,190	1,513	375	1,620	657
직업능력개발 훈련	15	35,044	22,256	11,906	858	-	23
창업지원	29	53,998	2,225	39,819	4,434	3,760	3,760
취업지원	6	18,132	-	18,132	-	-	-
계	69	154,690	39,846	92,749	5,875	11,777	4,440
	사업수 (비중)	예산(비중)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고교생 직업마인드 교육 및 취업활성화	5.8	0.6	(15.4)	(84.6)	-	-	-
고용서비스	5.8	4.3	(30.9)	(69.1)	-	-	-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	5.8	21.1	(30.6)	(49.1)	(0.6)	(19.6)	-
대학중심 일자리	10.1	4.8	(43.4)	(20.6)	(5.1)	(22.0)	(8.9)
직업능력개발 훈련	21.7	22.7	(63.5)	(34.0)	(2.4)	-	(0.1)
창업지원	42.0	34.9	(4.1)	(73.7)	(8.2)	(7.0)	(7.0)
취업지원	8.7	11.7	-	(100.0)	-	-	-
계	100.0	100.0	(25.8)	(60.0)	(3.8)	(7.6)	(2.9)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이하에서는 사업유형별로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 고교생 직업마인드 교육 및 취업활성화

고교생 직업마인드 교육 및 취업활성화사업은 모두 4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표 63>과 같다. 이 중 고교취업활성화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수행하며 고교 특성에 맞는 직무교육 2, 3학년들의 취업에 필요한 전반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성화고생 나노기술 인력양성사업과 3D프린팅 기술지원 역량강화 특성화고 전문교육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73> 고교생 직업마인드 교육 및 취업활성화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	참여자수
고교취업활성화	경기도일자리재단	370	24개교 협약, 교육인원 589명
특성화고생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나노기술원	480	도내 특성화고교 3학년생 60명
3D프린팅 기술지원 역량강화 특성화고 전문교육	(재)경기테크노파크	12	3개교(16년 9월 기준)
진로탐색 직업의식 향상교육	도내 25개 공공기관 및 우수 민간단체	50	도내 중고생 약2,500여명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다.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제외하고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은 도내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1) 취업 교육생 대상 NCS 기반 직무능력평가 실시 및 인적성 검사, 2) 기업대상 채용네트워크 제공 및 면접관교육 실시, 3) 참여기업-취업교육수료생 일자리매칭, 4) 직무교육참여대상 대학학점제 연계 및 미취업자대상 타기업 매칭 등 사후 관리한다.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은 도내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인턴을 선발함으로써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현장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1) 취업역량강화 교육(취업특강 3회, 취업컨설팅 2회), 2) 도내 주요 현장 체험 2회, 3) 청년취업률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1-2회가 주요 사업내용이다.

<표 74> 고용서비스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	참여자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2,556	-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사업 대행기관 공모 위/수탁	400	도내 청년구직자 300명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3,505	청년인턴(650명(3~6월/9~12월 : 350명, 7~*월 :300명))
경기섬유 패션분야 해외인턴사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10	섬유 해외인턴 인재양성(30명) 등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라.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는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I,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II, 청년근로자 고용환경개선, 파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있다.

<표 75>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환경개선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	참여자수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I	경기복지재단	700	2016년 실적 : 500명 모집/ 3,301명 접수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II	경기복지재단	14,256	2016년 실적 : 일하는 청년통장II 1,000명 모집/ 5,337명 접수
청년근로자 고용환경개선	도자체	16,636	-
파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경기도시공사	985	2017년 사업량 : 도내 파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은 도입 2년 만에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청년지원정책이 됐다. 2016년 11월 실시된 이후 2017년 하반기 일하는 청년통장 공모에는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몰려 역대 최고인 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7년 5월 상반기 공모 당시 기록한 4.3 대 1의 두 배가 넘는 경쟁률이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경기도 지원금,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도는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전략과 인기 팟캐스트에 청년통장 정책이 소개되면서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사업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I>

- *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1인 가구 기준 130만원)
- * 저축기간 : 36개월
- * 지원내용 : 3년간 근로 유지 시 약 1,000만원 수령(500명*100,000원*12개월)
- * 저축용도 :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등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II>

- *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1인, 월130만원/ 4인, 월351만원)
- * 모집가구 : 10,000명
- * 저축기간 : 36개월
- * 지원내용 : 3년간 근로 유지 시 약 1,000만원 수령
- * 저축용도 : 주거, 교육, 창업 결혼자금 등
- * 근로장려금매칭비: $10,000\text{명} \times 172\text{천원} \times \text{평균}7.3\text{월} = 12,556,000$

끝으로 파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파복하우스 및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 대학중심 일자리 사업

대학중심 일자리 사업은 대학창조일자리 센터 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이 있다. 이 중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지원은 1) 대학 내 취창업 인프라 구축 및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 확대, 2)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타대생, 지역 청년 구직자 등에 대한 취창업 지원, 3)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자치단체, 고용단체 등과

청년고용 거버넌스 구축 운영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공학교육 혁신센터 2단계 지원사업은 1) 캡스톤 디자인: 융합능력을 갖춘 수요 기반의 창의적 공학인재 육성, 2) 기업연계형 프로그램: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산학협력 기업밀착형 프로그램, 3) 성과 확산활동: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 사업성과 및 홍보 확산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76> 대학중심 일자리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	참여자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도내 5개 대학(가천대, 경기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 국제대)	2,380	도내 5개 대학
시화반월산단 산학융합지구 성과활용 지원	(사)경기산학융합본부	1,000	경기도, 시흥시, 본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마이스아카데미 운영	경기도 내 마이스 관련 대학	150	마이스 교육 4개 프로그램 운영
			1)경기MICEAcademy50명
			2)찾아가는MICEAcademy업체 관계자300명,공무원100명
			3)경력단절여성MICEAcademy 25명
			4)다문화및외국인유학생MIC EAcademy40명
공학교육혁신센터 2단계 지원사업	도내 10개 대학(가천대, 경희대, 단국대, 대전대, 명지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경대, 산기대, 한양대)	2,696	도내 10개 대학
대학생 공직자 멘토링	경기도	10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100명, 대학생 200여명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경기도, 도내대학, 기업	860	5개 대학(대전대, 오산대, 여주대, 동서울대, 수원과학대) 150명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경기도, 도내대학, 기업	260	2개 대학 50명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바.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경기도기술학교 직업훈련사업, 청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다. 이중 지역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경기도 인자위에서 인력 및 훈련수요를 조사·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가장 잘 수행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역 맞춤형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지도사 배치지원(공공청소년수련시설)사업은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통해 유능한 지도사의 수련시설 근무를 적극 유도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 활동 프로그램 질적 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기금/직접)은 지역별 사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고용창출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77> 직업능력개발 훈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	참여자수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	두원공과대학교 파주캠퍼스	1,920	5개 교육과정 260명 기술/기능 양성 훈련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18,163	한국 폴리텍대학교 화성캠퍼스 등 9개 공동훈련센터 -16년9월기준6,393명교육 (양성훈련(구직자) 1,721명, 향상훈련(재직자) 4,672명)
가상·증강현실 전문가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3,096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210	총 2기, 80명 이상
청년+4 Trade Manager 육성	경기도	400	150명(청년/대학생/외국인 유학생 125명, 다문화인 25명)
경기해양레저 인력양성	주관사	580	해양레저 정비 기능인력 60명 내외 육성
경기도 기술학교 직업훈련	경기도일자리재단	3,825	재직근로자교육 (학교 방문 15과정, 1205명), 재직자교육(지역순회 25과정, 375명), 주민교육(학교방문 8과정, 180명)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	참여자수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3개 시군	117	7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경기콘텐츠진흥원 (빅파이추진단)	660	200명
사이버보안밸리 전문인력 양성	-	200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시군농업기술센터	200	4개 지역
청년지도사 배치지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수원시 등 20개 시군	1,176	20개 시군 57개소(1급 1명, 2급 54명, 3급 2명)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47	청년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150	경기북부 소재 환경학과 대학 및 특성화고교 - ※대진대, 신한대, 의정부공고, 일산고(대학2개교, 특성화고 2개교)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 사업(기금/직접)	경기도	4,300	2,400명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사. 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사업 중 사업수도 29개로 가장 많고 투입예산비중도 가장 크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창업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창업아이템이 참신하고 사업 가능성이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대학 및 연구소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초기기업에게 컨설팅, 판로개척, 경영지원, 기술지원 등 전략적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및 창업지원사업은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초기 스타트업 교육공간 준비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해외투자자, 바이어네트워킹 지원 및 데모 데이 등 투자유치를 지원으로 하고 있다. SW 융합클러스터 지원사업은 판교 핵심 인프라 구축, 멘토링·컨설팅·교육·R&D·기술사업화 등 글로벌 창업지원, 비즈니스 커뮤니티 및 포럼 연합 활동을 통해 융합업종 기업간 교류 활성화, SW융합 R&D 생태계 추진, SW교육

자문위원회의 연합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수요 맞춤형 기술, 직무 교육 운영 및 전문교육 이수자와 구인기업 인력 채용 매칭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78> 창업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	참여자수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50	
창업프로젝트 추진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2,600	도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190개사, 20개사)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도내 49개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청 지정)	1,313	도내 39개 창업보육센터
창업베이스캠프 운영 지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650	창업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지원(1,100명)
창업기업 글로벌사업화 지원	경기 테크노파크	500	도내 창업기업 10개사
청년 해외 역지구 창업지원	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450	2016년 실적 : 도내 청년 20명 창업지원 및 US\$488천달러(549백만원) 매출 달성
경기도 일자리창출 특별협약보증		5,000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8,100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사업(next 점프스타트업)	차세대융합 기술연구원	700	2016년 실적 : 도내 거주 또는 도내 대학(원)교 재학생 창업 40개팀 선정(사업자등록 30건, 지식재산권 출원 32건, 매출액 151백만원, 투자유치 20백만원)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 지원	한국나노 기술원	480	2016년 실적 : 20개 기업 지원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및 창업지원	경기과학기술 진흥원	2,000	2016년 실적 : 스타트업 개소 및 운영, R&D 및 스타트업 지원 기관 입주
SW 융합클러스터	경기과학기술 진흥원	4,000	2015년 실적 : 5,394명 고용창출, 35개사 창업지원, 15,249 교육수료
섬유·가구 디자인창작공간 조성	양주시, 포천시	880	섬유디자인 창작 공간 20개실 및 공동 작업실 제공(양주), 목공가구 관련 취창업 준비자 20명 및 전문가 입주활동 희망자 10인 지원, 경기가구 창작공간 장비 구입(포천)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	참여자수
푸드트럭 임대사업 지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0	사업량 : 임대 푸드트럭 20대 관리 및 운영지원
푸드바이크 비즈니스 공모전 추진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50	공모전 1회
서울 농생대 문화공간 운영	경기문화재단	2,800	경기청년문화창작소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청년문화기획자양성,청년문화활성화,청년창업 지원,어린이책놀이터,생활공방,청소년프로그램, 기획전시,작가공방,상상실험실,주민협업(체험) 프로그램, 창작공방(6개)등
경기문화재단 북부문화사업단(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170	
G-NEXT(게임 산업 육성) 추진	경기콘텐츠 진흥원	3,000	*게임 창조 오디션 개최 : 4회(40개팀 본선 진출 → 20개팀 선발) ※ 1회-'15.6.30(상용화), 2회-'15.12.2(아이디어), 3회-'16.5.3(아이디어), 4회-'16.7.13(글로벌) *오디션 선발업체 국내외 퍼블리싱 계약 체결 : 6건11억원 ※ 한국 2개(6억), 네덜란드(2억), 홍콩(2억), 독일·말레이시아(1억) *중소 게임업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55개사 ※ 수출계약 추진액 : 8,181억불(약 940억원)
경기문화창조허브운영	경기콘텐츠 진흥원	2,500	2016년 실적 : 신규창업 101건, 일자리창출 296개, 스타트업 지원 1,377건, 이용자 11,149명 / 외부(VC, 펀드 등) 투자자금 8개사 22.8억원 유치, 노동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년 연속(2014, 2015, 2016) 선정 등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운영	경기콘텐츠 진흥원	2,900	2016년 실적:신규 창업 55건, 일자리창출 147개, 스타트업지원 720건, 이용자 16,970명 / 밀리터리 창업 스타트업UP 프로그램(현역군인 70명, 3D프린팅 교육), 스토리텔링마케팅 협력 프로젝트(7개 지자체 및 기업 선정), 경기북부 10개 제조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등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	경기콘텐츠 진흥원	2,000	사업량 : 경기서부권역 경기문화창조허브 1개소 운영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	참여자수
만화·애니·영화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애니메이션 인재육성)	경기콘텐츠진흥원	200	애니교육 52회 360명 참여, 11개국 20팀 참여 학술포럼, 공모전 1,041명 응모 164명 수상
차세대 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경기콘텐츠진흥원	1,000	2016년 실적 : 공기관 업무대행 협약 체결, 경기도 영상 크리에이터 파트너스 출범식(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파트너스 참가기업(유튜브, 카카오TV, 다이아TV 등))
경기도 청년신진작가 공모전	경기문화재단	150	사업량 : 작품구입 및 전시회
경기도 아트마켓	경기문화재단	50	사업량 : 총 50팀 내외
			*(대학(원)생)도내예술대학네트워크구축
			*(청년작가)도내전문작가(졸업한뒤3~5년이내 의청년그룹을지칭함)
			*(스타트업)예술관련창업동아리,문화중심스타트업
콘텐츠전용펀드 조성		11,520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시군	85	2016년 실적 : 9개 시군 17명
따복공동체 청년 등 특화사업 발굴	공동체활동조직	150	사업량 : 청년 따복공동체 프로젝트 1식
사회적경제 창업지원(청년, 베이비부머)	시군	350	2016년 실적 : 사업대상 시군(11개) 사업비 교부 및 교육 추진/2017년 사업량 : 14개 시군 베이비부머, 청년 등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운영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아. 취업지원

취업지원사업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등 모두 6개 사업이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사업은 높은 청년 실업률과 과도한 취업준비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의욕 고취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 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은 도내 고학력의 청년의 꿈을 해외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리더로의 성장지원 및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교육기관 연계센터 구축 및 사업전담인력을 운영 중이다. 따복기숙사 운영사업은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창업취업지원, 인재육성(어학특강 등), 진로상담 멘토링 등도 수행한다.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청년진로체험프로그램)사업은 굿모닝하우스 활성화를 통한 도민 참여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굿모닝하우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층별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상설 운영하여 도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정착하며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계층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서특별전 등 특화행사 추진, 공간변화 콘텐츠 개발, 북카페 조성을 내용을 하고 있다 .

<표 79> 취업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수행기관	예산	참여자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16,500	1차 5,392명 신청, 3,240명 선정 / 2차 11,646명 신청, 1,900명 선정
민간참여형 경기일자리카페 지원사업	사업대행기관 공모 위,수탁	100	도내 일자리카페 30개소 운영
청년일자리 제공 및 취업성공 활성화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12	해당없음
경기 청년해외진출지원사업	경기도일자리재단	500	2016년 추진실적 없음/2015년 실적 : 3개국 45명 해외진출 취업지원 (미국 15명, 중국 7명, 캐나다 23명)
따복기숙사 운영	경기도	804	2017년 사업량 : 따복기숙사 278명 입사(2017.04~2018.03)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청년진로체험프로그램)	경기도	216	2016년 실적 : 굿모닝하우스 개장(04.26)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35회/2,935명), 작은결혼식운영(15회), 돛자리소풍(4회/4,000여명)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

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취업지원

경기도는 2018년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사업을 추진예정이다.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3가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임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를 해소 시킴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신규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청년 중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0>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명	사업내용
최대 1억원 자산을 형성하는 청년연금	○ 개인 10~30만원 납부에 대한 경기도 1:1 매칭 지원금 지원 ○ 사업기간 2018~2028년(총 11년)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근로자 경기도 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규모 1차 3,000명 / 2차 3,000명 ○ 선발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총선발인원의 50%를 순위 내 제조업 재직자로 우선 선발
중소 제조 근로장려지원금 청년 마스터 통장	○ 경기도 2년간 월 30만원 ○ 사업기간 2018년~2020년(총 3년)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근로자 경기도 내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규모 1차 5,000명 / 2차 7,500명 ○ 선발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근로자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지원, 연 최대 120만원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연 8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연 100만원, 24개월 이상 연 120만원) ○ 사업기간 2018~2019년(총 2년)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근로자 경기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주 36시간 이상 근로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 ○ 지원규모 1차 30,000명 / 2차 30,000명 ○ 선발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총선발인원의 50%를 순위내 제조업 재직자로 우선 선발

자료: 경기도일자리재단 내부자료

Ⅵ.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1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기존 평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그 동안 많은 평가가 이루어져 온 데 비해 경기지역에서 수행하는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년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만 청년사업들을 포괄하고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는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 사업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16)의 연구결과에 제시된 현행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사업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타겟팅이 분명하지 않은 사업운영방식이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많은 사업들이 기존 기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되어 있는 반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개인이나 정책사각 지대에 대한 지원은 불충분하다. 둘째, 분절성과 파편성이다. 각 부처가 각자 예산책정, 사업추진, 전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단절성과 파편성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성과 관리의 미흡이다. 통합된 성과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개별 사업추진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넷째, 양적 비중의 특징으로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16)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진단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경제의 신진대사 혹은 경기변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의 유연성 제고, 둘째, 정부주도성을 완화하고 감독기능 강화를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지원, 셋째, 범부처 차원의 성과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공통성과지표를 정립, 넷째, 지원규모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다섯째, 일자리 사업관리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다(이규용, 2016).

이러한 문제 진단과 제언은 기존에 제기된 논의의 연장에서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금 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 사각지대의 문제나 사업운영의 단절성, 파편성과 같은 전달체계 문제 등은 기존에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배분의 개선필요성도 종종 언급되어 온 이슈들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한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 사업의 유연성 제고,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의 개선 또한 지속적으로 언급 되어 왔다. 다만 공통된 성과지표를 통한 종합적인 사업관리는 다소 논쟁적이다. 한국개발 연구원(KDI) 보고서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지역단위의 일자리 정책 이슈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¹⁶⁾

한편, 거버넌스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다수의 부처에서 분산하여 추진되고 있고 같은 부처 내에서도 소관이 다름으로 인해 예산책정, 사업추진, 전달체계의 상이성으로 사업의 분절성과 파편성을 초래하는 문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문제점으로 종종 지적되어 온 이슈이다. 이는 주로 전달체계의 중복성이나 비효율성의 관점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비효율성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개입이고 이러한 개입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방식(정책수단)에 따라 분류한 것이 각 정책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개별 사업들은 각각의 사업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추진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의 목표 또는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사업별 다양한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대상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규용, 2016).

여기서 정책과 사업을 구분하자면 청년고용정책을 훈련이나 보조금 또는 창업지원정책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개별프로그램들을 사업이라고 편의상 정리할 수 있다. 가령, 청년고용활성화나 여성경력단절 방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격차 해소, 실업률 완화, 청년니트 완화, 노동시장 경력형성지원,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당면한 노동시장 정책목표가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하나의 사업일수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청년고용정책을 예로 들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고용문제는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 청년 니트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둔화, 이중구조 문제, 고학력화 문제, 미스매치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측면이 크다. 청년고용정책의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대부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예산을 증가시키면, 그리고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면 청년일자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안은 개별사업 예산확대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다. 가령, 사업수혜대상을 더 확대하기가 어렵거나, 사업의 성과가 낮거나 예산의 사중손실이 커서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 즉 개별사업의 예산규모를 확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을 벗어나는 것이다. 개별 사업의 유효성이나 성과에도

16) 이에 대해서는 이규용외 (2014), 「한국의 지역고용전략Ⅱ-실행전략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을 참조

불구하고 청년고용대책을 통한 청년고용문제의 완화가 체감성 있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정책해결방안을 개별 사업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시적 프로그램의 성과중심 논의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고용대책이라는 종합적인 틀에서 일자리 사업이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문제 원인별 적절한 대응 및 나아가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가능성을 포괄하여 촘촘히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면 개별사업의 성과제고가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성과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다수의 프로그램이 현재와 같은 사업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 예산의 비효율성도 제기되고 소기의 성과달성도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의 신설이나 예산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청년고용대책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업들을 종합평가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청년고용문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실행프로그램으로써 작용하도록 사업을 운영해야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업성과 관리가 개별 프로그램평가를 넘어 정책대상이나 혹은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게 작동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고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재정립은 정책대상의 정책목표나 혹은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의 강화와 전달체계의 융합적 설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의 유연성을 요구한다. 모든 사업을 여기에 맞추어 운영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정책개입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청년일자리 사업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2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

앞의 논의를 가져 오면 경기도 청년대책에 대한 검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경기도 청년고용정책의 기조와 이러한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가이다. 둘째, 다수의 개별 프로그램들의 성과 효율성으로 이는 프로그램의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설계의 적절성, 전달체계와 같은 개별 사업자체의 효율성 외에 사업간 연계가 가능한 융합적 설계 가능성이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 평가해보도록 한다.

가. 청년정책 기조와 청년일자리 사업

처음 질문인 청년고용정책의 기조와 이러한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경기도 청년고용문제의 큰 특징은 경기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로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미스매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성격의 문제이고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와 연계 협력 또는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기조의 설정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 문제와 관련한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일하는 청년시리즈, 청년구직지원금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사업초기인 관계로 아직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경기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는 추후 과제로 볼 수 있다.

둘째, 경기도 지역별 노동시장 성과차이를 반영한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이다. 경기도의 권역별 혹은 기초자치단체별 일자리 성과를 보면, 해당 권역이나 지역의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의 특성에 따라 일자리 정책수요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표준화한 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이 문제는 광역자치 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기도의 경우 31개 자치단체나 혹은 5개 권역, 혹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 구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의 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정책의 설계 및 예산 배분이 요구되나 현재의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에서는 이러한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개별청년 일자리사업의 성과효율성

두 번째 질문인 개별사업의 성과효율성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심층평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심층분석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개요를 중심으로 대략적인 평가를 수행해보고자 한다.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매우 많은 사업들이 있고 이들 사업들은 노동시장 이행 단계나 목표 집단별 정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일자리 사업을 일자리 정책 수단 및 목표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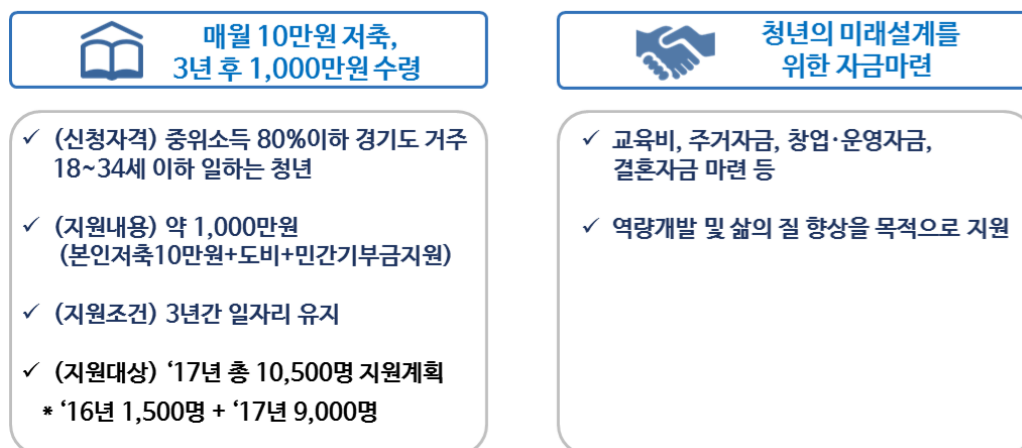
첫째, 청년일자리 기회 제공과 창출 사업이다. 경기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청년 창업과 해외취업 지원 정책 등이 있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초기 운영자금을 공급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정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청년의 창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광교밸리 창업허브 조성 등에도 청년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청년 해외 취업 정책으로 경기청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인턴) 이수 이후에 해당 국가의 기업체나 기관에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도내 청년창업정책은 일자리 사업 중 가장 많은 사업 수와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컨트롤 타워기능 구축, 창업과 취업 간 연계, 창업 실패에 따른 패자 부활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정책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로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액의 현금(체크카드)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년(18-34세)에게 구직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상은 도입 초기 중위소득 80%에서 2017년에는 중위소득의 150%까지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6개월 간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장기 구직자 문제는 일반적인 실업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청년 구직지원금은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림 28]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

셋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으로 이는 취약계층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일하는 청년 통장」을 운영하여 취업·근로 의지를 고취하면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18~34세) 대상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도 지원금 및 민간기부금 등을 매칭하여 3년 후 1,000만원 지급한다. 2016년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2017년까지 총 10,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림 2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넷째, 경기청년뉴딜사업으로 청년층(대학, 특성화고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 그리고 대학, 특성화고, 기업수요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역량에 맞는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주관하여 도내 거주 대학, 특성화고 및 35세 미만 청년 구직자 대상으로 연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45개교 10,360명 확대 예정이다.

다섯째,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서비스 정책으로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사업을 꼽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 청년의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권역별로 대학을 지정하여 대학이 청년 고용의 전달체 역할 수행하도록 하였고 진로지도 강화, 취업준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채용 정보 제공 등 대학의 취업·창업지원 기능의 원스톱 창구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이후 가천대 등 10개 대학 참여하였으며, 2017년의 경우 총 23억8천만원 예산(국비 11억, 도비 2억9천, 시군비 2억3천, 대학자부담 6억5천 만원) 정도로 운영 중이다.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은 대학생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이론과 현장 병행 취업지원 사업이다. 전문대학 취업지원 패키지사업은 도내 전문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대학생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 사업은 도내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청년 인턴을 선발함으로써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취업역량 강화 교육, 도내 주요 사업현장 체험, 세미나 등을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턴들은 도정홍보 및 아이디어 बैं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년지원서비스가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권역별 청년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여섯째, 장기구직 청년 정책 대응이다. 장기구직 청년 컨설팅사업은 1년 이상 장기 구직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청년 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구직청년층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컨설팅 대상자 중 소득 8분위 이하 청년에게 구직지원금 우선 자격을 부여한다.

일곱번째,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다. 경기도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고용서비스 플랫폼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설립하였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의 일자리 관련 공공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로 경기도가 총 120억 원을 출자·출연한 비영리법인이다. 기존 일자리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기술학교 등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비롯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민-관을 연결하는 허브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청년 및 대학생 인턴지원사업, 경기청년뉴딜사업, 청년고용플랫폼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으로 경기지역에서 수행하는 청년사업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개별 사업의 설계에서 지역의 산업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동시장 이행 단계별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공급자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참여자의 체감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노동시장 이행단계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사업들에 대한 심층평가나 사업간 연계 모델 및 이를 위한 사업설계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창업지원시책이 많지만 청년창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기능이 미흡하다. 다섯째, 청년 니트 및 유휴화 문제이다. 이 문제는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사각지대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지원, 일자리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니트 문제는 이러한 접근을 벗어나 지역차원에서의 사회통합정책 관점에서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Ⅶ. 경기도 청년일자리 정책 방향

1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과 정책방향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2013년 이후 중앙정부는 11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마련,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등 인프라를 확대하여 청년고용대책 실행을 뒷받침하여 왔으나 청년고용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청년 정책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보면 기존 정책이 훈련, 구직알선 등 공급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면서 일자리 창출 격차완화 등 수요측면의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청년 중 절반 이상이 정부 정책을 몰라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된 정책이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추진되어 저학력자 등 더욱 취업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 늘리기, 격차완화 등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2017년 3월 22일에 발표한 정부자료¹⁷⁾에 따르면 기존의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결과의 핵심은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정책의 개선방향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1)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청년고용대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① 취업취약청년이 고용시장에서 이탈·도피하지 않도록 고용서비스 등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지원, ② 최저임금제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열정페이 방지를 위한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강화하며 불공정 채용관행을 근절, ③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창업의 문턱이 낮아지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디딤돌 역할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① 경제 활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를 통한 고용 기회의 확대, ③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노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충원 지속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대책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발표한 대책이며 새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본 연구수행의 현 시점에서 아직 종합적인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새 정부의 청년정책방향은 2017년 10월 18일에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자리 정책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정책들은 당연히 청년고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청년 정책의

17) 관계부처 합동,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2017. 3.22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¹⁸⁾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직업훈련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한다. 둘째, 청년 삶의 질 개선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 제공을 위해 구직-채용-근속 등 단계별·부문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다. 이를 위해 구직촉진수당 신설, 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해외진출 활성화,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조정,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규모 확대 등을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18) 동 자료에서 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1/4분기에 ‘청년 일자리 촉진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다.

2 경기도 청년고용정책 방향

가. 지역단위의 청년고용정책의 모델 개발 원칙

OECD는 지역경제 및 고용개발(LEE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국의 지역사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용창출 방안 및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김문희, 2015: 102). 2014년 멜버른에서 개최된 G20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발간된 보고서(OECD, 2014)에서 역시 지역단위 청년고용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정책원칙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OECD, 2014: 11~12).

이러한 정책 틀은 국내의 지역 차원에서의 일자리 정책방향에 매우 유효한 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몇 가지로 다시 요약하면 첫째, 지역고용여건에 부합하는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개발이다. 둘째, 장소성에 기반한 지역노동시장 참여자의 노동시장 이행촉진 및 지원정책이다. 셋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다. 넷째, 지역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정보인프라의 구축 및 이에 기반한 정책방향의 모색이다. 다섯째, 일자리 정책의 거버넌스 구축 및 파트너십의 강화이다.

〈표 81〉 국가적·지역적 수준의 행동지침을 위한 정책원칙

1. 국가적 고용 및 훈련정책의 틀을 보다 지역노동시장 상황에 적합하게 만들 것
2. 보다 통합된 정책과 효과적인 전략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내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지원할 것
3.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며 분야 간 이동이 가능한 노동력을 만드는 데 우선권을 줄 것
4. 포괄적인 지역 직업정보 및 고용경로와 잘 연계된 훈련을 만들어냄으로써 생활주기를 통한 노동시장 이행을 지원
5. 작업장 내 보다 원활한 기술 활용을 위해 고용주들과 노동조합이 함께 일함으로써 생산성과 혁신을 고취
6. 노동력에서 배제될 수 있는 청년, 여성, 장년층, 장애인 및 이민자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노동장벽을 낮추기 위해 장소를 기반(place-based)으로 하는 계획을 개발
7. 지역적 수준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적합한 사회적 보호를 보장
8. 지역경제 내·경제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 공공시설 및 기관에 투자
9. 사회적 기업 분야 및 혁신적 접근방식들에 대한 개발 지원
10. 지역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근거에 기반한 정책 지원

자료: OECD(2014), p.11~12.

나.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정책강화

청년일자리 정책이 지역 차원에서 유연화의 긍정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와 타겟팅의 기초로서 지역의 세부적인 요구(필요)를 확인하는 것과 실행과 자원배분에서의 선별과정이 요구된다. 또한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의 정책들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정책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욕구와 능력, 그리고 특수한 상황들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책프로그램들이 유연하고 다양한 수단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 장의 분석에서 보듯이 경기도는 권역별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규모가 가장 높은 남부권역은 다른 권역들보다 높은 학력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졸자의 비중이 35.5%로 경기도 평균 33.0%를 상회하고 있으며 다른 권역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 이상 청년층 비중도 4.6%로 다른 권역들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중부권역과 북서부권역은 경기도 평균 학력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반면에 동부와 북동부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학력수준은 다른 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학력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북동부권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경우 대졸자의 비중은 27.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반면에 전문대졸자 비중이 거의 40%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졸자 비중도 30.0%로 다른 권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부권역도 북동부권역과 마찬가지로 대졸자 보다는 전문대졸과 고졸자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청년층의 분포는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지리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상대적으로 대도시 인근지역이거나 지역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경우 대졸자 이상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 취·창업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창업정책의 경우 개별 창업자의 니즈가 아닌 지역의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는 청년 창업촌을 설립하여 창업과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는 등을 지역 및 산업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북부권역 내 침체되어있는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인력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청년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권역에 청년고용지원금의 우선 배정,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확대 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7).

또한 경기도 권역 전체적으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으나 지역단위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정비 및 관리할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역의 인력 양성 및 고용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업부,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다양한 부처들이 참여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청으로 해당 기관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지방 노동청 및 고용지원센터이나 현재 그 기능 및 역량의 부족과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정부 정책 기조에 편성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과중한 업무와 지역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원들의 부족으로 전문화된 인력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중간조직으로서 허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복합적 지원방안 필요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취약청년층의 소득 보장과 자산 형성 체계의 구축에 대한 논리적 체계의 구축 및 이에 기초한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청년구직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소득과 자산 형성의 제도적인 틀은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사한 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중복성을 피하면서도 경기도만의 청년소득 보장과 자산형성의 필요성과 논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인 소득 보장과 자산형성 시스템은 중앙정부 프로그램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경우 청년층의 인적자본과 숙련 형성, 미스매치해소, 벤처창업지원 등과 연계시키는 방향을 지원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7). 나아가 이러한 정책에는 주거안정, 복지제공 등 패키지 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시리즈와 같은 정책프로그램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가령, 취업지원서비스와 청년고용지원금의 결합, 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그리고 목표집단별 청년고용지원금 설계의 다양화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취업알선, 무료 직업훈련, 직업훈련 기간 동안의 생계비지원 등을 패키지로 하는 맞춤형 청년고용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층 일자리 대책을 목표 집단별로 차별화하여 정책을 추진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실태조사에서 청년층 일자리 대책 수요의 우선순위로 취약계층 미취업자(50.1%), 장기 실업자(31.8%), 모든 청년(28.6%) 순으로 나타났듯이 이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추가적으로 정책 틀을 일자리,

주거, 생활비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학 미진학자나 청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청년고용정책이 고학력화에 따라서 수급불일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로 대졸자에 집중하는 정책에 집중되었으며, 고졸자나 취약청년층에 대한 정책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추진되어 왔다. 고졸 대책도 주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중심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청년층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졸자나 취약청년층에 대한 정책은 규모나 전달체계의 면에서 취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층 여성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의 고용지속성 및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취업률 제고에만 정책의 초점이 있으며 이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경력형성 등 인적자원개발은 미미한 수준이다.

끝으로 청년니트에 대한 대책이다.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불완전하게 통합되어 있는 청년층에 대한 정책방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취약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정책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취약청년층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 간 취약청년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연계하는 방안도 차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감사원(2016). 감사보고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 강순희·이기승·박명진·오혁준·최진혁·이정열·강세영·노신영·허은희(2017). 2017년 경기도 지역 정기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 경기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경기도(2017). 2017년 경기도일자리대책 세부계획-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경기도일자리재단(2016). 사업계획서 내부자료.
- 고용노동부(2017). 2017년 청년고용정책 추진방향. 2017.01
- 관계부처 합동(2017).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2017.03.22.
- 김문희(2015).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 사례 연구. 글로벌리포트.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양정선·김다경·유혜인(2017). 경기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이규용(2016).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효율화. 조세재정네트워크 발표자료.
- 이규용·강동우·전인(2016). 청년층 지역노동시장 구조와 일자리 창출 방안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전병유·임상훈·정준호(2014). 한국의 지역고용전략(II) - 실행전략의 모색.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2016).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최종보고서.
- OECD(2014). “Effective local strategies to boost quality job creation,” employment, and participation, LEED.
- _____(2016).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 통계청(2017).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2012-2016). 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 한국고용정보원(2015). 대졸자이동경로조사(GOMS).
- OECD. Stat(<http://stats.oecd.org>) LFS by sex and age-indicators.

■ 집필진

임희정 경기도일자리재단 선임연구위원

금재호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조동훈 한림대학교 교수

백준봉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

김효경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원

현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원

경기도 청년층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

발행인 김화수

발행일 2017. 12. 31.

발행처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14566)
전화: 031-970-9600 FAX: 031-270-9734
홈페이지: www.gjf.or.kr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2가길 16-5 (03673)
Tel. 02-313-7593 Fax. 02-393-3016
E-mail. h6332@hanmail.net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